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연구

2019. 02.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02.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사 장 임 승 택

참여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이 정 섭

연 구 원

김 경 철

장 계 련

김 정 훈

연 구 보 조 원

남 선 영

김 보 성

김 주 은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계획	3
3.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4
4.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구축	7
5. 첫걸음 문화카드의 효과 및 제언	10

I.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14
2. 시간적 범위	14
3. 내용적 범위	14

제3절 연구수행절차

II.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계획

제1절. 사업추진 배경

1.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의 발표	19
2. 첫걸음 문화카드의 개념과 도입 배경	21

제2절. 첫걸음 문화카드의 목적 및 필요성

1. 첫걸음 문화카드의 도입 목적	22
2.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의 필요성	24
3.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의 필요성	39

Ⅲ. 사례분석 및 의견수렴

제1절. 유사사례 분석

1. 국내 유사사례 분석	43
2. 해외 유사사례 분석	61
3. 사례분석 결과	66

제2절. 의견조사

1. 설문조사	68
2. 심층 그룹 인터뷰(FGI) 시행	99

Ⅳ.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구축

제1절. 지원대상 선정

1. 초등학교 1학년의 적정성	115
2. 보편적 지원의 적정성	123
3. 지원대상 선정	127

제2절. 지원금액 설정

1. 연간 20만원 지원의 적정성	128
2. 지원금액 소진 가능 여부 고려	131
3. 개인기준/가구기준 지원의 적정성	133
4. 지원금액 설정	135

제3절. 사용처 설정

1. 문화예술활동 분야 한정 필요	136
2. 사용처 설정	142

제4절. 지원방식 설정

1. 유사사례 지원방식	143
2. 카드 형태별 특징	146
3. 신청방식	149
4. 지원방식 설정	151

제5절. 소요예산 설정

제6절. 추진체계 설정

1. 사업추진 구조	154
2. 주관기관 검토	155

3. 시스템 구축 검토	158
제7절. 법제 개정방안 검토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시행근거 마련	160
2. 법제 개정(안)	160
제8절.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방안	
1. 사업추진 방법	167
2. 사업관리 방안	168
3. 홍보 방안	171

V. 첫걸음 문화카드의 효과 및 제언

제1절. 사업의 기대효과	
1. 문화예술향유 기반 조성	177
2. 국민 문화예술활동 편중 문제 개선	178
3. 아동 문화예술활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180
4. 아동의 정서발달 및 공동체 적응에 기여	181
5.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82
6. 정책 상징성 제고	185
제2절. 사업시행 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	
1. 효과적 사업시행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186
2. 수혜대상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187
3. 카드 신청률 및 이용률 제고	188
4. 문화소외지역 인프라 구축	189
5. 지속적 사업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191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지	197
2. 권역별 FGI 녹취록	204

표 목 차

〈표 1〉 소요예산 변화	8
〈표 2〉 주요 시행방안 종합	9
〈표 3〉 문화비전2030 주요 내용	20
〈표 4〉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추진 경과	21
〈표 5〉 초등학교 예술교육의 교육적 가치	24
〈표 6〉 놀이 및 여가활동이 아동·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25
〈표 7〉 TSR 프로그램의 효과	25
〈표 8〉 문화예술활동의 기능 및 영향	26
〈표 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종합 결과	27
〈표 10〉 주 양육자가 아동과 하는 문화예술 분야 여가활동 횟수(%)	30
〈표 11〉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권리	32
〈표 12〉 아동수당 추진 경과	35
〈표 13〉 아동 대상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특징	36
〈표 1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 직업	37
〈표 1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기준	43
〈표 1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경과	44
〈표 17〉 통합문화이용권 주요 사용처	45
〈표 18〉 아동수당 사업추진 경과	47
〈표 19〉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액	49
〈표 20〉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 경과	51
〈표 21〉 스포츠강좌이용권 2018년 예산(단위 : 백만원, %)	52
〈표 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기준	54
〈표 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절차	54
〈표 24〉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사용처	56
〈표 25〉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 주요 사용처	58
〈표 26〉 강서구 꿈-IN 카드 주요 사용처	59
〈표 27〉 여주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주요 사용처	60
〈표 28〉 설문조사 개요	68

〈표 29〉 설문조사 지역 집락화	69
〈표 30〉 설문조사 집락별 제공근 표본배분	71
〈표 31〉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1인 기준)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	78
〈표 32〉 가정에서 지출하는 아동(1인 기준)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비용	78
〈표 33〉 가정에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부대비용	79
〈표 34〉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동행하는 보호자	79
〈표 35〉 평소 아동이 즐기는 주요 문화예술활동	80
〈표 36〉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81
〈표 37〉 아동에게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한 적정 연령	81
〈표 38〉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82
〈표 39〉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창의적 사고 및 감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82
〈표 40〉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주요 장소	83
〈표 41〉 아동의 월간 문화예술교육 횟수	83
〈표 42〉 아동의 월간 문화예술교육 비용	84
〈표 43〉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에 동반하는 보호자	84
〈표 44〉 아동이 참여하는 주요 문화예술교육	85
〈표 45〉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85
〈표 46〉 아동에게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연령	86
〈표 47〉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86
〈표 48〉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적 사고 및 감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87
〈표 49〉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적정 지원 연령	87
〈표 50〉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	88
〈표 51〉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	88
〈표 52〉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하는 이유	89
〈표 53〉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 지원방식	89
〈표 54〉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간 적정 지원 금액(2인 기준)	90
〈표 55〉 연간 20만원 지원 시 전액 소진 가능 여부	90
〈표 56〉 전액 소진이 가능한 이유	91
〈표 57〉 전액 소진이 불가능한 이유	92
〈표 58〉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형태	93
〈표 59〉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93
〈표 60〉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아동 문화예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94
〈표 61〉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에 지역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94

〈표 62〉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장기적 지속 필요성	95
〈표 63〉 FGI 권역별 시행 일정	100
〈표 64〉 FGI 그룹별 응답자 일반사항	100
〈표 65〉 공통 질문 내용	101
〈표 66〉 부모 그룹 대상 질문 내용	101
〈표 67〉 교사 대상 질문 내용	102
〈표 68〉 주제별 FGI 결과 요약	112
〈표 69〉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요 일과 차이	115
〈표 70〉 서울시 주요 공연장 공연별 입장 가능 연령(2019년 3~4월 공연 기준)	116
〈표 71〉 초등학교 저학년의 문화예술 수용도	117
〈표 72〉 유치원 평균 시간표	118
〈표 73〉 초등학교 1학년 평균 시간표	119
〈표 74〉 초등학교 학년별 시간표	119
〈표 75〉 유치원 주요 문화예술활동 종류	120
〈표 76〉 지원대상군의 특성 검토	122
〈표 77〉 선별적 지원의 한계	124
〈표 78〉 영유아,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125
〈표 79〉 문화예술 지원정책별 특징	126
〈표 80〉 인터파크 1월 인기 아동 공연·뮤지컬 랭킹1~20위 관람료, S석 기준	130
〈표 81〉 유사정책 지원금액	130
〈표 82〉 지원방식에 따른 차이점	134
〈표 83〉 유사정책 사용처 기준	138
〈표 84〉 분야별 예시 및 사용처 적정 여부 평가	141
〈표 85〉 사용처 설정 분야	142
〈표 86〉 유사사례 지원방식 현황	145
〈표 87〉 지급방식에 따른 특성 검토	148
〈표 88〉 개별신청의 특징 및 절차	149
〈표 89〉 단체신청의 특징 및 절차	150
〈표 90〉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	152
〈표 91〉 소요예산 변화	153
〈표 92〉 기관별 역할	154
〈표 9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담당 부서 구조	155
〈표 9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사업	156

〈표 95〉 사용자별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활용	159
〈표 96〉 첫걸음 문화카드 시범사업 연간 사업추진 일정	167
〈표 97〉 성과평가 방법	168
〈표 98〉 부정사용 사례	170
〈표 99〉 시기별 홍보일정(안)	174
〈표 100〉 아동 지원정책별 특징	180
〈표 101〉 문화예술활동이 아동의 정서발달 및 공동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	181
〈표 102〉 재정패널 문화생활비 항목별 평균금액	183
〈표 103〉 첫걸음문화카드 지원에 따른 문화예술 신규시장 규모 추정	184
〈표 104〉 문화예술시설 이동 셔틀버스 운영사례	190
〈표 105〉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성과평가(안)	191
〈표 106〉 서울·경기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204
〈표 107〉 충청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212
〈표 108〉 경상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218
〈표 109〉 전라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233

그 림 목 차

[그림 1] 국민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회)	29
[그림 2] 아동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회)	29
[그림 3] 국가별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30
[그림 4] 아동의 항목별 결핍현황(%)	31
[그림 5]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33
[그림 6]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	34
[그림 7] 4차 산업혁명의 특징	38
[그림 8]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체계	45
[그림 9]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체계	52
[그림 10]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운영체계	55
[그림 11] Bonus Cultura 앱 이미지	61
[그림 12] 17.09~18.06월까지 Bonus Cultura 분야별 지출액	62
[그림 13] Le Pass Culture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63
[그림 14] Kultur Pass 이미지	64
[그림 15] A Night Less Ordinary 공식 이미지	65
[그림 16] FGI 현장 사진(서울·경기권, 충청권)	102
[그림 17] 아동의 방과 후 생활조사(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121
[그림 18] 첫걸음 문화카드의 소득수준 반영 여부 및 및 보편적 지원 응답 이유	123
[그림 19] 첫걸음 문화카드 적정 지원금액(좌) 및 아동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금액(우)	128
[그림 20] 국민 1인당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129
[그림 21] 20만원 지원 시 전액 소진 가능 여부	131
[그림 22] 전액 소진이 불가능한 이유	132
[그림 23]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136
[그림 24] 초등학교 1학년 인구수 추계	152
[그림 25] 초등학교 1학년 인구수 변화에 따른 카드지원비 총액 추계	153
[그림 26] 사업추진 구조	154
[그림 27]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구축 시 신청·결제 구조(안)	159
[그림 28] 유사사례 : 아동의 놀 권리 캠페인	171

[그림 29] 홍보 리플렛 예시(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172
[그림 30] 통합문화이용권 이벤트 사례	173
[그림 31] 2018년 연간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	178
[그림 32] 문화예술행사 선택 시 고려사항	179
[그림 33]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아동 문화예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좌),	182
[그림 34] 첫걸음 문화카드의 정책적 효과	185
[그림 35] 1인당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카드지원비 총액 추계	187
[그림 36] SC제일은행 마블, 디즈니 카드	189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첫걸음 문화카드’를 제시함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추진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기본 실행방안의 설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도입 및 안정적 제도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계획

1) 첫걸음 문화카드의 도입 목적

- 첫걸음 문화카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과 보호자에게 연간 20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을 통해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향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첫걸음 문화카드의 도입 필요성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필요성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아동발달을 증진시키고 안정감 행복감 자신감 향상과 같은 정서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기 문화예술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 생애 문화예술향유 기반 구축 및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또한 낮은 아동 행복지수와 높은 여가활동 결핍지수,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 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필요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 아동의 문화예술 향유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문화예술활동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인식 확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요구 증대 등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선별적 지원의 한계, 아동 특화 문화예술활동 직접 비용 지원정책 부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편적·수혜자 중심의 직접비용 지원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1) 설문조사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적 도입방안 구축을 위해 향후 수혜대상이 될 5~7세 아동을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현황,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업 타당성 및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설문조사 결과 아동이 평소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뮤지컬·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순으로 응답하였고, 조사대상 대부분이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문화예술활동이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문화예술 활성화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연령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 43.8%, 초등학교 1~3학년이 27.4%, 초등학교 1학년이 16.4%로 도출되었으며 지원방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적정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적정 사용처는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과 영화 관람,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의 순으로 응답하여 관람,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활동 분야를 사용처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종합

질문	응답률 1위	응답률 2위
연간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횟수	1~5회(45.7%)	5~10회(31.8%)
연간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비용	10~15만원(28.2%)	0~10만원(20.8%)
연간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부대비용	25만원 이상(33.0%)	10~15만원(21.2%)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종류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31.7%)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19.6%)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종류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39.7%)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29.7%)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한 적정 연령	초등학교 입학 전(43.5%)	초등학교 저학년(27.9%)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44.4%)	필요하다(38.8%)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창의성 및 감수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매우 그렇다(60.3%)	그렇다(34.3%)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연령	초등학교 입학 전(43.8%)	초등학교 저학년(27.4%)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62.5%)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37.2%)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간 적정 지원 금액(2인 기준)	20만원(42.2%)	30만원 이상(20.5%)
연간 20만원 지원 시(2인 기준) 전액 소진 가능 여부	가능하다(91.9%)	불가능하다(7.4%)
전액 소진이 가능한 이유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경험이 많아서(23.5%)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15.7%)
전액 소진이 불가능한 이유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 부족(22.7%)	시간적 여유가 없음(17.3%)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방식	신용·체크카드(89.4%)	기타(선불식카드, 바우처/3.4%)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20.7%)	영화 관람(16.7%)

2) 심층 그룹 인터뷰(FGI)

- 객관식 설문조사에서 도출하지 못한 사업시행 관련 세부사항과 잠재수혜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 그룹 4개 권역 FGI 및 교사 개별 인터뷰를 시행함
- FGI 결과 지원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 지원형태는 보편적 지원,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사용처는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방식은 포인트 카드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문화예술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비용을 소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부대비용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FGI 결과 종합

질 문	응답 요약
지원연령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 문화예술활동 부족 • 아동·부모의 여가시간이 가장 충분한 시기적 장점 • 새로운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변화에 따른 지원 필요시기 • 영유아기 타의적 문화예술활동에서 개인 선호에 따른 자의적 문화예술활동 시작시기 • 고학년에 비해 높은 문화적 자극효과
소득수준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시절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한다는 정책 취지 고려시 보편적 지원이 적절 • 소득수준으로 구분할 경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활동의 여유가 없는 아동은 미지원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여부는 소득수준 뿐 아니라 부모의 성향, 환경적 요인에 영향, 소득기준 지원은 부적절
지원금액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과 같은 고액의 공연 관람에 적정 • 영화는 이미 저렴하게 관람하기 때문에 지원비용 충분 • 1인 10만원은 적지 않으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
지원금액 전액 소진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오페라와 같은 고액의 공연 위주 관람을 희망하여 소진 가능 • 아동과 함께 할 여가시간이 충분하여 소진 가능 • 지방도 지원비용을 소진할 시설은 보유하고 있음(충청) • 지방은 지원비용을 소진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콘텐츠의 질도 낮음 • 지방에서의 전액 소진을 위해 첫걸음 문화카드 특화프로그램 제작 필요
사용처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오페라연극 등 공연 관람 분야는 적정 •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분야는 적정 • 영화 관람은 지방에서도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 놀이공원은 아동의 높은 선호도, 다양한 체험 등으로 선호하지만 위락시설의 성격이 있음 • 도서 구입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부정사용을 검증하기 어려워 부적절 • 여행(교통비·숙박비)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 • 학원·교습소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 • 문화소외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비용의 부대비용 사용 방안 검토 필요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식 포인트카드는 사용처 지정이 가능하여 적정 • 신용체크 겸용 포인트카드는 사용처 지정이 가능하며 타 지원카드와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 • 온라인 전용몰은 사용처 정보 파악이 편리하고 사용내역 검증이 가능해서 편리하지만 보호자의 인터넷 사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한계 • 현금지급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
신청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원정책이 대부분 온라인,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신청방식이 익숙함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시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함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시 정보 누락 및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고려

4.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구축

1) 지원대상 선정

- 초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공동체 진입에 따른 변화의 적응기제와 유치원보다 줄어든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임
- 영·유아 특화 콘텐츠에서 보다 확대된 영역의 문화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이며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예술 수용도, 아동·보호자의 여가시간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적 특수성을 갖고 있음
- 또한 설문조사·FGI 결과 첫걸음 문화카드의 보편적 지원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였고 선별적 지원의 한계 및 문화예술활동 보편적 비용지원 정책이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정함

2) 지원금액 설정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금액에 대한 수혜대상 의견조사 결과 연간 20만원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20만원 지원 시 전액 소비 가능 여부에 대해 아동과 문화예술활동의 경험 이 많고 관람료가 높은 공연 관람 위주로 소비 예정이어서 대부분 가능하다고 응답함
- 국민 문화예술활동 지출 규모 및 유사정책 지원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연간 20만원의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지원금액을 개인기준으로 아동과 보호자에게 각각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과 가구기준으로 통합하여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중에서는 수혜대상 선호도, 발급 및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구기준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정함

3) 사용처 설정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에 대한 수혜대상 의견조사 결과 공연·영화·전시 관람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유사정책의 주요 사용처 기준 반영 및 정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

용처는 뮤지컬·오페라·연극 등 공연 관람,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영화 관람,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적정함

- 도서 구입과 학원·교습소 수강료, 여행에 필요한 부대비용(교통비·숙박비) 등은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로 보기 어려우며 놀이공원은 위락시설의 성격이 강하여 사용처에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함

4) 지원방식 설정

- 통합문화이용권, 아이행복카드, 지자체 아동·청소년 진로체험카드 등 유사사례의 지원방식과 수혜대상 선호도, 정책 취지에 부합한 사용 등을 검토하였을 때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카드 형태의 발급이 적정함
- 다만 신용·체크 기능 포인트카드는 카드 발급에 따른 개인·금융사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불식 포인트카드가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누락의 위험이 적고 정보 미기재시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며 담당 기관과 수혜대상에게 모두 익숙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한 개별신청이 적정함

5) 소요예산 및 추진체계 설정

- 초등학교 입학생수 추계를 통해 소요예산을 추산하면 연간 운영비 15억원을 포함하여 2020년 842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은 784억원 등으로 추산됨

〈표 1〉 소요예산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카드지원비	842억	848억	784억	694억	783억
운영비	15억원('18년 통합문화이용권 운영비 기준 반영=1,480만원)				
계	857억	863억	799억	705억	798억

-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 능력, 정책 취지, 시스템 및 인력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첫걸음 문화카드와 신청 및 사용방식이 유사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적정함

6) 법제 개정방안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기존 법령 내 대상을 추가할 경우 첫걸음 문화카드를 문화이용권의 범주로 인정하여 ‘문화이용권’ 관련 조항 내 첫걸음 문화카드의 수혜대상인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생’을 추가하여 시행함
- 문화예술진흥법 내 첫걸음 문화카드 조항을 신설할 경우 문화이용권과 첫걸음 문화카드를 별개로 설정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기존 문화이용권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추가함

7)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방안

-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대응 및 수혜대상 반응 분석을 통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한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카드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기적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으로 문제점 도출, 부정사용 관리,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 권리에 대한 캠페인 시행, 아동 관련 기관 및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업 홍보 등이 진행되어야 함

〈표 2〉 주요 시행방안 종합

구분	내용
지원연령	초등학교 1학년
지원형태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지원금액	연간 20만원(아동 + 보호자)
지원방식	가구당 20만원 통합지원
사 용 처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예술활동 분야
발급형태	선불식 포인트카드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한 개별신청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제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이용권’ 법령 내 대상 추가 또는 ‘첫걸음 문화카드’ 조항 신설

5. 첫걸음 문화카드의 효과 및 제언

1) 사업의 기대 효과

- 첫걸음 문화카드의 시행을 통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는 성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여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향유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활동비용의 지원은 평소 관람하기 어려웠던 고액의 공연 관람 등으로 활동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어 영화 관람 위주로 편중된 국민 문화예술활동 편중 문제의 개선이 기대됨
-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도 보육, 교육, 생활 지원과 같이 모든 아동이 보장 받아야하는 권리라는 인식 확대가 가능함
- 카드사용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률 증가로 아동 대상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확대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기대됨

2) 사업 시행 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

- 효과적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아동,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금액 확대,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카드 신청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책홍보를 진행하고 문화소외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혜대상이 지역에 관계없이 첫걸음 문화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I.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수행 절차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에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의 정책적 실현을 위한 37개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첫걸음 문화카드’를 제시함
- 첫걸음 문화카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문화가 있는 삶을 조성하기 위해 그 첫걸음인 아동기부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사업임
- 문화예술의 초기 경험이나 어린 시절 노출 경험은 미래 문화예술향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기회의 제공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음
-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정규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첫걸음 문화카드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활동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향유의 기본적인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첫걸음 문화카드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 특정연령을 수혜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점 등에서 사업시행 시 국민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직접 수혜대상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타당성 확보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 예정에 따라 사업의 효과적 도입 및 안정적 제도운동을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실행방안의 설계가 필요함
- 기초조사, 사례분석, 세부 시행방안 구성, 시행에 따른 운영 방안 등의 체계적 수립을 통해 특정연령, 보편적 지급이라는 지원방식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요구됨
-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첫걸음 문화카드가 실제 전 생애에 걸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현황 및 사례분석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기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자치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 등 전국

2. 시간적 범위

- 사업이 시행 예정년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함

3. 내용적 범위

- 첫걸음 문화카드와 관련된 사업 현황분석,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 선행 사업과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첫걸음 문화카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함
- 주요 이해자 설문조사 및 FGI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기준 설정의 근거로 활용함
- 기초조사 및 설문조사·FGI·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사업방식, 추진체계, 법적 개선방안, 소요예산 등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정행위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보완체계 등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함

제3절 연구수행 절차

단계	연구내용
연구계획 수립 및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범위 등 • 선행연구 검토 • 기초자료 수집 • 유사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분석
↓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사업수혜대상 설문조사FGI 설계 및 계획 수립 • 조사 수행 • 결과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분야 등 주요 사업시행 방안 구축
↓	
사업계획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이용분야 • 추진체계 • 소요예산 • 법령개정
↓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 • 보완 및 발전방안 등

Ⅱ.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계획

제1절. 사업추진 배경

제2절. 첫걸음 문화카드의 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사업추진 배경

1.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의 발표

가. 정책목표 및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2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의 기초를 공개하고 2018년 5월 구체적 정책 방향을 발표함
-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임
- 특히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과 경제적 복지의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함
- 문화비전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규정하면서 자율성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의 실현을 핵심의제로 제시함
- 다양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을 핵심의제로 제시함
- 창의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핵심의제로 제시함
- 이처럼 문화비전2030은 3대 가치와 9개의 핵심의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37개의 주요 과제를 담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정책과제 기반을 구축함

나. 문화비전2030 정책 추진 세부 내용

〈표 3〉 문화비전2030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3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
정책의제 및 주요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권 2030 선언 • 첫걸음 문화카드 • 문화놀이터 • 문화예술 치유 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지위, 권리 보호 관련 법률 마련 • 예술가 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등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5.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신설 •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 •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 스포츠 윤리센터(가칭) 설립 6. 지역문화 분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및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 •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 지원 7.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확대 • 문화기술 연구개발 범위에 기획·창작 단계 포함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전진기지로서의 해외문화원 역량 강화 •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등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 추진 • 지역 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주민 참여 • 문화영향평가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 5. 16.)

2. 첫걸음 문화카드의 개념과 도입 배경

- 첫걸음 문화카드는 문화비전2030의 9가지 의제 중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의 구축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동기에 문화예술을 접하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과 보호자에게 연간 20만 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정책임

〈표 4〉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17. 12.	•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기조 공개
2018. 05.	•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정책방향 발표
2018. 10.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검토, 문화관광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11.	•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구축하며 개인의 문화권리 보장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첫걸음 문화카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의 시작이 되는 정책으로 초등학교 시기 즉 아동기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의 효과적 방안으로 제안됨
- 또한 초등학교 입학생이라는 특정연령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며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수혜층에 특화된 정책지원이 가능함

제2절 첫걸음 문화카드의 목적 및 필요성

1. 첫걸음 문화카드의 도입 목적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

- 첫걸음 문화카드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이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직접비용의 지원은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부족한 아동에게는 활동 규모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며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아동에게는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동문화예술활동의 개념]

- 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이하 연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의 개념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규정함
- 법적으로 아동문화활동의 정의는 없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의 연령 기준이 청소년의 연령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문화활동 개념을 준용하고자 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화예술활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의 인구연령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의 체험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문화예술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감수성, 창의성, 인성함양 등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개인에게는 전 생애에 문화가 있는 삶의 제공을 사회에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

- 첫걸음 문화카드는 이와 같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전 생애 문화예술향유 기반 조성

-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경험 활성화뿐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아동 모두가 누려야 하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한 활동 지원으로 아동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문화산업 확대의 기회 제공

- 첫걸음 문화카드는 아동대상 문화예술부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향유의 일상화로 공연예술 등의 문화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기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이 시행될 경우 카드지원비 사용을 위한 수요 확대에 따라 아동 대상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 구축 활성화를 통한 아동 문화예술시장의 공급 확대가 기대됨

2.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의 필요성

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필요성

1) 아동발달 및 문화적 감성 증진에 영향

□ 아동발달 증진

-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발달의 중요한 7가지 요소인 건강, 교육, 정서 및 행동상의 발달, 정체성, 가족 및 사회관계, 사회적 규범, 자기를 돌보는 기술(서울복지재단, 2007) 중 거의 대부분에 요소에 문화예술활동을 영향을 미침
- 초등학교 예술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사 대상 인식조사 결과 음악과 미술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발달, 지적 발달, 창의성 증진, 의사소통 능력, 인성발달, 협력태도와 능력, 학교 소속감 등에 모두 높은 영향을 주는 가치로 나타남에 따라 문화예술활동과 교육이 초등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표 5〉 초등학교 예술교육의 교육적 가치

구분	정서적 발달	지적 발달	창의성 증진	의사소통 능력	인성 발달	협력태도와 능력	학교 소속감
음악	91.9	86.1	87.9	84.4	90.8	87.2	82.4
미술	91.7	86.6	92.8	85.4	89.3	87.7	78.7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초·중등학교 예술체육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훈 외, 2015)은 놀이 및 여가활동이 아동·청소년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같은 일차적 발달과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여 특히 엄마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유아기와 달리 아동·청소년기의 놀이와 여가생활은 아동이 집단 내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음

〈표 6〉 놀이 및 여가활동이 아동·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심리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발산적 사고 정서적 안정성 사회적 판단 효율적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언어능력
신체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신체발달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안정감, 행복감, 자신감 향상 등 정서적 만족에 영향

-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안정감, 행복감, 자신감 등을 고취시켜 사회·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만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함
- 호주 국립 비영리 예술교육단체인 더 송 룸 (The Song Room, 이하 TSR)에서 2010년에 뉴 사우스웨일즈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예술을 통해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Bridging the Gap in School Achievement through the Arts)’ 결과 예술교육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아이들은 예술교육 후 전반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줄어드는 편이었으며, 여자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표 7〉 TSR 프로그램의 효과

질문/대상	TSR 프로그램 장기진행 학교		TSR 프로그램 단기진행 학교		TSR 프로그램 비진행 학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나는 선생님과 잘 지낸다’	89	96	82	90	80	82
‘나는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25	8	26	14	46	15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93	90	82	87	83	85

자료 : 아르떼 해외리포트(<http://www.arte365.kr/?p=14836>)

-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문화예술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여가선용’, ‘정보와 지식 획득’,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 ‘정서적 안정감’, ‘자신감 획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표 8〉 문화예술활동의 기능 및 영향

구분	내용
문화예술의 대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이해를 돕는 것 •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해소 • 여가선용 • 정보와 지식 획득 •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 • 정서적 안정감 • 자신감 획득

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결과에서도 음악 활동이 아동·청소년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개인발달과 인적관계 사회성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아동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서 음악적 성장뿐 아니라 자존감, 성실, 스트레스 수준 감소, 책임감, 자발성과 적극성, 활발해지고 밝아진 성격과 같은 개인발달과 다양한 친구 사귀기, 가족의 유대감 및 대화 증가, 함께하는 즐거움 알기 등 인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이처럼 문화예술활동은 안정감, 행복감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친구·가족 등의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는 시기에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돕는 기제가 될 수 있음

〈표 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종합 결과

구분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음악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지식 • 음악향유 • 음악태도 • 음악활동 • 악기(음악)에 대한 애착 • 음악적 몰입과 음악을 대하는 주도적 자세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 • 합주 역량 성장과 합주의 즐거움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성장의 지속적 상승 •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 자발적 연습과 노력
개인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 성실 • 의사소통능력 • 미래전망 • 언어능력 • 수학능력 • 스트레스 수준 감소 • 음악 활동을 통한 집중력의 향상과 자기절제 • 담당 악기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배우는 책임감 • 자발성과 적극성 • 활달해지고 밝아진 성격 • 아동의 내면적 성장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유지 • 의사소통능력 유지 • 미래전망 유지 • 수학능력 유지 • 스트레스 수준 감소 유지 • 자발성과 적극성 유지 • 아동의 내면적 성장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 유지 • 음악에 대한 진로전환 • 자기치유
인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수용도 • 보호자와의 친밀감 • 타인배려 • 협동협력 • 다양한 친구 사귀기 • 가족의 유대감 및 대화 증가 • 피어티칭 • 밝아진 성격 • 함께하는 즐거움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수용도 유지 • 타인배려 유지 • 협동협력 유지 • 배려와 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 작용 능력(피어티칭의 중요성 인식)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뢰 • 소속감/유대감 • 공동체 참여행동 • 사회자본 • 공동체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뢰 유지 • 소속감/유대감 유지 • 공동체 참여행동 유지 • 사회자본 유지 • 공동체 규범 유지 • 학교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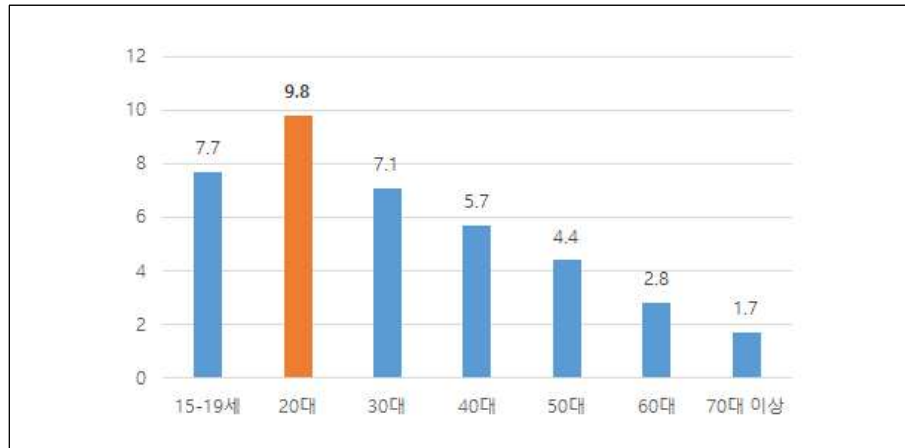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2) 전 생애 문화예술향유의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대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화예술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 아동기,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유소년기 문화자본 형성을 위한 첫 단계로 중요성을 가지며 성년기 문화향유의 격차가 궁극적으로 유년기 문화자본의 불평등성에 비롯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시기 문화예술 경험은 성년기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위한 가장 초기 단계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기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유소년기, 중고등학교 시기 그리고 최근에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이들일수록 문화예술 참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는 전 생애에서 어린시기의 문화예술 경험이 향후 문화예술향유 확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무엇보다 초등학교는 ‘문화예술의 향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확장의 시작점이 되는 시기이자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각인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전 생애 동안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본격적 시작의 시기로 볼 수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그러므로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확대는 전 생애 문화향유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아동 개인의 활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 활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확대된 문화향유의 형태로 나타남
 - 대부분의 아동이 문화예술활동 시 보호자를 동반하며 가정에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도 함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대상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곧 가족 전체 대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동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가정의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면 사회 전반의 문화예술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은 문화예술 향유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3)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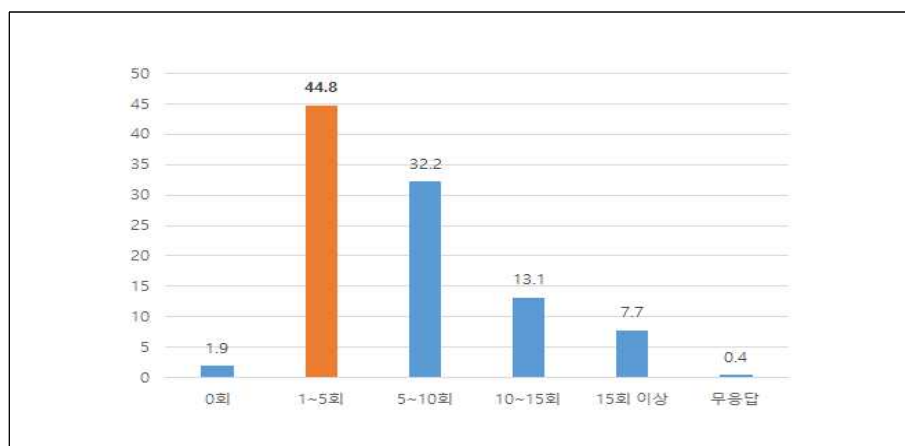
-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에서 연령별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는 전 국민 평균 5.6회, 15~19세는 7.7회, 20대는 9.8회로 도출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1] 국민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회)

- 5~7세(연나이) 아동을 둔 부모 1,000명 대상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횟수가 연간 6.6회로 도출됨에 따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횟수는 국민 평균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학업 강도가 높은 15~19세, 자율적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20대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2] 아동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회)

-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3)¹⁾ 결과에서도 주 양육자가 아동과 하는 문화예술 분야 여가활동의 횟수 조사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와 ‘1년에 1~2회’가 전체의 62.3%로 나타나 가정 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10〉 주 양육자가 아동과 하는 문화예술 분야 여가활동 횟수(%)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 달에 1~2회	한 달에 3~4회 이상
영화, 공연관람	20.1	42.2	25.9	10.0	1.7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32.0	46.4	16.1	4.8	0.6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4) 낮은 아동 행복지수와 높은 아동 결핍수준의 문제

-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한국방정환재단, 2018)²⁾ 조사결과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94.6으로 OECD 국가 중 16위에 머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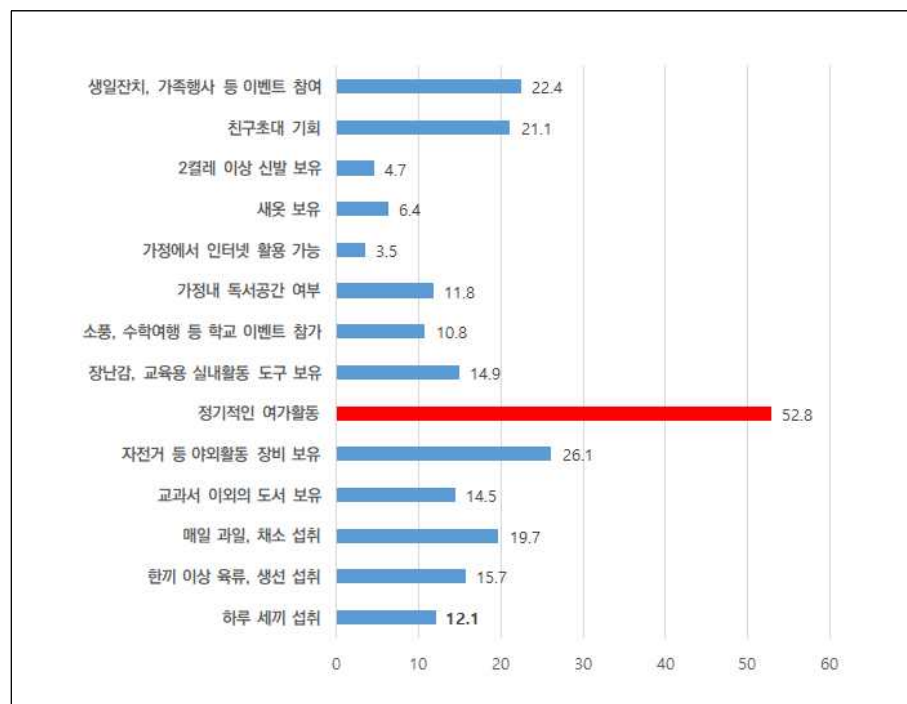


자료 : 한국방정환재단(2018),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

[그림 3] 국가별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 1)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아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 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조사로 전국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함
- 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조사로 2018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345명을 대상으로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행복지수를 산출함

- 아동의 항목별 결핍현황에 대한 조사(보건복지부, 2013)에서도 아동 결핍수준은 54.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아동의 항목별 결핍현황에서 ‘정기적인 여가활동’ 결핍 비율이 52.8%로 1순위로 나타남
- 결핍현황 중 의식·주의 기초생활 부분에 대한 결핍도는 매우 낮고 생활 수준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나 아동의 행복도와 여가생활을 반영한 결핍도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그리고 이와 같은 아동의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제시할 수 있음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감, 생활의 즐거움, 친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그림 4] 아동의 항목별 결핍현황(%)

나.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1) 정책적 지원의 근거

-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화의 향유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함
-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³⁾’은 ‘휴식, 여가, 놀이, 오락, 문화 예술활동’을 아동의 권리로 지정하여 모든 아동은 놀고 쉬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함
- 이처럼 아동의 문화예술향유는 국내·외 법령 및 협약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표 11〉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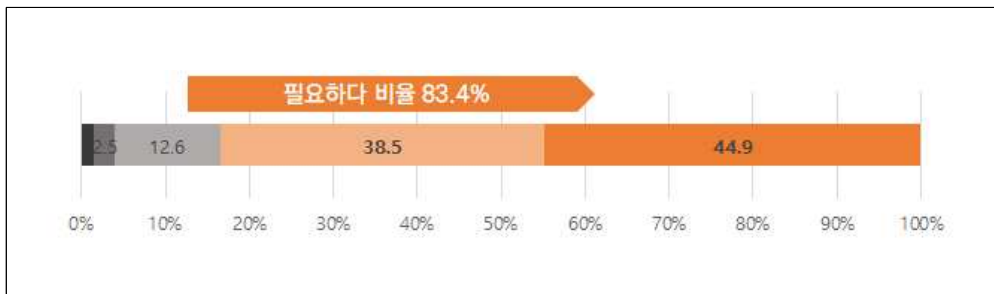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NO. 17 휴식·여가·놀이·오락·문화예술에 관한 아동의 권리</p> 	<p>〈제31조〉</p> <p>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p> <p>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p>

자료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함

2)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요구 증대

- 전국의 청소년(초등학생~고등학생) 대상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조사 결과, 1순위 문화예술활동(63.6%), 2순위 진로직업활동(41.5%), 3순위 교류활동(32%)으로 응답하였고 이 중 초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58.7%), 모험개척활동(40.9%), 진로직업활동(38.9%)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이 요구하는 활동 중 문화예술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한국청소년연구원, 2009)
- 5~7세(연나이) 아동을 둔 부모 1,000명 대상 설문조사(본 연구) 결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조사결과 ‘필요하다’에 83.4%가 응답하여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본 연구 설문조사)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5]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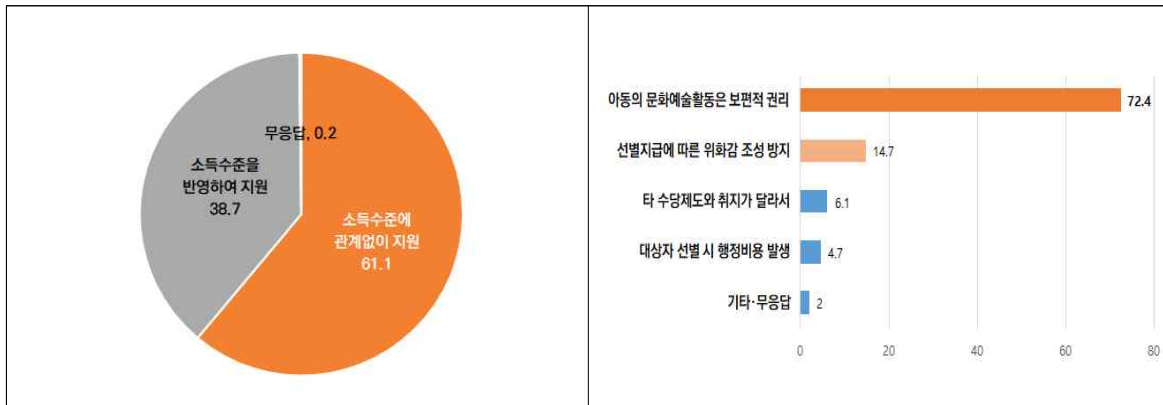
-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활동 중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필요성에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여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필요성

1)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인식 확대

-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 소득수준 반영 필요성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61.1%,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38.7%가 응답하여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를 응답한 이유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 72.4%, ‘선별지급에 따른 위화감 조성 방지’가 14.7%로 도출됨에 따라 응답자의 대다수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보편적으로 향유해야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6]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

2) 소득수준 반영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한계

- 보호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소득수준뿐 아니라 보호자의 성향, 관심, 여가시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만이 문화예술활동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음
 -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아동을 선별할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아동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려움은 없으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여유는 없는 가정의 아동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문화예술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됨
- 이처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여 오히려 아동의 문화예술향유 격차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3) 아동지원 정책의 보편적 지원 흐름

- 보건복지부는 2019년 2월 「2022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OECD 국가 중 최하 위권인 아동의 삶의 질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아동세대의 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방향으로 복지정책 추진을 천명함
- 이에 따라 2018년 소득수준 하위 90%에게만 선별적 지원했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수혜대상도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등 모든 아동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표 12〉 아동수당 추진 경과

일자	내용	수혜대상
2018. 09	아동수당 도입	만6세 미만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2019. 01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 09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 유럽의 주요 아동·청소년 문화 패스 사업⁴⁾의 경우도 대부분 해당 연령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형태로 추진되어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내외 모두 보편적 지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라.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직접 비용지원 정책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은 대부분 특정 시설 내 또는 지역 방문 등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형태임
 -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사업운영의 편리성을 갖고 있으나 수혜자의 선택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수혜자 선호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비용지원을 통해 수혜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아동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별적 지원이라는 사업 특성상 모든 아동이 포함되는 아동 특화 사업으로 볼 수 없음

4) 이탈리아의 Bonus Culture, 프랑스의 Le Pass Culture, 독일 에센의 Kultur Pass Fuer Kinder. 영국의 A Night Less Ordinary는 아동·청소년 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정책임

-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및 정책적 특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직접 비용지원 형태의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표 13〉 아동 대상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특징

구분	사업명	대상	지원형태	아동특화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용지원	X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	프로그램 지원	X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소외지역	프로그램 지원	X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소외지역+일반	비용지원	X
교육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전국 초·중·고 학생	프로그램 지원	O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프로그램 지원	O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학교 밖 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지원	O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서울 제외)	프로그램 지원	O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O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O

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문화적 가치 확대

□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

-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4차산업혁명위원회)
-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가 생산 요소 또는 기술의 개별적 발전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고, 생산·유통·소비 요소의 사물과 정보가 연결되는 시대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자동차 기술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탄생하고 제조생산 기술과 AI, IoT, 빅데이터가 융합하여 스마트공장이 등장하며, 모든 전자제품이 자율제어 되는 커넥티드 홈이나 안전·에너지·교통·오염 등을 스스로 예측하고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및 산업화가 가능함
- 또 블록체인이나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업이나 제조산업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한국고용정보원, 2018)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이 담당하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신 자동화에 기초한 직무 대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자동화 중심의 사회가 되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직무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성을 요소로 갖는 직무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표 1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 직업

직업명	관련 기술
콜센터 요원(고객상담원 및 안내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생산 및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스마트공장
의료진단 전문가	의료기기, 헬스, 인공지능
금융사무원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창고작업원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증강현실기술 등
계산원	디지털화, 핀테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7),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 문화예술은 창의성, 감성의 영역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단순반복 작업, 연산, 금융, 행정 등과 관련된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높다고 예측되지만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문화예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다고 분석됨
-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은 인간적 영역인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함
- ‘기계 vs 인간’의 갈등구도에서 자존감 위축, 소외감,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
- 자기성찰을 위한 인문학과 인간적 가치에 기반하고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문화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게 됨
- 또한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은 4차 산업혁명의 주류영역이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웹툰, 드라마, 영화, 캐릭터산업 등은 창구효과·파급효과 매우 큰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문화기술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됨(최연구, 2017)

-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문화예술은 경제적 성장과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미래의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확대가 필요함



[그림 7] 4차 산업혁명의 특징

3.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의 필요성

가.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모든 국민은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아동 역시 문화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은 성인과 달리 단독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성향, 관심, 주변 환경 등에 의해 활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기회가 됨

나.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창의성 개발,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향상, 감수성 발달 등 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이며,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진입하는 부담감을 감소시켜주고 공동체 적응을 도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초등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부족

- 단체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하던 유치원과 비교하여 초등학교는 단체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에 따라 동일 학급 내 아동 간에도 문화예술향유 격차가 발생함
- 또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정서적 결핍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와 같은 정책사업으로 아동(특히 초등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필요

-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필요성 확대
 -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여부는 소득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예술의 향유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함

마. 수요자(아동) 중심 문화예술활동 정책지원 필요

- 현 아동 대상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지원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 문화예술활동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이를 아동 특화 지원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수혜대상이 아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직접 활동비 지원 형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아동의 문화예술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소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첫걸음 문화카드’사업이 필요함

Ⅲ. 사례분석 및 의견수렴

제1절. 유사사례 분석

제2절. 의견조사

제1절 유사사례 분석

1. 국내 유사사례 분석

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 목적 및 개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삶을 향유하고 계층 간 문화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목적의 사업임
-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일원화하여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발급한 것으로 문화예술분야뿐 아니라 여행과 스포츠 분야까지 전국 27,200여개 가맹점이 사용처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혜대상이 약 164만명(2018년 기준)으로 현재 가장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음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통합문화이용권은 만6세 이상 국민 중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임

〈표 1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기준

구분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존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개인) 외 나머지 가구원

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http://www.mnuri.kr/munhwa>)

- 1인당 연간 8만원(2019년 기준)의 활동비용을 지원하며 향후 2021년에는 10만원까지 증액예정임

〈표 1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경과

연도	내용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광 이용권 통합 추진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5만원 → 6만원)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6만원 → 7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7만원 → 8만원)

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http://www.mnuri.kr/munhwa>)

- 통합문화이용권의 예산은 국비(문예기금)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국비 82,103백만원, 지방비 34,553백만원으로 총 116,65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됨
- 통합문화이용권은 바우처의 성격뿐 아니라 제휴 할인카드의 성격도 갖고 있어 발급된 카드에 본인 충전금을 충전하면 비용소진 후에도 할인된 금액으로 문화예술 소비를 즐기는 것이 가능함(카드 1매, 1회당 최대 10만원)

□ 운영체계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운동을 총괄하여 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함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사업 총괄 및 지방비 매칭, 카드발급을 담당하고 17개 시·도 지역주관처에서 사업비 집행·정산, 지역관리 등을 담당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지침

[그림 8]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체계

□ 신청방법

- 통합문화이용권의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에서 공인인증·휴대폰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함
- 발급 신청 시 수집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 자격 검증 후 카드사로 신청정보 전송하며, 주민센터나 농협지점 방문·우편배송 등의 방법으로 수령 가능함

□ 사용처

-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처는 크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로 나뉘며 2018년 기준 약 27,2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함

〈표 17〉 통합문화이용권 주요 사용처

구 분	업 종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한복대여점,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 호텔, 콘도, 게스트이, 한옥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관광지 : 사적지, 휴양림, 지역축제, 케이블카 등 • 테마파크 및 레저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스키장 등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체육시설 : 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 자전거용품점,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지침

3) 사업관리

-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성과평가가 병행된 종합평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복권기금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등 관련 평가와 연계되어 진행됨
-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문의,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이용 문의, 사업 개선 사항 및 의견 접수, 부정 발급·이용 신고 등의 문제에 대응함

4) 사업성과

- 통합문화이용권의 2014년 예산은 732억원에서 2018년 기준 총 1,167억원으로 시행 이후로 사업예산이 크게 증대하였고 지원금액 역시 개인 기준 지원방식이 도입된(2014년은 가구 기준 지원) 2015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 연 8만원, 향후 2021년에는 10만원까지 단계적 확대를 계획중임
- 이처럼 예산, 지원금액의 지속적 확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확대, 국민의 사업 인지도 상승, 사용처 확대 및 사용률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은 수혜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지정한 선별적 지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용처의 범위가 관람, 체험, 방문뿐 아니라 문화상품의 구입까지 포함되어 있어 타 지원사업에 비해 넓은 장점을 갖고 있음
- 문화소외지역이나 노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발급과 이용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 극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문화소외지역은 수혜자가 문화예술활동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도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한 상태임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카드사용 촉구 및 찾아가는 문화카드발급서비스 진행, 지원금액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아동수당

1) 목적 및 개념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19년 기준) 매월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임
- 아동수당은 2018년까지는 소득수준 하위 90%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의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상위 10%의 비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상위 10%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과 선별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2019년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방식으로 변경됨
-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예정되어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과 수혜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지급의 방식이고 첫걸음 문화카드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예술분야로 사용처가 지정된 방식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시행방식에 있어 서로 차별화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표 18〉 아동수당 사업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18. 09.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소득수준 하위 90%) 대상 도입
2019. 01.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지원
2019. 09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 확대 예정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함
- 만 6세 미만 기준 약 2조 8,1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며 기본적으로 현금지급(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성남시) 지역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하기도 함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앱)으로 신청함

□ 사용처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용처(지역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가맹점 한정)

다. 아이행복카드

1) 목적 및 개념

- 아이행복카드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임(교육부, 2018)⁵⁾
- 201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아이행복카드로 발급함으로써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게 됨
- 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해당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금융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모가 지급하는 형태임

5) 교육부, 2018, 2018년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은 연령 및 종일반·맞춤반 구분에 따라 매월 최소 6만원에서 최대 44만 1천원까지 차등지원됨

〈표 19〉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액

구 분	연령	지원액(원/월)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종일반	맞춤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60,000	220,000	220,000	
	만 4세				
	만 3세				
	만 2세			320,000	250,000
	만 1세			388,000	302,000
	만 0세			441,000	344,000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사업예산

- 영유아보육료('18년 기준) 총 3조 2,575억원(보건복지부)
 - 0~2세반 보육료 : 3조 1,061억원
 - 장애아보육료 : 444억원
 - 시간연장형보육료 : 369억원
 - 긴급보육바우처 : 700억원

□ 신청 및 결제방법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포함)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함(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7개 카드사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 발급하며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보육료 결제기능을 추가 요청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함
- 어린이집 보육료는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로 결제 가능하며 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혼합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은 인증, 학부모부담금은 결제 방식으로 지원함
- 학부모 인증을 거쳐 시도교육청에서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 원아별 입학 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정산을 실시함

□ 사용처

- 전국 국·공·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3) 사업관리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합동지도 및 정기점검을 시행함

4) 사업성과

- 2012년 보육료 지원은 0~2세와 5세 연령의 영유아에게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였고 3·4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하위 70% 범위에 포함되는 영유아대상으로만 보육료가 지원되었음
- 2013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시행으로(제6장 제34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수혜대상이 확대됨
- 이처럼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국민의 영유아 교육비 부담감소,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확대, 저출산고령화문제 개선 등 영유아의 원만한 성장을 돕는 환경조성의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1) 목적 및 개념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임

〈표 20〉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 경과

연도	내용
2017년	• 스포츠강좌 월 최대 지원금 인상 (7만원→8만원)
2016년	• 범죄피해 가구 지원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경찰청 협업사업)
2015년	• 저소득층 가구 폭력(가정, 성, 학교)피해 아동 발굴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
2015년	• 민법 개정에 따른 연령 변경 (만5 ~ 19세 → 만5 ~ 18세)
2014년	• 수혜자격 실시간 확인 시스템 도입 (정부 3.0 공공기관협업과제 Top5 사업 선정)
2013년	• 대상자 연령 확대 (만7 ~ 19세 → 만5 ~ 19세)
2012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금 인상(6만원 → 7만원)
2011년	• 체육바우처 카드시스템 도입
2009년	• 체육바우처 사업 실시 (만7 ~ 19세)

자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voucher.kspo.or.kr>)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 1카드, 1인당 월 최대 8만원의 스포츠강좌를 지원함
- 사업재원은 국민체육기금 70%, 지자체 30%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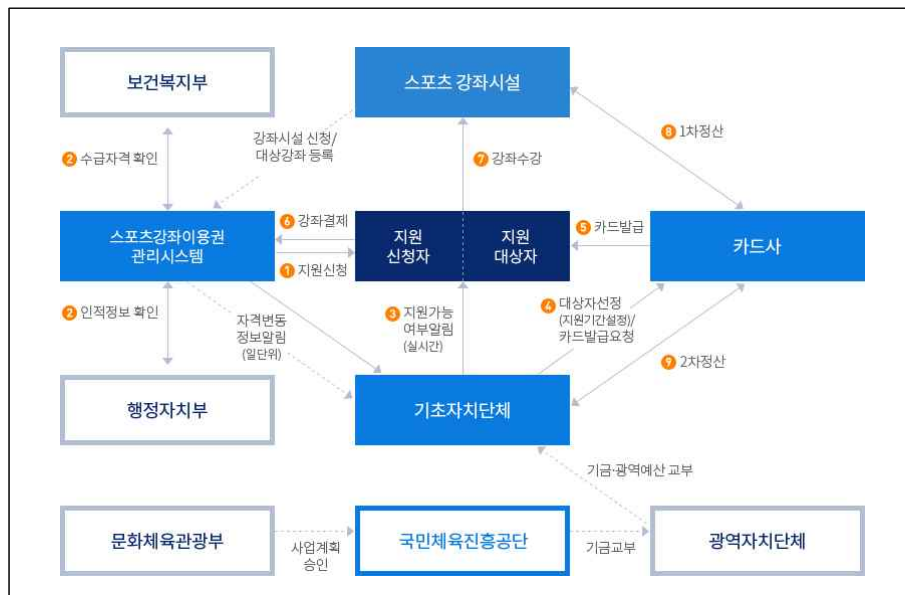
〈표 21〉 스포츠강좌이용권 2018년 예산(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액
합계	20,12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9,600
시스템구축 및 사업운영	542

자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voucher.kspo.or.kr>)

□ 운영체계

- 사업운영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사업기획·재정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담당함



자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voucher.kspo.or.kr>)

[그림 9]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체계

□ 신청 및 결제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 내역 확인 후 선정/거부하여 알림(SMS), 신청주소지로 카드 발송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결제를 위한 비밀번호 등록 후 사용함
- 온라인 결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용권을 보유한 개인회원이 로그인 후 [개인 수강신청·결제] 페이지에서 시설검색 후 강좌를 선택 결제함

- 시설 방문 결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에 방문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회원이 로그인 후 [시설 수강신청·결제] 페이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카드번호로 검색 후 강좌를 선택하여 결제함

□ 사용처

-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축구, 유도, 승마, 농구, 롤러인라인, 합기도,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복싱, 발레, 빙상, 요가, 댄스, 스쿼시, 볼링, 필라테스, 야구, 골프, 테니스, 펜싱, 배구, 기타종목 등 전국 9,872개 시설(2018년 기준)

3) 사업성과

- '19년에는 '18년 대비 지원 대상(4만 8천 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등 5,100명 대상 시범사업 추진 예정임

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목적 및 개념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바우처임
- 취학 아동·청소년이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책이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정책임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득수준 및 기타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원함 (지자체별 기준 상이)

〈표 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기준

구 분	금액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대상자
2순위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3순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자료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https://comwel2009.blog.me>)

□ 신청방법

-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함

〈표 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절차



□ 사용처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 등

바.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1) 목적 및 개념

-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학교 1학년 학생(만13세 학교밖 청소년 포함) 대상 문화·예술·체육·진로체험 활동 지원 목적으로, 연간 10만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원하며 성북구와 인근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함
-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통해 미래

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평등한 문화·예술·체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제공처 발굴로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과 진로직업 체험을 통한 자신의 꿈과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리 실현을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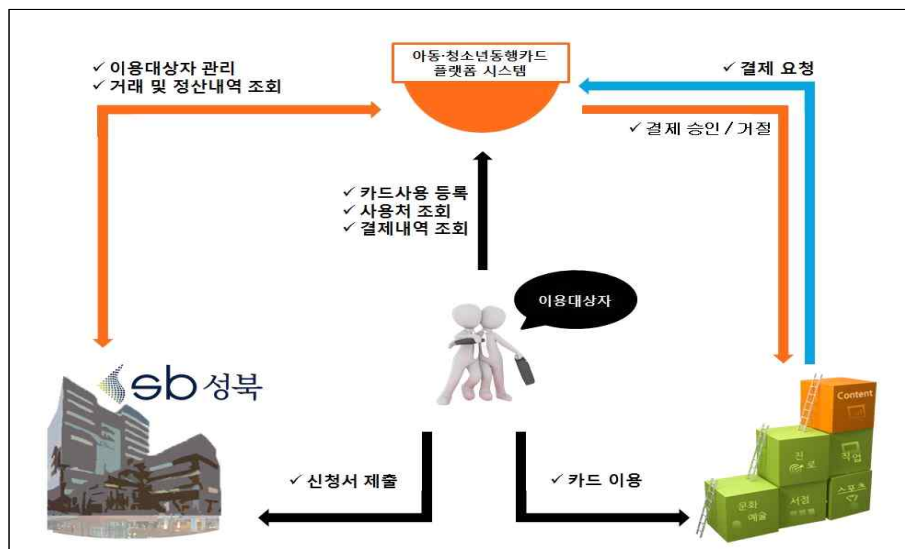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만 13세 학교밖 청소년(외국인 포함)에게 연간 1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원함
- 2018년 기준 총 345,700천원의 구비가 예산으로 투입됨

□ 운영체계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학교장 재학 확인 날인 신청서 제출, 카드 수령 후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등록 필요하며 반기별 1회씩 연간 총 2회에 걸쳐 지원함



자료 : 성북구(2018), 2018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계획

[그림 10]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운영체계

□ 사용처

-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2018년 기준 총 116 곳)에서 이용 가능하며 교과목 관련 서적 구입은 제외함

〈표 24〉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사용처

구 분	업 종
학원 · 교습소	• 미술, 음악, 스피치 학원
미술관 · 박물관	• 성북구립미술관, 갤러리, 민화옛돌·퀼트·김치·가구박물관
서점	• 성북구 관내 서점 (교과·학습 관련 서적 제외)
영화 · 공연	• 영화관·대학로 공연, 성북문화재단(아리랑시네센터)
진로 · 직업	• 교육, 요리, 미술, 커리어코칭, 대학교 산학협력
문예체	• 성북구도시관리공단(스포츠센터, 배드민턴장, 헬스장, 체육관), 동 주민센터, 불링장, 복싱집, 요가원, 음반, 문화센터, 보드카페
기타	•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공방, 공예, 도예, 목공, 조경

자료 : 성북구(2018), 2018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계획

3) 사업관리

- 성북구는 수혜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취지를 고려한 사용처 확대를 추진함
- 카드 잔액과 사용처 추가에 따른 실시간 내역 알림 서비스를 추가하고 관외 주소지로 등록된 관내 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며 사용자 의견 수렴 활성화 및 사용처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함

4) 사업성과

- 2017 사업운영 결과보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의 2017년 운영 결과 교부인원은 총 3,289명으로 관내 중학교 3,445명 기준 95% 발급되었고 발급총액은 328,900천원으로 이중 사용 금액이 274,390천원(83%) 미사용금액이 54,233천원(17%)으로 타 지원사업에 비해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성북구, 2017)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81%, 보통이 15%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며 사용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2%, 보통이 22%로 조사되어 사업 만족도에 비해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만족 결과가 도출됨
- 불만족 사유는 사용처가 다양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나 학생들이 원하는 추가 사용처가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이기 때문에 사업취지를 고려한 추가 사용처의 검토가 필요함
-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와 같지만 수혜층이 특정 학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연령에게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차이를 보임
- 특히 사용처에 학원·교습소가 포함되지 않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와 달리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의 학원·교습소가 사용처로 지정되어 있어 보다 교육적 측면의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사.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

1) 목적 및 개념

- 청소년이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세종시 관내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간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함

☐ 신청방법

-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은 해당 중학교에서 신청, 학교밖 청소년 및 전입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함

□ 사용처

-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단 문화·스포츠 관람은 사용금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며 서적, 사진관, 여행 등은 사용범위에서 제외됨

〈표 25〉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 주요 사용처

구 분	사용내용	사용한도
진로 · 직업체험	•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 · 체험, 직업체험관 등	제한 없음
문화체험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 체험 • ※ 서적, 사진관, 여행(숙박, 운송수단, 놀이공원, 휴양림 등) 제외	5만원 범위 내
스포츠 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자료 : 세종시 진로체험카드 누리집(<https://sj.youthcard.kr>)

3) 사업성과

- 청소년의 진로체험 및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확대를 통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하고 문화적 감성과 창의적 사고 향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시행 이후 사용처 부족으로 지원금액 소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세종특별시가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함에 따라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임

아. 서울시 강서구 꿈-IN 카드

1) 목적 및 개념

-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활동의 기회확대를 위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대상 학생 스스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 강서구 관내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함
- 연간 사업예산은 총 500,000천원(일반운영비 3,000/민간이전 497,000)임

□ 사용처

- 강서구 꿈-IN 카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진로체험과 관련된 교육, 활동 중심의 가맹점이 사용처로 지정되어 있음
- 성북구, 세종시 지원카드와 달리 문예체 분야 학원·교습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음

〈표 26〉 강서구 꿈-IN 카드 주요 사용처

구 분	사용내용
진로 · 직업체험	•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 · 체험, 직업체험관 등
문화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험
문예체 프로그램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예정), 문화 · 예술 · 체육 학원 및 교습소
특화 프로그램	•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예술가 등(예정)

자료 : 강서구 꿈-IN카드 누리집(<https://gs.purmee.kr>)

자.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1) 목적 및 개념

- 여수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진로·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 여수시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10만원 지원예정이나 2018년은 하반기 사업 시작으로 5만원 지원함

□ 사용처

〈표 27〉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주요 사용처

구 분	업 종
진로 · 직업체험	• 공예, 재활치료, 심리치료, 제빵 등
문예체 프로그램	• 실용음악학원, 뷰티 아카데미, 유도관, 바리스타 학원 등
문화체험	• 영화관, 서점, 문화센터 등

자료 :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누리집(<https://ys.purmee.kr>)

2. 국외 유사사례 분석

가. Bonus Cultura(이탈리아)



[그림 11] Bonus Cultura 앱 이미지

- Bonus Cultura는 2016년 이탈리아 렌지(Matteo Renzi) 총리가 발표한 정책으로 2016년 9월 만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500유로의 문화패스를 지원하여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방문, 도서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유럽 평균 이하인 이탈리아의 문화지출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기대됨
- 사업시행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2억 9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57만 5천여명(574,953명)의 이탈리아 청소년을 지원하였으며 컴퓨터, 스마트폰에 ‘18.app.it’ 앱을 다운 받아 등록 후 사용하는 형태임
- Bonus Cultura의 사용률 분석 결과 2016~2017년 동안 약 60만명의 청소년이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 행사, 도서 및 티켓 구입 등으로 1억 6300만 유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중 80%인 1억 3200만 유로가 도서(교과서 포함) 구입에 사용되었고 10%가 콘서트, 7% 이상이 영화 관람에 사용됨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지원보다 학교 교과서 구입 지원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발생함

- 또한 2018년까지는 음악, 영화, 극장 등 공연 관람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부터 사용처가 도서 구입(전자책 포함)으로만 제한되어 당초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⁶⁾



[그림 12] 17.09~18.06월까지 Bonus Cultura 분야별 지출액

나. Le Pass Culture(프랑스)

- 2017년 1월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Le Pass Culture는 이탈리아의 Bonus Cultura와 같이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500유로를 지원하는 정책임
- 토마스 졸리(Thomas Jolly) 감독, 압둘 알 말리크(Abd Al Malik)감독을 비롯한 40여명의 예술가와 문화 기관 관리자, 상원위원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Le Pass Culture의 사용 분야를 논의함
- 2018년 3월 Françoise Nyssen 문화부 장관이 Le Pass Culture의 시행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9월부터 5개 지역(Bas-Rhin, Finistère, Guyana, Hérault 및 Seine-Saint-Denis)에서 12,000명 대상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친 확장 운영 예정임

6) <https://www.ilpost.it/2018/11/26/bonus-cultura-confermato>



[그림 13] Le Pass Culture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 2019년 1분기부터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수혜대상은 약 80만명, 예산은 약 5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주정부 20%, 민간 80%)
- Le Pass Culture는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에 500유로를 부여하여 공연, 영화관, 박물관, 유적지 관람, 음악 레슨, 서적 구매, 디지털 구독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임
 -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주변의 문화예술 정보 제공하며 주요 사용처로 문화행사 분야는 극장, 오페라, 콘서트, 박물관, 영화관, 스포츠는 축구경기, BMX가 가능함
 - 문화상품 구입은 도서, 비디오, 게임, 온라인 콘텐츠 등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 콘텐츠의 구매 비용은 200유로로 제한됨, 이는 이탈리아 Bonus Cultura의 도서 구매에 편중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 예술강좌 분야는 음악, 댄스, 그림, 요리 등이 가능하며 문화관광 분야는 놀이공원, 유적지 관람, 공예 등이 포함됨
- Le Pass Culture 자문회의에서 사용분야를 수혜대상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인지 소비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정할 것인지 논의한 것과 같이 프랑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 역시 사용처 편중 문제 개선이 주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음

다. Kultur Pass(독일)



[그림 14] Kultur Pass 이미지

- 독일의 도시 에센(Essen)은 2010년 2월부터 아동을 위한 문화패스 ‘Kultur Pass fuer Kinder’사업을 시행함
- Kultur Pass는 에센시에서 추진한 문화중심도시 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이 예술과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개인의 취향을 개발하고 문화를 통해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에센시에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시각 예술, 미디어, 역사 및 과학, 문학, 음악, 연극 및 무용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문화기관 방문을 위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용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첫 발급 이후 6년간 8번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이 관람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교사가 적정성을 판단하여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됨
- Kultur Pass는 초등학교 1학년에 발급 후 6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이 모든 초등학교 학생으로 확장되며,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아동의 문화예술관람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정명주 외, 2010)

라. A Night Less Ordinary(영국)



[그림 15] A Night Less Ordinary 공식 이미지

- A Night Less Ordinary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에서 26세 미만 청소년·청년에게 무료 공연티켓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기부터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등 공연 관람의 문화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2.39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며 시행규모, 대상연령, 관람횟수 등은 공연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참가희망 공연장은 예술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특별 지원금 형태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형태임
-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청년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해당 지역의 공연을 예약하고 공연장에서 티켓 수령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관람함
-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사업 시행 결과 잉글랜드 전역의 200개가 넘는 극장, 예술 센터 및 마을 회관이 참여하였으며 총 8만명의 청소년·청년이 인근 극장을 40만번 방문하여 1인 평균 약 5번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Arts Council England and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12)

3. 사례분석 결과

가. 선별적 지원에 따른 전 국민 문화향유 지원의 한계 극복 필요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정책은 소득수준을 반영한 선별적 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19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이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점차 보편적 지원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Bonus Cultura와 프랑스의 Le Pass Culture와 같은 해외 청소년 문화패스 정책 역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기준으로 수혜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모든 아동의 문화예술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방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이 필요함

나. 연령 특화 지원 정책의 필요

- 타 문화예술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과 중복되지 않은 정책을 통해 정책 차별성을 높이며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연령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이 필요함
 - 일반적 지원 정책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등으로 넓은 범위의 연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혜대상 내에서도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지자체 아동청소년 진로체험카드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특정 연령의 지원을 통해 정책 상징성을 높이고 해당 연령에 특화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연령을 지원하는 정책 구축을 통해 정책 차별성 및 상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문화예술활동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교육, 양육, 기초생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역시 기초생활 지원과 마찬가지로 아동 모두가 향유해야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국외의 경우 독일은 아동을 위한 문화패스 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계한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을 사실상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청소년에게 무료 공연 티켓을 제공하여 어린시절부터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지원이 부족함
- 또한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단체로 경험할 기회가 많고 중 학교 이상의 경우 지자체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정책 등이 시행 중이지만 초등학교생은 상대적으로 모든 아동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낮음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보호자의 결정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라. 사용처의 편중 및 부족 문제

-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영화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에 사용 분야가 편중되어 있으며 지자체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경우 사용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연 이용금액이 8만원이기 때문에 관람료가 비싼 오페라, 뮤지컬 등 보다 1만원대로 관람이 가능한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에 편중될 수 밖에 없음
- 이탈리아의 Bonus Cultura의 2016~2017년 사용 분석 결과 도서 구입이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사용처의 편중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문제로 사업 시행시 사용처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
-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소비를 목표로 한다면 1인당 지원 금액을 통합문화이용권보다 증액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서 구입, 영화 관람으로 사용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의견조사

1.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방식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수혜대상의 문화예술활동 현황, 지원 연령 및 금액에 대한 의견, 선호 사용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향후 수혜대상이 될 5~7세(연나이)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첫걸음 문화카드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수혜대상의 의견을 분석하여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업 타당성 및 주요 시행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설문지는 6개 분야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조사원에 의한 배포조사 방식으로 조사 진행함
- 조사지역은 전국이며 조사대상은 5~7세(연나이) 자녀의 부모 1,000명으로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수에 비례한 표본도출을 통해 지역별 표본수를 산정함

〈표 28〉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실제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수렴으로 효과적 사업방안 구축
조사기간	• 2018. 12. 10 ~ 2019. 01. 11
조사대상	• 5~7세(연나이) 자녀를 둔 부모(예비수혜대상)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배포조사
조사내용	•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액, 지원형태, 사용처, 문화예술활동 현황, 정책 타당성 등

2) 모집단

□ 조사지역 집락화

- 지역별 사회경제생활여건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지리적 접근성, 인구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성질의 지역을 집락화 함

〈표 29〉 설문조사 지역 집락화

시도	도시규모	집락수	집락	시군구
서울	대도시	4	서울-대-1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대-2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서울-대-3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대-4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	대도시	2	부산-대-1	동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대-2	중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	대도시	2	대구-대-1	수성구, 달서구
			대구-대-2	서구,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성군
인천	대도시	2	인천-대-1	부평구, 계양구
			인천-대-2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대도시	2	광주-대-1	북구, 동구
			광주-대-2	광산구, 서구, 남구
대전	대도시	2	대전-대-1	서구, 중구
			대전-대-2	유성구, 대덕구, 동구
울산	대도시	2	울산-대-1	남구, 동구
			울산-대-2	중구, 북구, 울주군
세종	중소도시	1	세종-중-1	세종시
경기	대도시	2	경기-대-1	수원시
			경기-대-2	성남시
	중소도시	5	경기-중-1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경기-중-2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경기-중-3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경기-중-4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경기-중-5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군지역	1	경기-군-1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중소도시	3	강원-중-1	춘천시, 원주시
			강원-중-2	강릉시, 속초시
			강원-중-3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군지역	2	강원-군-1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양양군
			강원-군-2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북	중소도시	2	충북-중-1	청주시
			충북-중-2	충주시, 제천시
	군지역	2	충북-군-1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군-2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원군

시도	도시규모	집락수	집락	시군구
충남	중소도시	3	충남-중-1	아산시, 천안시
			충남-중-2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충남-중-3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군지역	3	충남-군-1	연기군, 금산군
			충남-군-2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남-군-3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중소도시	3	전북-중-1	군산시, 익산시
			전북-중-2	남원시, 정읍시
			전북-중-3	전주시, 김제시
	군지역	2	전북-군-1	부안군, 고창군
			전북-군-2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중소도시	2	전남-중-1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전남-중-2	나주시, 목포시
	군지역	2	전남-군-1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무안군
			전남-군-2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경북	중소도시	4	경북-중-1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북-중-2	안동시, 영주시
			경북-중-3	영천시, 경산시
			경북-중-4	포항시, 경주시
	군지역	2	경북-군-1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경북-군-2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울릉군
경남	중소도시	4	경남-중-1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경남-중-2	통영시, 거제시
			경남-중-3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경남-중-4	진주시, 사천시
	군지역	2	경남-군-1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경남-군-2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중소도시	2	제주-중-1	제주시
			제주-중-2	서귀포시

자료 : 보건복지부(20159), 2015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참고

□ 표본배분(집락별 제공군 비례배분)

- 조사대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수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수를 비례배분하고, 집락별로 유아수를 기준으로 제공군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기관수는 1개 기관당 유효표본수 10명 내외를 가정하여 조사대상 기관수 산정
- 비례배분법과는 다르게 집락별로 최소 표본 확보가 가능함

〈표 30〉 설문조사 집락별 제공근 표본배분

시도	집락	모집단					표본(비례배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수	학급수	유아수	기관수	유아수	기관수	유아수	기관수	유아수
전 체		8,797	21,136	462,015	39,183	335,484	87	579	73	421
서울	서울-대-1	269	778	17,169	1,769	15,250	2	16	2	12
	서울-대-2	172	523	11,335	1,138	12,096	2	13	2	11
	서울-대-3	153	519	12,042	1,102	11,445	2	13	2	11
	서울-대-4	263	846	18,885	2,003	20,109	2	17	2	14
부산	부산-대-1	176	640	15,061	864	5,804	2	15	1	8
	부산-대-2	220	679	16,207	1,031	9,096	2	16	1	10
대구	대구-대-1	132	442	10,298	532	3,222	2	12	1	6
	대구-대-2	229	616	13,960	872	5,564	2	14	1	7
인천	인천-대-1	104	311	6,763	623	5,495	1	10	1	7
	인천-대-2	312	1,053	24,326	1,512	12,385	2	19	2	11
광주	광주-대-1	114	226	4,529	374	3,346	1	8	1	6
	광주-대-2	187	507	11,143	823	5,951	2	13	1	8
대전	대전-대-1	123	383	8,192	655	3,473	2	11	1	6
	대전-대-2	142	418	8,880	755	4,433	2	12	1	7
울산	울산-대-1	71	207	5,069	379	2,895	1	9	1	5
	울산-대-2	124	345	7,884	491	4,050	2	11	1	6
세종	세종-중-1	58	243	4,942	337	3,239	1	9	1	6
경기	경기-대-1	194	645	14,493	1,134	6,636	2	15	1	8
	경기-대-2	127	351	7,327	658	5,926	1	10	1	8
	경기-중-1	454	1,279	27,219	2,194	16,135	2	20	2	13
	경기-중-2	239	729	15,558	1,505	12,649	2	15	2	11
	경기-중-3	363	1,133	24,500	1,694	12,027	2	19	2	11
	경기-중-4	301	856	18,086	1,557	15,429	2	16	2	12
	경기-중-5	500	1,377	29,300	2,802	23,772	3	21	2	16
	경기-군-1	53	44	823	127	1,744	1	4	1	4
강원	강원-중-1	116	274	5,896	546	4,371	1	9	1	7
	강원-중-2	47	79	1,681	194	2,230	1	5	1	5
	강원-중-3	46	80	1,644	134	1,347	1	5	1	4
	강원-군-1	76	45	784	104	1,227	1	3	1	4
	강원-군-2	85	49	896	110	1,113	1	4	1	3
충북	충북-중-1	133	349	7,104	729	8,651	1	10	1	9
	충북-중-2	80	125	2,574	203	2,288	1	6	1	5
	충북-군-1	73	70	1,376	177	2,668	1	5	1	5
	충북-군-2	45	31	592	49	572	1	3	1	2
충남	충남-중-1	174	509	11,564	1,126	8,730	2	13	1	9
	충남-중-2	75	72	1,518	208	2,153	1	5	1	5
	충남-중-3	111	149	3,123	365	4,530	1	7	1	7
	충남-군-1	16	8	167	33	345	1	2	1	2
	충남-군-2	57	23	425	66	761	1	3	1	3
	충남-군-3	72	66	1,364	119	1,468	1	5	1	4

시도	집락	모집단					표본(비례배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수	학급수	유아수	기관수	유아수	기관수	유아수	기관수	유아수
전북	전북-중-1	148	246	4,806	442	4,163	1	9	1	6
	전북-중-2	67	49	877	139	1,489	1	4	1	4
	전북-중-3	162	363	7,013	643	5,114	1	10	1	7
	전북-군-1	46	21	383	51	581	1	2	1	2
	전북-군-2	94	71	1,327	123	1,368	1	4	1	4
전남	전남-중-1	163	309	5,725	536	6,620	1	9	1	8
	전남-중-2	80	157	3,176	296	3,569	1	7	1	6
	전남-군-1	135	85	1,545	205	2,350	1	5	1	5
	전남-군-2	137	69	1,225	169	2,421	1	4	1	5
경북	경북-중-1	195	399	8,790	679	2,824	2	11	1	5
	경북-중-2	66	100	2,261	149	1,511	1	6	1	4
	경북-중-3	82	157	3,333	250	1,938	1	7	1	4
	경북-중-4	174	298	6,607	626	4,191	1	10	1	7
	경북-군-1	100	78	1,644	218	2,157	1	5	1	5
	경북-군-2	64	26	470	63	902	1	3	1	3
경남	경남-중-1	181	515	12,318	1,057	5,832	2	14	1	8
	경남-중-2	87	212	4,779	375	3,112	1	8	1	6
	경남-중-3	193	474	11,007	952	6,337	2	13	1	8
	경남-중-4	70	152	3,460	387	4,451	1	7	1	7
	경남-군-1	84	59	1,189	127	1,437	1	4	1	4
	경남-군-2	65	31	592	89	1,229	1	3	1	4
제주	제주-중-1	74	165	4,275	391	5,385	1	8	1	7
	제주-중-2	44	21	514	122	1,878	1	3	1	4

자료 : 유치원 알리미(2018년 2차),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2018년 12월) 기준

□ 표본추출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리스트를 기준으로 집락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함
- 설문 협조요청 거절 시 동일 집락의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을 재 실시함

• 유아(부모) 선정

-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7세 유아(부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3) 조사 과정

□ 사전 컨택

- 조사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사전에 컨택하여 조사방법, 방문일시 조율
- 방문, 우편 등 조사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
- 조사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요청 시 협조요청 공문 발송

□ 본 조사 진행

- 우편 조사
 - 조사방법이 우편인 경우 공문, 설문지,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서류봉투에 넣고 동봉하여 발송
- 방문 조사
 -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조사취지 및 설문지 작성 방법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설문지를 바로 작성하여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배포 후 다음 방문일시 약속 후 재방문

4) 설문지 회수

- 회수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문항별로 응답 여부를 확인하여 무응답을 최소화함

5) 조사 일정

구 분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1월 1주		1월 2주	
설문지 확정												
조사원 선발 및 교육												
본조사 진행 및 에디팅												
코딩, 데이터 처리												
결과분석												

나. 조사내용

1) 주제별 세부 도출 내용

(1)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소비 및 문화예술 교육 현황

도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실제 가정에서 소비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 비용, 횟수, 종류 등을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소비와 교육 현황 분석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사용처 지정 기준으로 활용 •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경험 필요성을 통해 사업 시행의 정책적 타당성 확보
문항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혜자가 아동과 함께 소비하고 있는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 2. 수혜자가 아동과 함께 소비하고 있는 연간 문화예술활동 비용 3. 수혜자가 아동과 함께 소비하고 있는 연간 문화예술활동 부대비용 4. 아동과의 문화예술활동 시 동반하는 보호자 5. 수혜자가 아동과 함께 소비해 온 주요 문화예술활동의 종류 6.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종류 7.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아동 연령 8.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경험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9.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창의성 향상, 정서적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 10. 수혜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 장소 11. 수혜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 횟수 12. 수혜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 비용 13. 아동과의 문화예술 교육 시 동반하는 보호자 14. 아동이 참여해 온 주요 문화예술 교육의 종류 15.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종류 16. 문화예술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아동 연령 17. 아동기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18. 아동기 문화예술 교육이 창의성 향상, 정서적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

(2)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대상

도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입학생(8세) 선정의 적정성 및 초등학교 전학년 또는 어린이·청소년과 같은 범위 구성이 아닌 특정 연령 지원에 따른 반응 분석 사업시행 시 소득수준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수혜자의 의견 수렴 보편적 지원 혹은 선별적 지원에 대한 수혜자 의견 수렴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 연령 지정 근거 기준으로 활용 보편적 지급에 대한 정책 근거 마련 지원 기준 문제 제기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문항구성	<p>19. 사업 수혜자의 적정 연령</p> <p>20. 사업시행 시 소득수준 미반영 타당성 여부</p> <p>20-1.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동의 시 그 이유</p> <p>20-2.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 동의 시 그 이유</p> <p>20-3. 선별적 지원 동의 시 지급 기준</p>

(3)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도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10만원+학부모(보호자) 10만원의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수혜자 의견 수렴 지원 방식(체크·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대한 수혜자 의견 수렴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사업 지원 금액 산출 기준으로 활용 수혜자 편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 구축
문항구성	<p>21. 학생 10만원+학부모(보호자) 10만원 지원 금액의 적정성</p> <p>22. 통합 20만원 시 문화예술활동으로 전액 소비 가능한지 여부</p> <p>22-1. 전액 소비가 가능한 이유</p> <p>22-2. 전액 소비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p> <p>23.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사용 포인트 등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p>

(4)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

도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분야 사용처 범위에 대한 수혜자 의견수렴 필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와 같은 기존 문화바우처 정책의 주요 사용처 범위를 반영하여 공감대 형성 및 사용 활성화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용처 보기 문항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문화예술 분야 사용처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문화카드 사용처(진로·체험 프로그램, 학원·교습소 등)를 기준으로 제시 문화예술활동의 형태는 관람, 체험, 구입으로 구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용처 발굴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활동 소비 활성화 유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처 분야 및 세부 분류 지정 근거로 활용
문항구성	24. 문화예술 분야 사용처 범위

(5)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

도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의 효과 및 지속성에 대한 의견 수렴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중장기 시행방향에 반영
문항구성	25-1. 사업시행에 따른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여부 25-2.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 여부 25-3. 사업의 지속성 여부 26. 기타 의견

다. 주요결과

1) 응답자 일반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0	100.0
성별	남성	92	9.1
	여성	903	89.4
	무응답	15	1.5
연령	10~20대	25	2.5
	30대	565	55.9
	40대	383	37.9
	50대	29	2.9
	60대 이상	3	0.3
	무응답	5	0.5
직업	전문직	267	26.4
	사무직	179	17.7
	생산/기술직	27	2.7
	판매/서비스직	39	3.9
	자영업	64	6.3
	주부	360	35.6
	학생	1	0.1
	무직	5	0.5
	기타	47	4.7
가계 월 소득수준	무응답	21	2.1
	200만원 이하	97	9.6
	200~400만원 미만	409	40.5
	400~700만원 미만	349	34.6
	700~900만원 미만	66	6.5
	900만원 이상	24	2.4
자녀 수	무응답	65	6.4
	1명	356	35.2
	2명	496	49.1
시도	3명 이상	158	15.6
	서울	107	10.6
	부산	49	4.9
	대구	39	3.9
	인천	47	4.7
	광주	37	3.7
	대전	36	3.6
	울산	31	3.1
	세종	15	1.5
	경기	203	20.1
	강원	49	4.9
	충북	45	4.5
	충남	65	6.4
	전북	57	5.6
	전남	51	5.0
	경북	70	6.9
	경남	86	8.5
	제주	23	2.3

2) 항목별 응답

(1)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현황

- 조사대상의 가정에서 아동 1인의 연간 문화예술활동은 ‘1~5회’가 45.7%, ‘5~10회’가 31.8%로 나타남에 따라 10회 이하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31〉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1인 기준)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횟수

구 분	비율(%)	그래프
0회	1.8	
1~5회	45.7	
5~10회	31.8	
10~15회	13.3	
15회 이상	7.1	
무응답	0.3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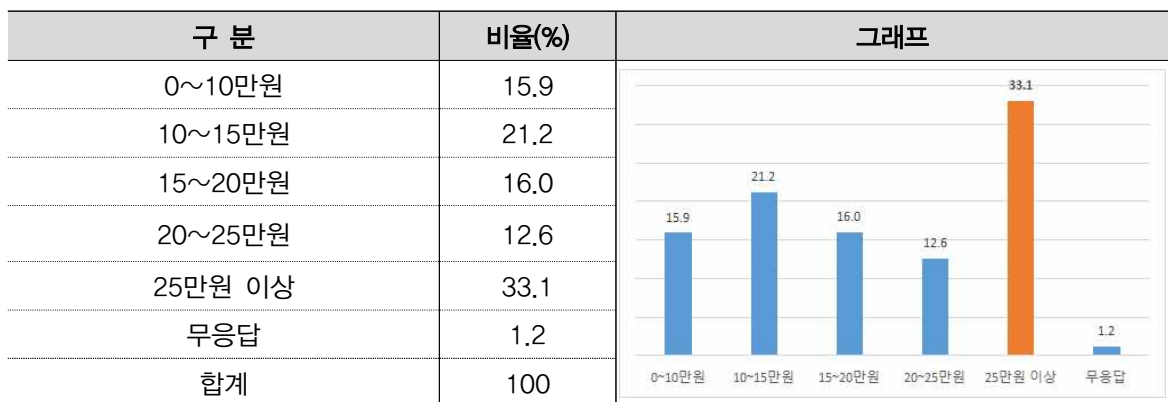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가정에서 아동 1인의 연간 문화예술활동비용은 ‘10~15만원’이 28.2%, ‘0~10만원’이 20.8%, ‘25만원 이상’이 20.6%로 나타남
- 수혜대상의 평소 문화예술 활동비용과 첫걸음 문화카드 10만원(1인 기준)은 유사한 비용으로 적정한 지원금액으로 판단됨

〈표 32〉 가정에서 지출하는 아동(1인 기준)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비용

구 분	비율(%)	그래프
0~10만원	20.8	
10~15만원	28.2	
15~20만원	18.0	
20~25만원	11.4	
25만원 이상	20.6	
무응답	1.0	
합계	100	

- 문화예술활동 부대비용이란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부가적으로 소비되는 교통비, 식비 등을 의미함
- 조사대상의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문화예술활동 시 소요되는 연간 총 부대비용은 ‘25만원 이상’이 33.1%, ‘10~15만원’이 21.2%로 나타남
- 가정에서 아동 1인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비용으로 10~15만원이 1위로 도출된 것과 비교하면 문화예술활동비뿐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됨

〈표 33〉 가정에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부대비용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시 동반하는 보호자는 ‘부모’가 89.9%, ‘교사’가 4.6%, ‘조부모’가 2.0%로 나타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동행하는 보호자는 대부분 부모이나 교사와 조부모도 일부 응답을 차지함에 따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특히 조부모와 동행하는 아동의 경우를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함

〈표 34〉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동행하는 보호자



- 평소 아동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 종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참여(문화센터, 테마파크 등)’가 31.7%, ‘영화 관람’이 30.4%,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이 19.6%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정의 아동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 형태는 체험, 관람 등의 ‘활동’ 형태가 대부분으로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상대적으로 관람 비용이 높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영화 관람이 전체의 60%를 넘게 차지함
- 국민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국민 문화예술활동 중 1순위가 영화 관람이고 통합문화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도 영화 관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이 영화 관람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시행 시 사용처 비중이 영화 관람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용처 및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표 35〉 평소 아동이 즐기는 주요 문화예술활동

구 분	비율(%)	그래프
뮤지컬·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	19.6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17.3	
영화 관람	30.4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31.7	
기타	0.6	
없음/무응답	0.4	
합계	100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중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종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39.7%, ‘영화 관람’이 29.7%,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이 20.5%로 나타나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종류의 응답 비율과 아동의 실 선호도 응답 비율은 유사하게 도출됨

〈표 36〉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구 분	비율(%)	그래프
뮤지컬·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	20.5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8.7	
영화 관람	29.7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참여(문화센터, 테마파크 등)	39.7	
기타	0.7	
없음/무응답	0.7	
합계	100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적정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5~7세)’가 43.5%, 초등학교 저학년(8~10세)이 27.9%, ‘기타’가 13.2%, ‘초등학교 입학생(8세)’이 11.3%로 나타남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조사대상이 첫걸음 문화카드의 예비수혜대상인 5~7세 아동의 학부모임을 고려하면 조사대상 자녀의 현재 연령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기타 항목 응답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저학년(8~10세)과 초등학교 입학생(8세)의 응답률이 그 다음이며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에 대한 응답은 3.4%로 매우 낮게 나옴에 따라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표 37〉 아동에게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한 적정 연령

구 분	비율(%)	그래프
초등학교 입학 전(5~7세)	43.5	
초등학교 입학생(8세)	11.3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27.9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3.4	
기타	13.2	
무응답	0.7	
합계	100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가 44.4%, ‘필요하다’가 38.8%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리커트 척도는 4.26/5점임
-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조사는 첫걸음 문화카드의 주요 시행방안 도출을 위해 조사대상을 사업 예비수혜대상으로 한정했기므로 수혜대상이 없는 가정의 반응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표 38〉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구 분	비율(%)	그래프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필요하지 않다	2.3	
보통이다	13.0	
필요하다	38.8	
매우 필요하다	44.4	
무응답	0.4	
합계	100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창의적 사고 개발 및 감수성 증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60.3%, ‘그렇다’ 34.3%로 응답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리커트 척도는 4.56/5점임
- 조사결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첫걸음 문화카드와 같은 아동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39〉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창의적 사고 및 감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율(%)	그래프
전혀 그렇지 않다	0.2	
그렇지 않다	0.3	
보통이다	4.7	
그렇다	34.3	
매우 그렇다	60.3	
무응답	0.2	
합계	100	

-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장소에 대한 응답은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26.9%, ‘문화센터(백화점, 마트)’ 24.3%, ‘학교 방과 후 활동’이 19.3%로 나타남
- 조사대상의 아동이 미취학 아동인 5~7세임에 따라 아직 학원, 교습소보다는 체험교육 위주의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40〉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주요 장소

구 분	비율(%)	그래프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26.9	
학교 방과 후 활동	19.3	
학원, 교습소	17.4	
문화센터(백화점, 마트)	24.3	
기타	7.2	
없음, 무응답	4.9	
합계	100	

- 아동의 한 달간 문화예술교육 횟수는 ‘1~5회’ 69.8%, ‘5~10회’ 12.2%, ‘15회 이상’이 6.7%로 나타남
- 월간 1~5회는 주당 1회로 고려한다면 많은 횟수는 아니나 조사대상의 아동이(5~7세 아동)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미 기본 활동 및 특별 활동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 미취학 아동인 관계로 교육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표 41〉 아동의 월간 문화예술교육 횟수

구 분	비율(%)	그래프
0회	6.2	
1~5회	69.8	
5~10회	12.2	
10~15회	3.3	
15회 이상	6.7	
무응답	1.8	
합계	100	

- 가정에서 한 달에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0~10만원’ 45.4%, ‘10~15만원’ 27.9%, ‘15~20만원’ 10.0%로 나타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로 문화예술 분야 학원·교습소를 허용하는 경우 1인 연간 10만원의 지원비는 한 달 교육비 지출로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 사용처 지정에 있어 학원·교습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 아동의 월간 문화예술교육 비용

구 분	비율(%)	그래프
0~10만원	45.4	
10~15만원	27.9	
15~20만원	10.0	
20~25만원	6.9	
25만원 이상	8.0	
무응답	1.8	
합계	100	

-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시 동반하는 보호자에 대한 응답은 ‘부모’ 72.7%, ‘교사’ 10.3%, ‘없음’이 8.6%로 나타남

〈표 43〉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에 동반하는 보호자

구 분	비율(%)	그래프
없음	8.6	
부모	72.7	
조부모	2.7	
친인척	0.8	
교사	10.3	
전문인솔자 또는 에듀케이터	2.0	
기타, 무응답	2.9	
합계	100	

- 아동이 평소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종류에 대한 응답은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이 30.9%, ‘미술, 서예 등’ 21.1%, ‘음악(악기, 성악, 판소리 등)’ 17.4%로 나타남

〈표 44〉 아동이 참여하는 주요 문화예술교육

구 분	비율(%)	그래프
음악(악기, 성악, 판소리 등)	17.4	
미술, 서예 등	21.1	
무용(발레, 한국무용, 방송댄스 등)	12.1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	30.9	
공예, 건축, 요리 등	11.7	
기타	4.8	
없음, 무응답	2.0	
합계	100	

-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종류에 대한 응답은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이 34.6%, ‘미술, 서예 등’ 19.0%, ‘음악(악기, 성악, 판소리 등)’ 15.2%로 나타남

〈표 45〉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구 분	비율(%)	그래프
음악(악기, 성악, 판소리 등)	15.2	
미술, 서예 등	19.0	
무용(발레, 한국무용, 방송댄스 등)	12.4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	34.6	
공예, 건축, 요리 등	12.1	
기타	4.4	
없음, 무응답	2.3	
합계	100	

- 아동에게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적정 연령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교 입학 전(5~7세)’ 42.7%,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28.2%, ‘초등학교 입학생(6세)’ 13.1%로 나타남

〈표 46〉 아동에게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연령

구 분	비율(%)	그래프
초등학교 입학 전(5~7세)	42.7	
초등학교 입학생(8세)	13.1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28.2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2.8	
기타	12.0	
무응답	1.2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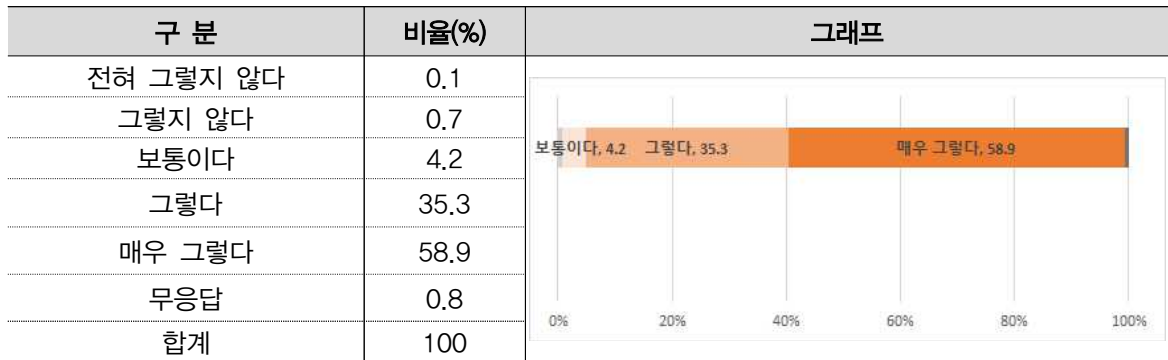
-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48.3%, ‘필요하다’ 37.6%로 나타났으며 리커트 척도는 4.36/5점임

〈표 47〉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구 분	비율(%)	그래프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필요하지 않다	1.8	
보통이다	10.4	
필요하다	37.6	
매우 필요하다	48.3	
무응답	0.9	
합계	100	

-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적 사고 개발 및 감수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58.9%, '그렇다' 35.3%로 나타났으며 리커트 척도는 4.57/5점임

〈표 48〉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적 사고 및 감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2)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시행 방안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적정 지원 연령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교 입학 전(5~7세)'가 43.8%,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27.4%, '초등학교 입학생(8세)' 16.4%로 나타남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조사대상이 첫걸음 문화카드의 예비수혜대상인 5~7세 아동의 학부모임을 고려하면 조사대상 자녀의 현재 연령 기준으로 응답한 가능성도 고려가 필요함
- 초등학교 저학년(8~10세)과 초등학교 입학생(8세)의 응답률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에 대한 응답은 2.9%로 매우 낮게 나옴에 따라 조사대상은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연령의 범위를 초등학교 입학 전~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됨

〈표 49〉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적정 지원 연령



- 소득수준 반영 여부에 대한 응답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62.5%,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한다’ 37.2%로 나타남
-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지원, 즉 보편적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방식은 보편적 지원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50〉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



-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지원, 즉 보편적 지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 72.6%, ‘선별 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 방지’가 14.3%, ‘대상자 선별 시 행정비용 발생’과 ‘타 수당제도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 5.5%로 동일하게 나타남
- 이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누려야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활동의 선별적 지원의 경우 한 학급 내에서 아동 간 문화예술활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음

〈표 51〉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



- 소득수준을 반영한 지원, 즉 선별적 지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과다한 예산사용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42.3%, ‘고소득층은 지원 없이 문화예술활동 가능’ 39.6%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 우선’이 14.2%로 나타남

〈표 52〉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하는 이유

구 분	비율(%)	그래프
고소득층은 지원 없이 문화예술활동 가능	39.6	
과다한 예산사용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42.3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 우선	14.2	
기타	0.5	
무응답	3.5	
합계	100.1	

-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 적정 지원 방식은 ‘모두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46.8%,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동일금액 지원’이 29.8%로 나타남

〈표 53〉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 지원 방식

구 분	비율(%)	그래프
저소득층만 지원	19.7	
모두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46.8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동일금액 지원	29.8	
기타	1.9	
무응답	1.9	
합계	100.1	

- 아동과 부모 2인에 대한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간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응답은 ‘20만원’이 42.2%로 절반 가까운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30만원’ 20.5%, ‘10만원’과 ‘15만원’이 각각 13.6%, 13.2%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조사대상은 첫걸음 문화카드 예정 지원 금액인 아동+부모 20만원의 금액 규모로 2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표 54〉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간 적정 지원 금액(2인 기준)

구 분	비율(%)	그래프
10만원	13.6	
15만원	13.2	
20만원	42.2	
25만원	9.8	
30만원	20.5	
무응답	0.8	
합계	100.1	

- 첫걸음 문화카드로 연간 20만원의 금액 지원 시 1년동안 전액 소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가능하다’가 91.9%, ‘가능하지 않다’가 7.4%로 나타남
-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아동과 함께 1년 동안 문화예술활동으로 20만원을 소진할 수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20만원의 지원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의 격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지원비용 소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5〉 연간 20만원 지원 시 전액 소진 가능 여부

구 분	비율(%)	그래프
가능하다	91.9	
가능하지 않다	7.4	
무응답	0.7	
합계	100	

- 연간 20만원 비용 지원 시 전액 소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 23.5%,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 15.7%, ‘관람료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 소비 예정’이 15.4%로 나타남
- 아동과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해본 조사대상은 20만원의 비용을 소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뮤지컬·오페라와 같은 고액의 공연 관람 시 짧은 기간 안에 소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56〉 전액 소진이 가능한 이유

구 분	비율(%)	그래프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	23.5	<table><caption>전액 소진이 가능한 이유 (그래프 데이터)</caption><thead><tr><th>구 분</th><th>비율(%)</th></tr></thead><tbody><tr><td>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td><td>23.5</td></tr><tr><td>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td><td>8.0</td></tr><tr><td>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아동의 높은 관심</td><td>14.0</td></tr><tr><td>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td><td>11.1</td></tr><tr><td>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다수 분포</td><td>1.9</td></tr><tr><td>고액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 소비</td><td>15.4</td></tr><tr><td>아동 문화예술활동 정보 공유 활성화</td><td>5.8</td></tr><tr><td>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td><td>15.7</td></tr><tr><td>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의 부족</td><td>3.5</td></tr><tr><td>기타</td><td>1.1</td></tr><tr><td>무응답</td><td>0.2</td></tr></tbody></table>	구 분	비율(%)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	23.5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	8.0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아동의 높은 관심	14.0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11.1	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다수 분포	1.9	고액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 소비	15.4	아동 문화예술활동 정보 공유 활성화	5.8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	15.7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의 부족	3.5	기타	1.1	무응답	0.2
구 분	비율(%)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	23.5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	8.0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아동의 높은 관심	14.0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11.1																									
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다수 분포	1.9																									
고액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 소비	15.4																									
아동 문화예술활동 정보 공유 활성화	5.8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	15.7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의 부족	3.5																									
기타	1.1																									
무응답	0.2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	8.0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아동의 높은 관심	14.0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11.1																									
거주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다수 분포	1.9																									
관람료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 소비	15.4																									
아동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5.8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	15.7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 부족	3.5																									
기타	1.1																									
무응답	0.2																									
합계	100.2																									

- 연간 20만원 비용 지원 시 전액 소진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거주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부족’이 22.7%,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17.3%, ‘무료 또는 저렴한 시설이 많아서’가 16.0%로 나타남
- 거주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부족이 응답률 1위로 도출됨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시행 시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문화소외지역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표 57〉 전액 소진이 불가능한 이유

구 분	비율(%)	그래프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8.0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	2.7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아동의 관심 부족	4.0	
시간적 여유가 없음	17.3	
거주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부족	22.7	
무료 또는 저렴한 시설이 많아서	16.0	
아동 문화예술활동 정보 부족	9.3	
문화예술활동보다 우선되는 활동이 많기 때문	5.3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만으로 충분	1.3	
기타	8.0	
무응답	5.3	
합계	99.9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형태에 대한 응답은 ‘포인트카드(체크·신용카드)’가 89.4%, ‘기타’가 3.4%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은 대부분 선불카드와 바우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
-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고운맘카드, 아이행복카드 등이 신용·체크카드임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 역시 20만원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신용·체크카드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8〉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형태

구 분	비율(%)	그래프
포인트카드(신용·체크카드)	89.4	
온라인 전용몰	3.3	
기타(선불카드, 바우처 등)	3.4	
무응답	3.9	
합계	100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에 대한 응답은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이 20.7%, ‘영화 관람’이 16.7%,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이 16.1%로 나타남
-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시 아동과 즐기는 문화예술활동 종류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나 영화 관람보다, 관람료가 비싸서 평소 관람하기 어려웠던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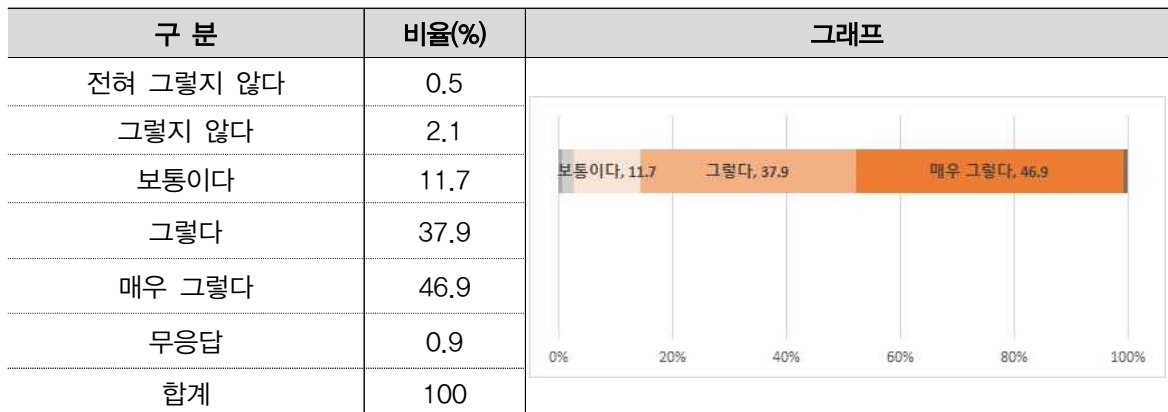
〈표 59〉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구 분	비율(%)	그래프
뮤지컬·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	20.7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16.1	
영화 관람	16.7	
문화예술 프로그램(문화센터 등)	11.2	
도서 구입	12.8	
음반·악기 구입	4.4	
문화상품 구입(공예품, 한지·한복 등)	2.8	
사진관	1.2	
문화예술분야 학원·교습소	9.9	
공예·공방	3.5	
기타	0.5	
무응답	0.2	
합계	100	

(3)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46.9%, ‘그렇다’ 37.9%로 나타났으며 리커트 척도 4.34/5점임

〈표 60〉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아동 문화예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45.5%, ‘그렇다’ 39.2%로 나타났으며 리커트 척도 4.33/5점임

〈표 61〉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에 지역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50.2%, ‘그렇다’ 34.7%로 나타났으며 리커트 척도 4.38/5점임

〈표 62〉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장기적 지속 필요성

구 분	비율(%)	그래프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2.0	
보통이다	11.0	
그렇다	34.7	
매우 그렇다	50.2	
무응답	1.2	
합계	100.1	

라. 설문결과 요약 및 분석

1) 주요 항목별 응답 1, 2위 종합

질문	응답률 1위	응답률 2위
연간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횟수	1~5회(45.7%)	5~10회(31.8%)
연간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비용	10~15만원(28.2%)	0~10만원(20.8%)
연간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부대비용	25만원 이상(33.0%)	10~15만원(21.2%)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종류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31.7%)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19.6%)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종류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39.7%)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29.7%)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한 적정 연령	초등학교 입학 전(43.5%)	초등학교 저학년(27.9%)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44.4%)	필요하다(38.8%)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창의성 및 감수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매우 그렇다(60.3%)	그렇다(34.3%)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연령	초등학교 입학 전(43.8%)	초등학교 저학년(27.4%)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62.5%)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37.2%)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간 적정 지원 금액(2인 기준)	20만원(42.2%)	30만원 이상(20.5%)
연간 20만원 지원 시(2인 기준) 전액 소진 가능 여부	가능하다(91.9%)	불가능하다(7.4%)
전액 소진이 가능한 이유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경험이 많아서(23.5%)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15.7%)
전액 소진이 불가능한 이유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 부족(22.7%)	시간적 여유가 없음(17.3%)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 방식	신용·체크카드(89.4%)	기타(선불식카드, 바우처/3.4%)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20.7%)	영화 관람(16.7%)

2)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도출내용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횟수 응답률 중 1~5회가 45.7%, 5~10회가 31.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평균 횟수는 6.6회로 도출됨에 따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매우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남
- 조사대상의 자녀가 보통 유치원에 다니는 5~7세이고 유치원 시기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 문화예술활동이 감소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수혜대상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현재 결과보다 활동 횟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문화예술활동 비용보다 활동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규모가 더 높은 금액으로 도출되어 부대비용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활동 증대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실비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이 평소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의 종류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뮤지컬·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순으로 나타나 첫걸음 문화카드 사용처 지정 시 문화예술 관람·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함
- 조사대상 대부분이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문화예술활동이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문화예술 활성화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도출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연령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 43.8%, 초등학교 1~3학년이 27.4%, 초등학교 1학년이 16.4%로 도출되어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저학년까지를 적정 연령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조사대상이 현재 5~7세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5~7세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는 62.5%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으로 응답함에 따라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지원형태는 보편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2인)이 42.2%, 30만원 이상이 20.5%로 나타나 기존 20만원의 지원금액(안)에 부합하며 전액 소진 가능성에 대해 91.9%가 가능하다고 하여 20만원의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액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 1위가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 부족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는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관람과 영화 관람,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 관람의 순으로 응답함에 따라 관람,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활동 분야를 사용처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2. 심층 그룹 인터뷰(FGI) 시행

가. FGI 시행 개요

1) FGI 시행 목적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과 관련한 객관식 설문조사는 지정된 응답 항목에 대한 결과값을 기반으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 항목 이외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세부 의견 검토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그룹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도출하지 못한 사업시행 관련 세부사항과 잠재수혜자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2) 시행 대상

- 조사대상은 5~7세 아동을 둔 부모 그룹과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구분하여 진행함
- 부모 그룹은 첫걸음 문화카드 설문조사지 배포 시 설문조사 참여 대상 중 신청을 받음으로써 사업 취지에 대한 사전 이해와 시행방안에 대한 자기 의사가 정립된 부모 위주로 구성함
 - 부모 그룹은 실제 사업수혜대상인 5~7세 자녀의 부모뿐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지난 자녀의 부모도 대상으로 선정,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실제 경험한 부모의 의견 수렴하고자 함
 - 부모 그룹으로부터는 예비수혜대상으로서 정책 취지에 맞는 지원 연령, 지원 방식, 주요 사용처 등에 대한 정밀한 의견을 수렴함
- 교사는 경력 10년차 이상으로 섭외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의 시기적 특징,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 현황 등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발송하여 진행함
 -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직접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 시 아동·부모에게 사업정보 전달 및 신청유도가 가능한 매개자의 역할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함

3) 시행 일정

- 사업 시행시 지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차이에 따라 신청률, 이용률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표 63〉 FGI 권역별 시행 일정

구 분	일시	장소	참석	주요 내용
서울·경기권	2019.01.15	서울	4인	첫걸음 문화카드 주요 시행 방안 (지원 연령, 금액, 방식, 사용처 등)
충청권	2019.01.17	오송	4인	
경상권	2019.02.01	창원	2인	
전라권	2019.02.15	전주	4인	
교사	2019.02.13	서울	1인	초등학교 1학년의 시기적 특징 및 학교 내 활동 현황 등

4) 응답자 일반사항

〈표 64〉 FGI 그룹별 응답자 일반사항

구분	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자녀(연나이)
부모	서울·경기권	A	여	30대	자영업	7살
		B			주부	5살
		C			사무직	5살, 8살
		D			전문직	4살, 7살
	충청권	A			주부	7살
		B			주부	5살, 7살, 10살
		C			주부	4살, 6살, 8살
		D			주부	4살, 6살, 9살
	경상권	A			주부	4살, 6살, 7살
		B			주부	8살
	전라권	A			주부	4살, 5살
		B			자영업	6살, 8살
		C			자영업	4살, 6살
		D			주부	5살, 9살
교사	서울	A	여	30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나. 대상별 도출 내용

- FGI 질문 내용은 공통질문과 함께 부모, 교사로 구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의함

〈표 65〉 공통 질문 내용

구분		문항 내용
문화예술 활동의 효과	문화예술활동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아동 연령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경험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 아동기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감수성·창의성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 인식	사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 사업 설명 후 타 지원정책과의 비교 의견(중복 또는 차별점)
사업 추진 방안	사업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연령의 적정성 •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지원의 적정성 • 보편적 지원 동의 시 그 이유 • 선별적 지원 동의 시 그 이유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10만원+학부모 10만원 지원금액의 적정성 • 지원금액 소비 의사 및 가능 여부 • 전액 소비가 가능 한 이유 • 전액 소비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
	발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신청 방식 •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포인트 등 발급방식 • 타 지원카드와의 연계희망 여부
	사용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사용처 분야 및 우선순위 • 문화예술활동 분야의 범위 규정(교육비 포함 여부)
사업 효과	사업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여부 • 사업의 지속성 여부

〈표 66〉 부모 그룹 대상 질문 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함께 소비하고 있는 연간 문화예술활동(교육) 횟수 • 아동과 함께 소비하고 있는 연간 문화예술활동(교육) 비용 • 아동과의 문화예술활동(교육) 시 동반자 • 아동과 함께 소비해 온 주요 문화예술활동(교육)의 종류 •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예술활동(교육)의 종류

〈표 67〉 교사 대상 질문 내용

구분	내용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학교 내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 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문화예술활동 현황(분야, 횟수 등)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적극적 문화예술활동이 학교생활(교우관계, 공동체 의식 등) 및 역량 강화(인성·창의성·감수성 및 문예체 활동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 시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 사업시행 시 교사가 아동·학부모에게 사업 안내 및 지원신청 유도 가능 여부



[그림 16] FGI 현장 사진(서울·경기권, 충청권)

다. FGI 주요 결과

1) 지원연령(초등학교 1학년)의 적정성

□ 아동부모의 여가시간이 가장 충분한 시기

- 유치원의 하원시간은 보통 4시~6시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거나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1시 40분정도에 하교하기 때문에 평일 아동의 여가시간은 유치원생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음
-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6교시 수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일 여가시간을 고려할 경우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1학년 학생이 가장 적정함
-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퇴근시간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새로운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변화의 시기

-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원을 통해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치원과 달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규칙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아동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 문화예술 활동 부족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단체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기회가 많으며 특별활동 신청 등으로 다양한 문예체 활동을 향유할 수 있음
-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단체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기회가 유치원에 비해 적으며 부모의 적극적 관심이 있어야만 아동이 문화예술활동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음

□ 자의적 문화예술활동으로 변화하는 시기

- 어린이집·유치원의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선호와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부모로부터 타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이 자의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 개인 선호에 따른 자의적 활동의 시기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면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초등학교 고학년에 비해 높은 문화예술 수용도

-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화적 순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문화예술의 자극을 고학년에 비해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초등학교 고학년은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주요 관심 분야가 이미 정립된 나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자극이 덜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공연 문화 정립의 시작이 되는 시기

-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등의 공연 입장이 보통 8세부터(초등학생 이상)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보다 규모가 크고 퀄리티 있는 공연 관람이 가능함
- 완전하게 공연에 집중하기 어려운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부터 공연 에티켓을 경험하게 한다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공연 문화를 갖출 수 있음

□ 지원 기간 확대 고려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도 적절

- 지원연령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상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1~3년 정도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 36개월~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도 적정함
- 초등학교 1학년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가정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보편적 지원의 적정성

☐ 정책취지 고려 시 보편적 지원이 적정

- 어린시절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취지라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적정함
- 선별적 지원 시 같은 학급의 아동 간에도 문화예술활동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함

☐ 소득수준 기준의 한계

-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활동을 할 여유는 없는 가정의 아동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여부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부모의 관심, 성향 등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함

☐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차등 지원

- 소득수준이 높아서 평소에도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가정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의 효용가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
-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3) 지원금액(초등학생 10만원+보호자 10만원)의 적정성

☐ 뮤지컬과 같은 고액의 공연 관람에 적정

- 영화는 이미 할인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관람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등도 입장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음
- 지원비용은 기존에 저렴하게 관람하던 분야가 아니라 뮤지컬과 같은 고액의 공연에 사용할 예정이고 아동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한다면 1년에 3번 정도는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함

☐ 개인 활동 성향에 따라 필요 금액 상이

-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1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보기 어려움
- 적정 비용의 기준은 개인의 활동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1인 10만원 기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함

☐ 아동 공연 금액 기준 부족

- 아동 뮤지컬의 경우 아동 입장료가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연간 1인 10만원의 비용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
- 연간 1인 10만원은 한 달에 1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며 적어도 한 달에 1만원은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1회에 1인 10만원을 일괄 지급 하는 것 보다는 반기별로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1~2회에 모두 사용해버리지 않고 1년간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적정함

4) 지원금액 전액 소진 가능 여부

☐ 여가시간 및 아동 공연 관람료 고려 시 충분히 가능

- 아동과 부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비용을 소진할 수 있음
-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시 가장 희망하는 사용처가 고액의 뮤지컬 관람이기 때문에 아동 뮤지컬 위주 관람 시 충분히 소진 가능함
- 지방도 문화예술회관이나 백화점·문화센터 등에서 아동 대상 공연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비용 소진 가능함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소진 어려움 고려

-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원 비용을 소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떨어짐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영화 관람, 도서 구입(도서 구입을 허용할 경우) 등으로 모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지원비용의 소진을 위해서는 ‘첫걸음 문화카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방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함

☐ 사용기간 연장 필요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이나 부모의 여가시간이 없는 아동은 1년 동안 지원비용을 소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1년 정도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희망함

5) 사용처의 범위

☐ 문화예술활동으로 한정 필요

- 아동과 부모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정책 취지를 고려한다면 관람, 체험 등의 문화예술 ‘활동’ 분야로 사용처 범위를 한정해야 함
- 문화예술 분야더라도 물품 구매, 교육비 사용 등은 제한하는 것이 적합함

☐ 뮤지컬·연극·클래식·오페라 등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관람

- 비용 지원 시 관람료가 비싸서 평소 보기 어려운 뮤지컬·오페라 등 공연 관람 위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공연 관람을 사용처 범위로 가장 희망함
- 공연 및 전시 관람은 문화예술활동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처로 적정함

☐ 영화 관람

- 지방 대부분 도시에도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대형 공연장이나 전시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높은 곳이므로 사용처로 적정함
- 영화관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지방에서는 지원비용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로 지정해야 함

☐ 놀이공원·직업체험관

- 놀이공원은 아동의 선호도가 높고 공연·퍼레이드 관람, 동물원 관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로 선호함
- 놀이공원은 위락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활동보다 여가활동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도 고려
- 키자니아·잡월드와 같은 직업체험관은 아동의 선호도가 높고 관람료가 고액이라 평소 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처로 희망함

□ 제한 사용처

- 여행을 위한 교통비·숙박비 사용은 문화예술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처에서 제한해야 함
- 도서 구입은 문화예술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평소 도서 구매보다는 도서관 방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용처로는 반대함
- 교재·학습지를 제외한 도서 구입 허용은 사용자나 관리자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도서 구입을 허용할 경우 부정사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면 제한하는 것이 적합함
- 학원·교습소는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교육이기 때문에 정책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원금액으로는 1개월 교육비 지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에서 제한해야 함

□ 문화소외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사항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비용이 지원되더라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화소외지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경우 교통비·식비 등의 부담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문화카드 비용 일부를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었으면 함

6)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급은 문화예술활동 분야 사용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부적절함
-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 등의 사용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함

□ 포인트카드(선불식)

- 선불식 카드는 가맹점이 지정되어 있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달리 발급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불식 포인트카드를 가장 선호함

□ 포인트카드(신용체크카드)

- 고운맘카드, 아이행복카드가 신용체크카드의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익숙하므로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적합함
- 아이행복카드도 교육비 납부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데 첫걸음 문화카드로 신규 신용카드를 부담스러움

□ 온라인 전용몰

- 평소 영화 예매의 경우 온라인으로 선결제하고 관람하고 있어 온라인 전용몰의 방식이 익숙하며 수혜대상 및 사용내역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함
- 온라인 전용몰은 모든 사용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이 있음
- 조손가정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온라인 예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전용몰만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물카드를 통한 대면결제 방식도 병행해야 함

□ 타 지원카드 연계

- 1년 사용을 위해 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은 부담스러우며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갖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에 20만 포인트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적절함

7) 신청방식

☐ 개별신청

- 대부분의 지원 사업 신청 시 온라인, 읍·면·동주민센터, 카드사 등을 통해 개별신청해왔기 때문에 개별신청 방식은 적절함
- 개별신청의 경우 개인정보 누락의 위험이 없고 신청정보 미기재 시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오히려 감소함
- 부모가 정책에 관심이 없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조손가정의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음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방식은 부모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매우 편리하여 적절함
- 학교에서 부모의 개인정보(계좌 등)를 이미 갖고 있고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아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함
-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행정처리를 하는 경우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청정보 미기재시 아동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보내는 과정이 발생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시기

- 아동이 입학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신청 및 사용시기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함

8) 홍보방안 및 기타

- 예비소집일(1월)과 입학식(3월)에 첫걸음 문화카드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입학 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신청정보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함
- ‘복지로 앱’과 같이 ‘첫걸음 문화카드 앱’을 제작하여 사용처 정보 및 결제내역 안내가 필요함
- 시범사업 시행 시 수도권과 같이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한 곳과 지방의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동시에 운영하여 다양한 반응을 수렴해야 함

라. FGI 결과 종합

〈표 68〉 주제별 FGI 결과 요약

질 문	응답 요약
지원연령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 문화예술활동 부족 • 아동부모의 여가시간이 가장 충분한 시기적 장점 • 새로운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변화에 따른 지원 필요시기 • 영유아기 타의적 문화예술활동에서 개인 선호에 따른 자의적 문화예술활동 시작시기 • 고학년에 비해 높은 문화적 자극효과
소득수준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절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한다는 정책 취지 고려시 보편적 지원이 적절 • 소득수준으로 구분할 경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활동의 여유가 없는 아동은 미지원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여부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부모의 성향, 환경적 요인에 영향, 소득기준 지원은 부적절
지원금액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과 같은 고액의 공연 관람에 적정 • 영화는 이미 저렴하게 관람하기 때문에 지원비용 충분 • 1인 10만원은 적지 않으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
지원금액 전액소진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오페라와 같은 고액의 공연위주 관람을 희망하여 소진 가능 • 아동과 함께 할 여가시간이 충분하여 소진 가능 • 지방도 지원비용을 소진할 시설은 보유하고 있음(충청) • 지방은 지원비용을 소진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콘텐츠의 질도 낮음 • 지방에서의 전액 소진을 위해 첫걸음 문화카드 특화프로그램 제작 필요
사용처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오페라·연극 등 공연 관람 분야는 적정 •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분야는 적정 • 영화 관람은 지방에서도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 놀이공원은 아동의 높은 선호도, 다양한 체험 등으로 선호하지만 위락시설의 성격이 있음 • 도서 구입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부정사용을 검증하기 어려워 부적절 • 여행(교통비·숙박비)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 • 학원·교습소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 • 문화소외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비용의 부대비용 사용 방안 검토 필요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식 포인트카드는 사용처 지정이 가능하여 적정 • 신용체크 겸용 포인트카드는 사용처 지정이 가능하며 타 지원카드와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 • 온라인 전용몰은 사용처 정보 파악이 편리하고 사용내역 검증이 가능해서 편리하지만 보호자의 인터넷 사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한계 • 현금지급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
신청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원정책이 대부분 온라인,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신청방식이 익숙함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시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함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시 정보 누락 및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고려

IV.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구축

제1절. 지원대상 선정

제2절. 지원금액 설정

제3절. 사용처 설정

제4절. 지원방식 설정

제5절. 소요예산 설정

제6절. 추진체계 설정

제7절. 법제 개정방안 검토

제8절.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방안

제1절 지원대상 선정

1. 초등학교 1학년의 적응성

가. 새로운 공동체 진입에 따른 변화의 시기에 적응기제 필요

- 초등학교 1학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치원을 졸업하고 조직적이고 자립적인 체계로 진입하는 시기임
- 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매우 다른 형태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함
- 처음 한 달간은 교과 활동을 하지 않고 적응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임

〈표 69〉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요 일과 차이

유치원	초등학교
서툴버스 등하원	개별 등하교
자유 선택활동, 집단활동, 야외놀이 등	4~5교시 과목별 체계적 수업 구성
낮잠, 간식시간	스스로 자리정리, 책가방 싸기 등

-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이고 이때의 문화예술활동이 새로운 환경적응의 부담 감소를 위한 적응기제로 역할 할 수 있음
-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감수성 개발,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적 만족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도 영향을 미침
- 어린이집·유치원 시기는 부모가 아동의 사회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한정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친구, 교사 등 보다 확장된 관계가 형성되어 본격적 사회화에 진입하는 시기임

- 이 시기에 어린이 인기 뮤지컬, 연극 등을 관람한다면 학급 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기 때문에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화 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므로 사업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선정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아동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문화예술활동 분야의 확장 시기

- 어린이집·유치원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영유아 대상 문화콘텐츠로 한정되어 있고 대형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등의 주요 공연 입장연령은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음
- 서울시 주요 공연장에서 상영 중이거나 상영예정인 공연의 입장연령을 조사한 결과 아동 대상 공연을 제외하고 규모가 큰 공연, 해외 라이선스를 가져온 유명 공연 등은 입장 가능 연령이 8세 이상(만7세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70〉 서울시 주요 공연장 공연별 입장 가능 연령(2019년 3~4월 공연 기준)

공연장	공연명	장르	입장연령
예술의 전당	뮤지컬 라이언킹 인터내셔널 투어	뮤지컬	8세 이상 (초등학생 이상)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피아노 리사이틀	교향곡	
	창작 칸타타 동방의 빛	합창	
	국립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무용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오페라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무용	
	관현악시리즈Ⅲ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	국악	
	국립창극단 창극 〈패왕별희〉	창극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파가니니	뮤지컬	
	뮤지컬 영웅	뮤지컬	
	한국예술가곡보존회 제8회 정기음악회	가곡	
	서울스프링실내악 축제	클래식	
정동극장	적벽	복합	
	오셀로와 이아고	복합	
	판소리 오셀로	판소리	

- 초등학교 1학년은 영유아기 연령제한으로 관람할 수 없었던 대형 공연, 순수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첫 시기로 대형·순수예술 공연 관람의 시작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콘텐츠 소비에서 더 확장된 형태의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임
- 대형·순수예술 공연의 관람 시작은 곧 공연문화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어릴 때부터 공연문화 에티켓을 지키는 경험이 누적된다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공연문화의 자세를 정립할 수 있음

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높은 문화예술 수용도

-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수용도가 높고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더 큰 자극을 받음
- 본 연구 FGI 조사에서 부모 그룹 및 교사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문화예술 향유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응답함

〈표 71〉 초등학교 저학년의 문화예술 수용도

- 서울 OO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 1학년은 6학년과 달리 아직 자기 기호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것이 제공되더라도 좀 더 즐겁게 관람하고 어떤 자극도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음. 4~5학년 올라갈수록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는 것이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더 큰 자극이 됨
- 5세, 9세 자녀를 둔 부모
 -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8세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눈이 많이 뜨이고 문화적 순수성이 남아있음. 초등학교 고학년은 흥미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고 문화적 순수성, 민감성이 떨어짐

자료 : 본 연구 FGI 결과

- 이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화예술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순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을 가장 선입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연령임
-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자극을 받는 강도가 덜함
-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중문화(아이돌 문화 등) 또는 성인 대상 콘텐츠로 관심 분야가 한정됨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받던 일방적 단체활동을 벗어나 아동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른 자의적 문화예술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임
- 따라서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지원연령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란 넓은 범위로 비교하면 문화예술 수용도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적정함

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보호자의 여가시간 증대

-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입학 전,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가장 증대하는 시기임
- 유치원의 경우 기본 하원 시간은 오후 2시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특별활동을 신청하여 오후 4시 이후에 하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과정까지 신청하면 보통 오후 6시에 하원

〈표 72〉 유치원 평균 시간표

시간	내용
08:30 ~ 09:30	등원
09:30 ~ 10:00	일과계획 세우기
10:00 ~ 10:40	자유선택활동
10:40 ~ 11:00	정리정돈, 휴식
11:00 ~ 12:00	활동 I (이야기 나누기, 노래, 동시, 동화, 산책, 걷기, 달리기, 전통놀이 등)
12:00 ~ 13:00	점심, 바깥놀이(종합놀이기구, 모래놀이 등)
13:00 ~ 13:50	활동 II (게임, 음률, 미술, 신체표현, 동극 등)
13:50 ~ 14:00	정리정돈, 활동평가
14:00 ~ 16:50	특별활동(창의미술, 종이접기, 전통놀이, 영어, 체육, 수학 등)
16:50 ~	하원
17:00 ~	돌봄(개별활동 및 책 읽기)

-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4~5교시로 수업이 구성되며 5교시 수업이 있는 날은 오후 1시 40분에 하교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유치원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이 더 여유있음

〈표 73〉 초등학교 1학년 평균 시간표

시간	내용
08:30 ~ 09:00	아침활동 시간
09:00 ~ 09:40	1교시
09:50 ~ 10:30	2교시
10:40 ~ 11:20	3교시
11:30 ~ 12:10	4교시
12:10 ~ 13:00	점심시간
13:00 ~ 13:40	5교시

-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6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과외 등의 교육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년 내에서 비교하였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시간이 가장 여유있음

〈표 74〉 초등학교 학년별 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학년	4교시 (13:00)	5교시 (13:40)	4교시 (13:00)	5교시 (13:40)	5교시 (13:40)
2학년	4교시	5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3학년	5교시	6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4학년	5교시	6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5학년	6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6학년	6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FGI 결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부분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특별활동과 돌봄교실까지 신청할 경우 오후 4~6시 이후에 하원하는 유치원 시기와 달리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보통 오후 1시 전후 하교함에 따라 아동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동과 부모의 여가시간이 증대하여 다른시기(유치원·초등학교 고학년) 보다 아동과 부모가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마. 유치원보다 부족한 초등학교 문화예술활동

- 유치원에서는 월 1회 이상 현장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 유치원의 현장학습은 대부분 비용부담이 없이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적고 단체로 참여하므로 부모의 여가시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부족하더라도 원내 아동 간 차이없는 문화예술활동 향유가 가능함

〈표 75〉 유치원 주요 문화예술활동 종류

구분	내용
찾아가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인형극 등 공연 관람 • 동물원, 어린이대공원, 아쿠아리움 관람 • 생태공원, 생태체험관 방문 • 숲 유치원 방문 • 포도 따기, 일일농장 등 체험 프로그램
찾아오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체험, 도자기체험, 목공체험 등

-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유치원에 비해 단체 공연 관람 등의 문화예술활동이 부족하며(교사의견) 학교로 찾아오는 공연의 경우 담당 교사의 관심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초등학교는 학기 중 출석 인정이 되는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비용이 발생하고 부모·아동의 관심 여부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한 9~11세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결과 학원 및 과외가 46.7%, 집에서 쉬기가 19.4%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활동은 방과후학교 ‘10%’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개별응답으로 도출되지는 않아 초등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그림 17] 아동의 방과 후 생활조사(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이처럼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원과 달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가정환경 등에 따라 아동 간 문화예술향유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초등학교 입학 후 문화예술 활동 감소에 대응한 지원이 필요함

바. 정책 취지 및 상징성 고려

- ‘첫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내딛는 걸음을 의미하므로 첫걸음 문화카드라는 사업명에 부합하는 연령은 새로운 변화에 진입하는 특정연령을 의미함
- 18세 미만 아동의 사회환경 변화를 검토하였을 때 첫걸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 시기는 아직 아동이 독립적 주체로 활동하기보다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시기임
 - 초등학교 입학은 미취학 아동에서 취학 아동으로의 변화, 자유로운 활동에서 조직적인 학교 체계로의 진입 시기, 보호자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얻는 시기 등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폭이 매우 큰 시기임
 - 중학교 입학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이동, 자유복장에서 교복 착용 등을 통해 보다 조직적 체계로 진입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함

- 하지만 이미 초등학교 기간을 거치면서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과의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함
- 고등학교 입학은 초중학교보다 고등 교육을 습득하는 시기이지만 초중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첫걸음’의 시기로 보기에 늦은 시기임
- 그러므로 ‘첫걸음’이라는 정책명에 부합하는 시기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진입, 보다 자주적인 활동의 시작, 유사정책과 중복수혜 방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적정함

〈표 76〉 지원대상군의 특성 검토

구분	의견조사	아동부모의 여가시간	문화예술 향유현황	보편적 지원현황	지원 효과	정책 상징성
5~7세	1순위	보통 (4~6시 하원)	충분 (유치원 단체 활동 충분)	충분 (보육료, 아동수당 등)	보통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순위	가장 여유 (빠른 하교, 부모육아휴직)	부족 (학교 단체 활동 부족)	부족 (저소득층 위주)	가장 높음 (높은 수용도)	높음 (변화의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2순위	보통 (빠른 하교, 육아휴직종료)	부족 (학교 단체 활동 부족)	부족 (저소득층 위주)	높음 (높은 수용도)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3순위	부족 (늦은 하교, 학원·과외)	부족 (학교 단체 활동 부족)	부족 (저소득층 위주)	낮음 (대중문화 위주 수요)	낮음

2. 보편적 지원의 적정성

가. 보편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대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식에 대한 예비 수혜대상 의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지원, 즉 보편적 지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 보편적 지원이 적정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72.6%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14.3%가 ‘선별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함
- 5~7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FGI 조사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보편적 지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18] 첫걸음 문화카드의 소득수준 반영 여부 및 보편적 지원 응답 이유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선별적 지원방식의 한계

- 소득수준을 반영한 선별적 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효율성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문제 및 한계가 발생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예술활동을 할 여유는 없는 소득수준의 가정에 속한 아동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탈락되어 문화예술활동기회를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표 77〉 선별적 지원의 한계

구분	활동 가능 여부
고소득층	지원 없이 활동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문화생활의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동	지원 없이 활동 불가능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아동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 단체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시기와 달리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개인적 문화예술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 학급 내에서도 소득, 부모의 관심, 환경 등에 따라 아동 간 문화예술향유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별적 지원은 수혜대상 선별과정에서 오히려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된 아동수당의 경우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최대 1,6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모든 아동에게 지원할 때 추가로 필요한 연평균 예산 1,588억원과 38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행정비용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파악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부담 역시 과도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절감 및 신청자 편의 등을 고려하면 보편적 지원이 적정함

다. 문화예술활동의 보편적 비용지원 정책 부족

- 영유아기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정책이 부족해짐
- 2019년부터 아동수당이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된 것과 같이 최근 아동지원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수혜연령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함

〈표 78〉 영유아,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대상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형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보편적 지원
	유아학비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보편적 지원
	아동수당	0~만6세 미만 아동	보편적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초·중·고 가정 자녀	선별적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만11~만18세	선별적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라. 수혜자 중심의 문화예술활동 비용지원 필요

- 현재 문화예술활동 분야 지원정책 중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정해진 선별적 지원 정책이고 만6세 이상 연령이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아동특화 정책으로 볼 수 없음
-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 지원의 형태임

- 프로그램 지원방식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이라는 점에서 수혜자의 자유로운 활동 선택을 제한하는 한계가 발생함
- 그러므로 문화예술활동의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자 중심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특화 지원으로 정책의 특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79〉 문화예술 지원정책별 특징

구분	사업명	대상	지원형태	아동특화
문화 나눔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용지원	X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	프로그램 지원	X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소외지역	프로그램 지원	X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소외지역+일반	비용지원	X
교육 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전국 초·중·고 학생	프로그램 지원	O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프로그램 지원	O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학교 밖 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지원	O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서울 제외)	프로그램 지원	O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O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O

3. 지원대상 선정

구분	1안	2안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보호자 1인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보호자 1인 차등 지원
수혜대상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보호자 1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보호자 1인
지원형태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모두 지원하되 소득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연령기준	해당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해당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검증	취학통지서	취학통지서, 소득증빙서류
지원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선별비용	선별비용 미발생	선별비용 발생
선정여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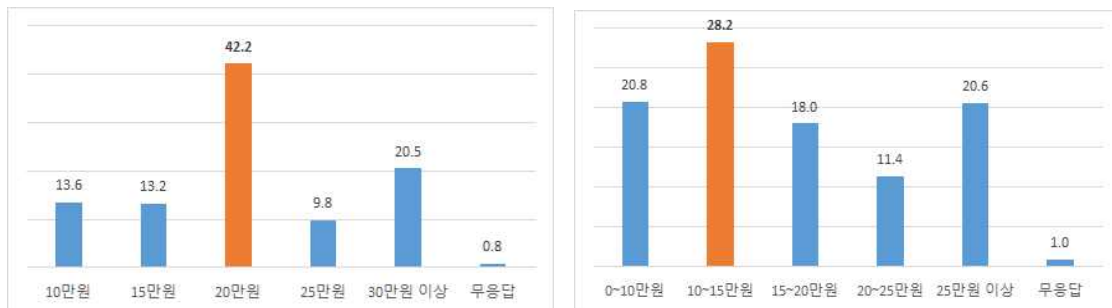
-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의견조사, 사례분석 및 현황조사 결과 적정 대상은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판단됨
-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진입하는 시기, 대형·순수예술 공연의 첫 관람 가능 시기, 문화예술에 대한 자극과 수용도가 높은 시기, 아동과 부모의 여가시간이 증대되는 시기, 유치원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횟수가 줄어드는 시기, 정책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가장 효율적 시기라는 점에서 지원연령으로 적정함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 공연·전시·영화 관람,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며 보호자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과 더 큰 행복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동 1명과 동행자로서의 보호자 1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함
-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수준 반영 여부는 보편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대, 선별적 지원방식의 한계 극복 필요, 수혜자 중심의 문화예술 직접 비용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수혜연령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적정함
- 지원대상 선정 관련 의견조사에서 일부 의견으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한 일부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이 경우 보편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지원을 위한 선별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적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1안이 적합함

제2절 지원금액 설정

1. 연간 20만원 지원의 적정성

가. 수혜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출 규모 및 희망 지원금액

- 첫걸음 문화카드 적정 지원금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만원(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에서 지출하는 아동의(1인 기준) 연간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으로 ‘10~15만원’ 28.2%, ‘0~10만원’ 20.8%로 응답함에 따라 수혜대상의 평소 지출 규모 및 희망금액을 고려할 경우 연간 20만원(1인 10만원)의 금액이 적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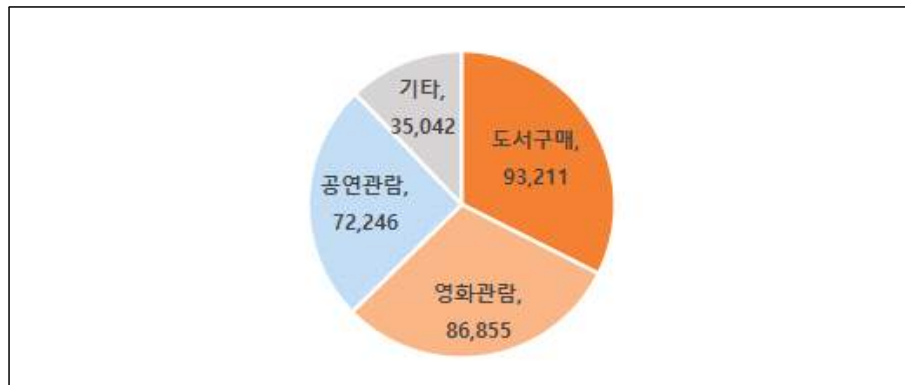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19] 첫걸음 문화카드 적정 지원금액(좌) 및 아동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금액(우)

- FGI 결과에서도 연간 20만원(1인 10만원) 비용은 평소 관람기회가 부족했던 고액의 뮤지컬·연극 등 공연 관람에 적정하며, 영화는 이미 할인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관람해왔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은 입장료가 무료 또는 저렴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됨
-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을 높이는 것 보다 1인 10만원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도출됨

나. 국민 문화예술활동 지출 규모 및 유사정책 지원 규모 고려

- 2018년 국민 1인당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은 총 28만 7천원으로 이중 도서 구매가 9만 3천 211원, 영화 관람이 8만 6천 855원, 공연 관람이 7만 2천 246원으로 조사됨



자료 : KBS 한민족방송 '문화공감'

[그림 20] 국민 1인당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연간 1인 10만원의 금액 지원한다면 영화, 공연의 관람 위주의 문화예술활동 지출이 가능함
- 설문조사 및 FGI 조사에서 1순위 지원금액 희망사용처인 뮤지컬·연극 등의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최근 아동 공연 평균 관람료를 조사한 결과 평균금액이 약 4만원으로 도출됨
 - 이는 1인 10만원의 지원금액을 모두 공연에 지출할 시 연간 3회 정도의 관람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표 80〉 인터파크 1월 인기 아동 공연·뮤지컬 랭킹1~20위 관람료, S석 기준

랭킹	공연명	관람료
1	신비아파트 시즌2	35,000
2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	33,000
3	판타지아	40,000
4	월드스타 뽀로로	40,000
5	아빠! 사랑해요	50,000
6	태양의 나라 이집트	44,000
7	헬로카봇 시즌4	60,000

자료 : 인터파크 티켓예매 홈페이지(<http://ticket.inter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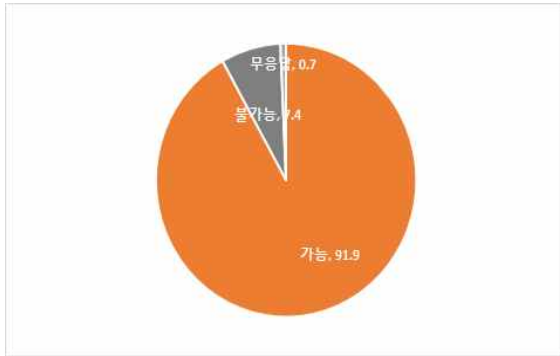
- 첫걸음 문화카드와 유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활동비용 지원정책의 지원금액 수준을 비교하면 통합문화이용권이 1인 연간 8만원('19년 기준), 지자체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카드가 1인 10만원으로 첫걸음 문화카드의 1인 10만원의 금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표 81〉 유사정책 지원금액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형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 8만원	선별적 지원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연간 1인 10만원	보편적 지원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연간 1인 10만원	보편적 지원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연간 1인 10만원	보편적 지원
강서구 청소년 꿈-IN 카드	연간 1인 10만원	보편적 지원
부산시 입학축하금	연간 1인 20만원	보편적 지원
오산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연간 1인 10만원	보편적 지원

2. 지원금액 소진 가능 여부 고려

가. 관람료가 고액인 공연 위주 관람 희망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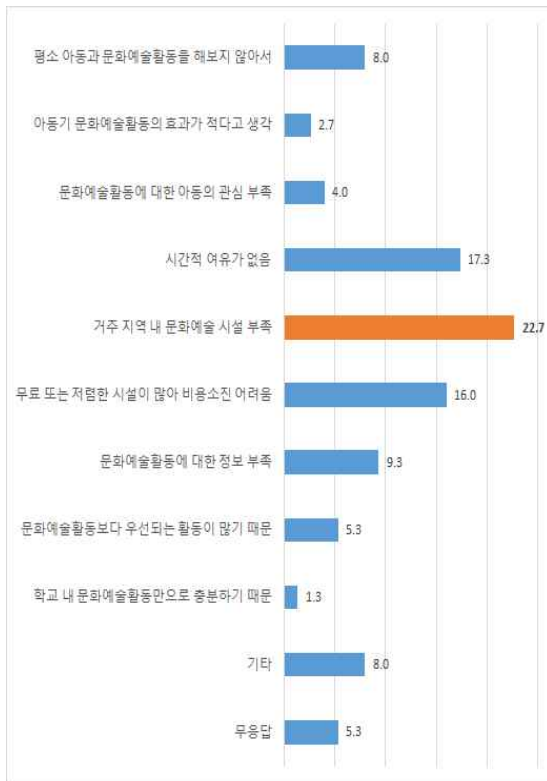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연간 20만원의 금액 지원 시 전액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가 91.9%로 나타났으며 가능한 이유로는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이 많기 때문’이 23.5%,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 이해’가 15.7%, ‘관람료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 소비 예정’이 15.4%로 나타남

[그림 21] 20만원 지원 시 전액 소진 가능 여부

- FGI 조사에서도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시 뮤지컬·연극 등 관람료가 고액인 공연 관람 위주로 사용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액 소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다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의 사용 활성화 유도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지방 도시의 경우 문화예술시설 분포는 부족하지 않지만 문화예술 시설에서 상영되는 공연이 대부분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지원금액 소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됨
- 설문조사 결과 낮은 비율이지만 지원금액의 전액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대상 역시 ‘거주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부족’을 1순위로 응답함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22] 전액 소진이 불가능한 이유

- 문화예술시설의 접근성이 낮은 문화소외 지역이나 조손가정, 아동 또는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차량지원과 같은 부대비용 지원 없이 문화예술활동이 어려움
-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문제도 비용소진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됨
- 이를 극복하고 첫걸음 문화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특화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개선, 정보제공 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아동 대상 공연의 경우 성인 대상 공연과 비교하여 수익성 문제로 인해 아동 대상 공연 기획 부족 및 콘텐츠의 질 하락 문제가 발생함

-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금액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소외지역에 파견하여 퀄리티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소외지역이나 조손가정에 차량 대절 등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다양한 공연단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급자와 수혜자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연 제작 및 소비 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개인기준/가구기준 지원의 적정성

가. 개인기준 지원방식의 특징

- 연간 20만원의 금액을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으로 각각 지원하는 방식은 정책수혜 대상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이 가능함
- 개인기준 지원방식은 1장의 카드에 20만원을 부여한 후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2장의 카드에 10만원씩 부여하여 각각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 1장의 카드에 20만원을 부여할 경우 수혜대상에 맞는 사용 검증이 어렵고 1장의 카드이지만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을 각각 계산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발생함
 - 2장의 카드에 각각 10만원을 부여할 경우 아동명의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용체크 카드의 형태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카드를 여러 장 소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나. 가구기준 지원방식의 특징

- 가구기준 지원방식은 1장의 카드에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장의 카드에 20만원을 부여한 후 아동/보호자 구분 없이 2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임
 - 가구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1장의 카드로 사용기준 계산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아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수혜대상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임
 - 다만 수혜대상에 부합한 사용 검증이 어렵고 부모가 아동의 비용까지 사용할 수 있어 1회 사용금액 제한이나 아동과 동반 시에만 결제 가능 등의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82〉 지원방식에 따른 차이점

구분	개인기준 지원(카드 1장)	개인기준 지원(카드 2장)	가구기준 지원(카드 1장)
수혜대상	초등학교 1학년+보호자 1인	초등학교 1학년+보호자 1인	초등학교 1학년+보호자 1인
카드명의	보호자	아동, 보호자	보호자
발급방식	1장의 카드에 20만원 지급	각각의 카드에 10만원씩 지급	1장의 카드에 20만원 지급
사용방식	아동 10만원/부모 10만원 구분하여 사용	개별 카드 사용	아동/부모 구분 없이 총 20만원 사용
사용검증	어려움	가능	어려움
사용 편리성	불편 1장의 카드지만 아동/부모 비용 각각 계산	불편 카드 2장 발급 및 소지 필요	편리 1장의 카드로 금액 구분 없이 사용
수혜대상 선호도	비선호	비선호	선호
보호자 지원비용 아동사용 여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4. 지원금액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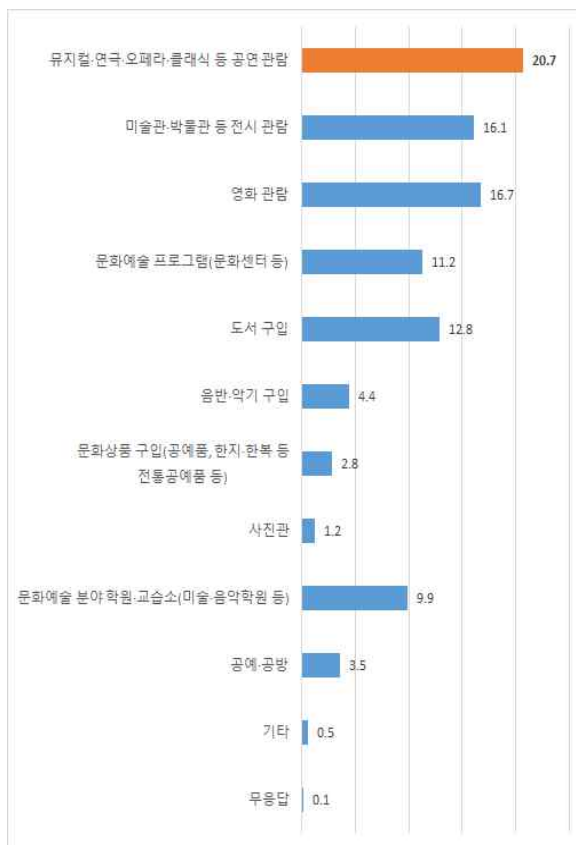
구분	1안	2안
	가구기준 20만원 지원	개인기준 20만원 지원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 각각)
지원금액	연간 총 20만원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	연간 총 20만원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
지원회차	연간 1회 일괄 지급	연간 1회 일괄 지급
지원형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1장의 카드 발급	보호자 명의 1장의 카드 또는 아동/보호자 명의 카드 각각 발급
사용방식	1장의 카드로 20만 원 내에서 아동/부모 구분 없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장의 카드에 20만원 부여 후 아동 10만원/부모 10만원 구분 사용 2장의 카드에 각각 10만원씩 부여하여 개별사용
선정여부	선정	

-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금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비용 규모, 국민 평균 문화예술활동 비용 규모, 아동 대상 공연 관람료 수준, 전액 소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간 총 20만원(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이 적정함
 -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로 인하여 지방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액 소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화 프로그램 파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차량 지원, 공급자와 수혜자를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 등의 보완이 필요함
- 지원방식 중 가구단위 지원은 1장의 카드에 20만 원에 금액을 부여하여 아동 10만 원과 보호자 10만 원의 구분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일부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호자의 비용을 아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임
 - 다만 가구단위 지원 시 수혜대상 사용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수혜대상의 사용이나 보호자가 아동의 지원금액까지 모두 사용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개인기준 지원은 수혜대상의 사용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에 부합한 사용에는 적합하지만 가족단위 활동을 고려할 경우 사용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방식으로 적정하지 않음
 - 사용자의 선호도, 아동 문화예술활동 특징에 따른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구단위 지원방식이 적정함

제3절 사용처 설정

1. 문화예술활동 분야 한정 필요

가. 수혜대상 희망 사용처 반영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23]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이 20.7%, ‘영화 관람’이 16.7%,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이 16.1%로 나타남
- FGI 결과 역시 희망사용처 분야는 관람료가 고액이기 때문에 평소 관람기회가 적었던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이 1순위로 도출됨
- 영화 관람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높고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와 FGI 결과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는 문화예술 분야 관람·체험 등 ‘활동’개념의 사용처 지정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정책 취지를 고려할 경우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함

나. 유사정책 주요 사용처 기준 반영

- 통합문화이용권과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주요 사용처 기준을 반영하여 사용처 지정에 대한 타당성 및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전시 관람은 물론 도서 구입, 여행(교통비·숙박비), 스포츠 관람 및 스포츠용품 구입, 문화상품 구입 등이 가능하여 사용처의 범위가 매우 넓음
- 하지만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하여 사용처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전시 관람은 모두 허용되며 도서 구입은 교과 서적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가능, 여행 비용은 모두 불가능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진로와 관련된 학원·교습소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기도 함
- 지자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학원·교습소를 일부 허용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진로체험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용된 것으로 판단됨

〈표 83〉 유사정책 사용처 기준

지원 분야	주요 항목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부산 방과 후 행복카드	여주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강서구 청소년 꿈-IN카드
문화·예술	공연장	가능	가능	가능 (5만원 범위 내)	가능	가능	가능
	미술관, 박물관	가능	가능	가능 (5만원 범위 내)	가능	가능	가능
	영화관	가능	가능 (온라인)	가능 (5만원 범위 내)	가능	가능	가능
	서점	가능	가능 (교과관련 서적제외)	가능 (오프라인 불가)	불가	가능 (교과관련 서적제외)	가능 (교과관련 서적제외)
	만화카페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음반판매점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악기소매점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사진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문화상품, 화방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한복대여점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문화재단, 문화센터 강좌	가능	가능	가능 (5만원 범위 내)	불가	불가	불가
	코인 노래연습장	불가	불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관광	숙박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운송수단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여행사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유적지, 관광명소(휴양림)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테마파크(놀이공원·워터파크), 레저(스키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불가	불가
	온천, 스파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지원 분야	주요 항목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부산 방과 후 행복카드	여주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강서구 청소년 꿈-IN카드
체육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가능	불가	가능 (5만원 범위 내)	가능	불가	불가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체육시설(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운동용품	가능 (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진로·직업	학원·교습소 (문화·예술·체육 분야)	불가	가능	불가	불가	가능 (실용음악학원, 뷰티아카데미, 제과·제빵 등)	가능
	진로·직업 프로그램	가능	가능	가능 (금액 제한 없음)	가능 (단체 체험학습, 키자니아 등)	가능 (언어재활, 심리상담, 진로캠프 등)	가능
	공방, 공예, 조경	불가	가능	가능 (5만원 범위 내)	불가	가능	가능

다.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 제한

- 도서는 ‘문화예술’의 범위에는 속하지만 FGI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서 구입은 ‘문화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처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정책 취지에 맞는 사용처는 ‘관람·체험’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도서 구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지자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과 같이 교과목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방안은 오히려 사용의 번거로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도서 구입은 전면 제한하는 것이 적합함
- 놀이공원과 직업체험관은 아동과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으나 지원금액을 1회에 소진할 우려가 있고 위락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적합함
- 문화예술분야 학원·교습소는 FGI 결과 모든 응답자가 정책 취지에 부적합하여 사용처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함
 - 통합문화이용권 역시 학원·교습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도 일부 지자체에서 진로체험 분야를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교습소는 전면 제한하는 것이 적합함
- 여행·스포츠 분야는 첫걸음 문화카드가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범위에 속하지 않고 여행을 위한 교통비·숙박비는 부대비용의 개념이므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함

□ 분야별 사용처 적정 여부 평가

〈표 84〉 분야별 예시 및 사용처 적정 여부 평가

분야	예시	검토의견	결과	보완
공연	뮤지컬, 오페라, 연극, 클래식, 발레, 국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활동 부합 수혜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1위 	지정	
전시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기념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활동 부합 수혜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3위 	지정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활동 부합 수혜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2위 높은 접근성 사용편중 문제 고려 필요 	지정	횟수 제한 고려
체험 프로그램	공예, 미술, 만들기 체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활동 부합 수혜대상 평소 활동 1위 	지정	
도서	온오프라인 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문화예술활동으로 인식 부정사용 제한의 어려움 FGI 결과 사용처 지정 반대 	제외	
여행·스포츠	교통비·숙박비, 스포츠경기 입장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문화예술활동 교통비·숙박비는 부대비용의 개념 	제외	
학원·교습소	미술·음악 등 문화예술분야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문화예술활동 교육비 지원은 정책취지에 부적합 FGI 결과 사용처 지정 반대 	제외	
놀이공원	에버랜드·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워터파크, 눈썰매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아동부모의 선호도 문화예술보다 위락시설의 성격 1회 방문으로 비용 전체 소진 우려 	제외	
직업체험관	키자니아, 잡월드 등		제외	

2. 사용처 설정

- 사용처에 대한 수혜대상의 희망 사용처와 유사 사업의 주요 사용처,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는 ‘문화예술활동’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함
-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는 공연 관람, 전시 관람, 영화 관람,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체험 형태의 활동으로 지정함
- 도서 구입, 문화상품 구입 등 물품 구입의 형태는 ‘활동’의 개념으로 포함하기 어려워 제한함
- 여행(교통비·숙박비), 스포츠, 학원·교습소 등도 문화예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놀이공원과 직업체험관은 수혜대상의 선호도가 높으나 위락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사용처의 범위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용률 검토 및 수혜대상에 대한 정기적 의견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함

〈표 85〉 사용처 설정 분야

분야	사용 내용	사용장소
관람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소극장 등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국공립·사립 미술관, 박물관 등
	영화 관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체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공방 등

제4절 지원방식 설정

1. 유사사례 지원방식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만원의 공연, 영화, 전시 관람,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이며 지원금 소진 이후 본인 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지속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후기명식 카드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가구합산은 가능하지만 잔액 이월은 불가능함

☐ 아이행복카드

- 만0~5세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카드로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발급되며 지원금은 지정된 가맹점(어린이집·유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외 개인 사용은 일반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7개 카드사 중 선택이 가능하여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가구합산 및 잔액이월은 불가능하며 카드 추가발급 없이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을 연계하여 사용 가능함

☐ 국민행복카드

- 정부 바우처 통합서비스 카드로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 카드가 통합된 형태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함

- 신용·체크·전용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외 개인 사용은 일반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발급된 카드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4개 카드사·우체국 중 선택이 가능하여 신청자가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구합산, 잔액이월은 불가능함

□ 지자체 아동·청소년 진로체험카드

-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강서구, 세종시, 여주시 등에서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예술·진로체험 활동비용을 지원함
-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충전식 선불카드이며 대부분 별도의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정산시스템으로 결제·정산하는 구조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구합산 및 잔액이월은 불가능함

〈표 86〉 유사사례 지원방식 현황

구분	통합문화이용권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지자체 아동·청소년 지원카드
지원내용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교육비	정부 바우처 통합서비스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진로체험활동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	지원 바우처별 상이	관할지역 중학교 1학년 (만13세 학교밖 청소년)
지원금액	연간 1인 8만원	보육료에 따라 상이	지원 바우처별 상이	연간 1인 10만원
카드형태	포인트카드(선불식)	포인트카드(신용·체크)	포인트카드(신용·체크전용)	포인트카드(선불식)
사용처	온·오프라인 지정 가맹점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온·오프라인 지정 가맹점	온·오프라인 지정 가맹점
지원금 외 개인사용	불가능	가능 카드사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카드사별 할인혜택 적용	가능 카드사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카드사별 할인혜택 적용	불가능
본인 충전금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구합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잔액이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결제방식	단말기 결제, 온라인 결제	어린이집 : 단말기인터넷 결제 유치원 : 인증 후 지원금 지원+학부모 부담금 결제	단말기 결제, 온라인 결제 (현장결제 시 정부 지원금 이용 의사 표시)	단말기 결제, 온라인 결제
신청장소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	온라인 : 카드별 누리집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타 카드 연계	불가능	국민행복카드에 연계 가능		불가능
카드사	NH농협카드	7개 카드사	14개 카드사 + 우체국	없음

2. 카드 형태별 특징

□ 포인트카드(선불식)

- 선불식 포인트카드는 FGI 결과 수혜대상 선호도 1순위로 나타났으며 가맹점 지정을 통한 사용처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함
-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아동 명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보다 카드 발급 부담이 감소함
- 신용·체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 소진 후에는 카드 기능을 상실되며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카드사가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카드사) 선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개인 충전금을 충전하여 추가혜택을 받는 통합문화이용권과 같이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 충전금 충전시 할인혜택 부여 등의 추가혜택을 검토할 수 있음

□ 포인트카드(신용·체크)

- 신용·체크 기능 포인트카드는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 1순위로 나타났으며 가맹점 지정을 통한 사용처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함
- 카드사별 다양한 할인혜택 적용이 가능하고 수혜대상이 기존에 사용해온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이 익숙함
- 지원 금액을 소진한 후에도 일반 신용·체크카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1년 사용을 위한 신용카드 추가 발급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며 아동명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타 카드 연계방안 고려

- 첫걸음 문화카드 전용 신용·체크카드 기능의 포인트카드 발급은 신용카드 추가 발급으로 수혜대상 및 발급기관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기 발급된 아이행복카드와 같은 타 지원카드에 연계하여 추가 카드 발급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결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 수혜대상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 방치되는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아짐
 - 하지만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첫걸음 문화카드의 독자적 카드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상징성이 감소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온라인 전용몰

- 온라인 전용몰은 모든 사용처를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처 현황 및 프로그램 정보를 파악하는데 편리하며 수혜대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내역 검증이 명확하고 편리함
- 반면 온라인 전용몰은 인터넷 사용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손가정,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가정 등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의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서의 대면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결제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 전용몰 방식을 선정할 경우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결제 방법 교육 및 안내를 활성화해야 하고 실물카드 발급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표 87〉 지급방식에 따른 특성 검토

구분	현금지급(계좌이체)	포인트카드(선불식)	포인트카드(신용체크)	온라인 전용몰
대표사례	아동수당	통합문화이용권, 지자체 아동·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복지몰
사용처	제한 없음	가맹점 내	가맹점 내	가맹점 내
온오프라인 사용	—	대면 결제, 온라인 결제	대면 결제,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수혜대상 선호도	논외	2순위(FGI, 설문조사 기타의견)	1순위	3순위
발급명의/실 결제자	아동+보호자/보호자	아동,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
수혜대상 지원 검증	검증 불가	아동 대상 가맹점 지정을 통해 실 수혜대상 지원 유도 가능		
수혜대상 사용 검증	검증 불가	아동 대상 콘텐츠 여부, 관람 가능 연령, 관람료 기준(결제 내역) 등을 통해 일부 검증 가능		
가구단위 사용시	—	가구 단위 사용 시 수혜대상과 비 수혜대상을 구분하여 별도 결제 필요		
추가 할인	—		카드사 할인혜택 추가 이용 가능	
지원금 외 개인사용	—	불가	가능 정부 지원금 : 사업지정 가맹점 개인 사용금 : 카드사 가맹점	불가
지원금 사용 방식	—	—	카드결제 시 지원금 사용 의사 표시	—
기타 문제점	—	포인트 소진 후 카드 방치	신용카드 발급 증가에 따른 부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편
사용 편리성	매우 편리함	편리함 (온·오프라인 동시 사용)	편리함 (온·오프라인 동시 사용)	보통 (사전 온라인 예매 필수)
정책취지 적합성	정책 취지에 부적합 (문화예술활동여부 검증 불가)	정책 취지에 적합 (문화예술활동 분야로 사용처 제한 가능)		

3. 신청방식

□ 개별신청 방식의 특징

- 개별신청 방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식으로 아동수당·통합 문화이용권 등에서 이용하는 신청방식임
- 개별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신청서 누락의 가능성이 적고 신청 정보 미 기재시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함
- 하지만 보호자가 정책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하거나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정(예: 조손가정 등)의 경우 신청누락의 여지가 있음
- 첫걸음 문화카드의 신청방식을 개별신청으로 설정할 경우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식 등 주요 시기에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청방법의 안내 확대가 필요함

〈표 88〉 개별신청의 특징 및 절차

구분	내용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3월 ~ 다음해 2월 중 상시
처리기간	방문신청 시 약 7일 이내 소요
수령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

정보전송
주관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

자격검증
신청자 자격검증 및 시스템 등록

▼

정보전송
카드사로 신청정보 전송

▼

카드발급
방문수령 및 우편배송

□ 단체신청 방식의 특징

- 단체신청 방식은 학교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아동을 통해 가정에 신청서를 전달하면 보호자가 신청정보 작성 후 아동을 통해 다시 학교로 신청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임
- 이 경우 별도의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이 편리하고 정보가 부족에 따른 미신청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의 경우 신청서 문서화 작업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학교가 신청정보의 보안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발생함
- 또한 학교와 가정으로 아동을 통한 신청서 전달 시 신청서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서의 항목을 미기입하거나 잘못 기입하였을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 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방식을 채택할 경우 아동을 통한 신청서 전달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안내를 강화해야 함

〈표 89〉 단체신청의 특징 및 절차

구분	내용
신청방식	아동을 통해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시기	3월 ~ 4월 중 일괄
처리기간	신청서 미기입 항목 발생 시 연장 가능
수령방법	아동이 가정으로 전달 또는 우편수령



4. 지원방식 설정

구분	1안	2안
	포인트카드(선불식), 개별신청	포인트카드(신용·체크), 개별신청
발급형태	포인트카드(선불식)	포인트카드(신용·체크)
카드명의	아동 또는 보호자	보호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수령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수령
결제방식	대면 또는 온라인 결제	대면 또는 온라인 결제
기타혜택	카드사와 개인충전금 사용 협의 필요	연회비 무료+기타 할인혜택
선정여부	선정	-

-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급방식은 가맹점이 지정되어 있어 문화예술활동 분야로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선불식 포인트카드 발급이 적정함
 - 선불식 포인트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다르게 발급에 대한 부담이 적고 보호자뿐 아니라 아동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선불식 포인트카드의 경우 지원금액을 소진하면 카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원금액 소진 후 개인 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청방법은 일반적 지원정책의 신청방법과 동일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한 개별신청이 적정함
 - 개별신청은 개인정보 누락의 위험이 적고 정보 미기재시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며 담당 기관과 수혜대상에게 모두 익숙한 방식임
 - 다만 개별신청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보호자가 거동이 힘들거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할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신청안내·사용방법 교육 강화, 대리인을 동행한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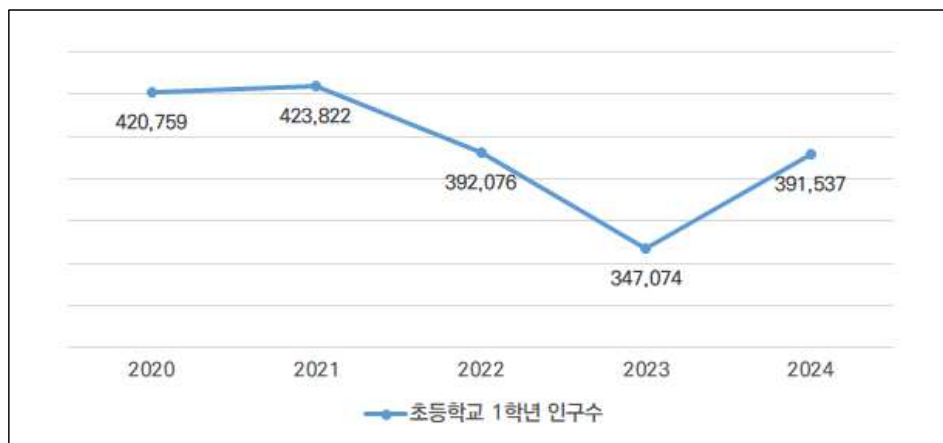
제5절 소요예산 설정

- 2020년 첫 사업시행 시 초등학교 입학생의 수는 420,759명으로 추정되나 2023년에는 347,074명, 2024년에는 391,537명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됨

〈표 90〉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국공립)	2,622,203	2,590,362	2,548,471	2,440,656	2,365,664
1학년	420,759	423,822	392,076	347,074	391,537
2학년	417,989	416,819	419,836	388,371	343,758
3학년	460,138	414,476	413,301	416,274	385,055
4학년	443,681	456,685	411,357	410,177	413,110
5학년	419,613	440,531	453,375	408,369	407,186
6학년	439,029	417,291	438,124	450,848	406,087
특수	20,994	20,739	20,402	19,544	18,931

자료 : 교육부 제공(통계청 학령인구,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교육통계연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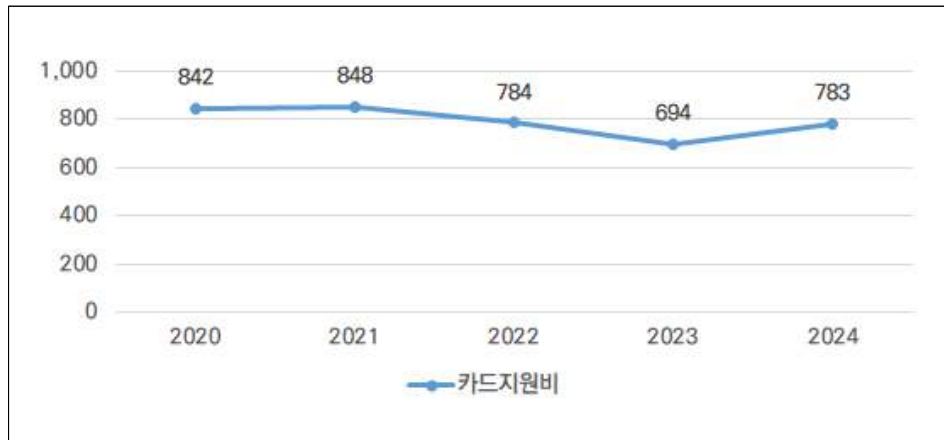
[그림 24] 초등학교 1학년 인구수 추계

- 2020년 초등학교 입학생 420,759명을 대상으로 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8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연도별 추정 소요예산은 연간 운영비 15억원을 포함하여 2020년 842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 784억원 등으로 추산됨

〈표 91〉 소요예산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카드지원비	842억	848억	784억	694억	783억
운영비	15억원('18년 통합문화이용권 운영비 기준 반영=1,480만원)				
계	857억	863억	799억	705억	798억

- 사업운영비는 첫걸음 문화카드와 유사한 형태인 통합문화이용권의 2018년 운영비 기준을 반영함
- 소요예산은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구축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축비 규모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기간, 신청방식 등 주요 시행방안 확정 후 산정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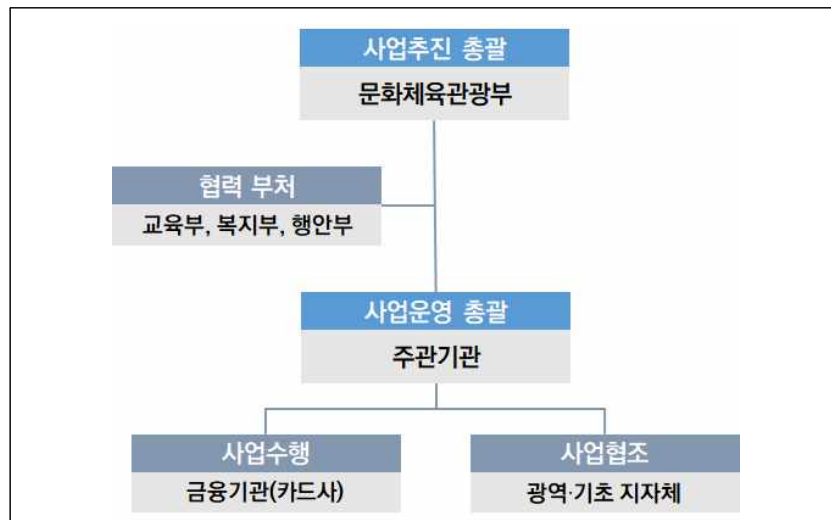


[그림 25] 초등학교 1학년 인구수 변화에 따른 카드지원비 총액 추계

제6절 추진체계 설정

1. 사업추진 구조

- 첫걸음 문화카드의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사업운업을 총괄하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 카드사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정함



[그림 26] 사업추진 구조

〈표 92〉 기관별 역할

구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총괄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총괄 • 사업비 집행정산 •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사용 교육 • 카드사 공모선정 •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홍보 총괄 • 고객센터 운영 • 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발급 및 이용안내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발급, 정산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 가맹점 관리, 이용자 편의 서비스 운영

2. 주관기관 검토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관기관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업비 교부·정산 등의 보조금 관리와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교육·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홍보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운동을 총괄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나눔본부 내 문화누리부를 개설하여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효과적 운영시스템과 운영 인력, 운영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표 9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담당 부서 구조

구분	담당업무
부장	문화누리부 업무 총괄
차장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
과장	통합문화이용권 17개 시도 및 주관처 관리 문화누리 주관카드사 협력 업무
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및 평가업무, 복권기금사업 총괄업무
과장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업무 총괄, 통합문화이용권 관광/체육분야 가맹점 업무
대리	통합문화이용권 브랜드 홍보마케팅 통합문화이용권 국회 및 감사 업무
사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분야 가맹점 업무,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업무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s://www.arko.or.kr>)

- 주관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통합문화이용권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지원 및 발급 방식, 사용자 기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식 등)된다면 주관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선정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현 문화나눔본부 내 첫걸음 문화카드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전담 인력 투입 통한 추진이 필요함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분야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학교 대상, 사회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개발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방과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첫걸음 문화카드의 수혜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표 9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학교 문화 예술 교육	학교예술강사 지원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단, 서울시 소재 기관은 제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상상만개'	고3 학생 및 수험생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과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40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일반·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가출, 자립, 탈학교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추진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존의 아동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효율적일 것임
- 이 경우 청소년교육본부 또는 시민교육본부 내 첫걸음 문화카드 담당팀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필요

다.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포털’, ‘문화콕’, ‘한민족 문화정보통합서비스’ 등을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 클라우드 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N티켓 사업 운영 등 문화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기관임
- 특히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N티켓(문화관람지원플랫폼)은 티켓 예매 및 판매 수수료가 없고 무료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전시단체와 국민의 문화생활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임
- 주관기관으로서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N티켓 플랫폼을 첫걸음 문화카드의 온라인 예매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화N티켓 사이트에서는 예매뿐 아니라 공연·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정보, 지역 행사·축제 정보, 문화나눔 이벤트 등이 진행되어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첫걸음 문화카드 수혜대상에 대한 문화예술 정보 활성화에 도움이 됨
- 다만 첫걸음 문화카드의 운영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오프라인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이 경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서비스부 내 첫걸음 문화카드 담당팀 신설이 필요함

라. 주관기관 선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첫걸음 문화카드와 신청 및 사용방식이 유사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주관해오며 따라 효율적 사업운영 경험과 시스템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등과 첫걸음 문화카드 특화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며,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단체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수행이 가능함
- 그러므로 첫걸음 문화카드의 주관기관은 사업운영 능력, 정책 취지, 시스템 및 인력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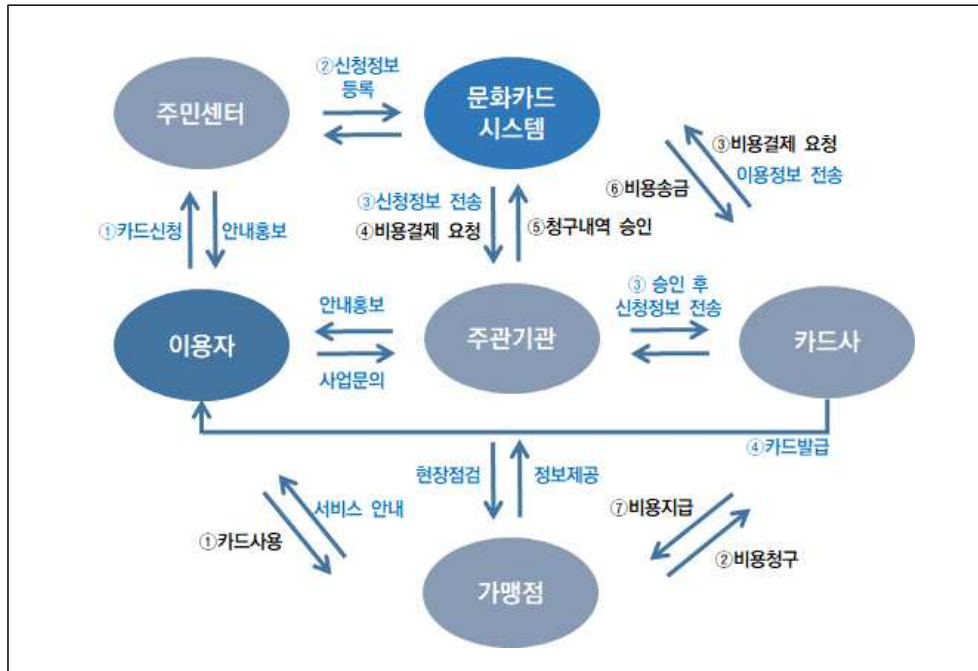
3. 시스템 구축 검토

가. 신규시스템 구축

-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업의 카드 신청, 발급, 결제 및 정산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은 신청기관주관기관 담당자가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 등록, 수혜 대상 검증, 카드 발급, 가맹점 관리와 카드비 결제정산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첫걸음 문화카드의 독자적 신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사업 및 시스템 관리가 편리하고 사업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신규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보다 구축비용 및 구축기간이 증대되며 (약 1년 소요 예상), 사업 담당자들의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다른 업무부담이 예상됨

나. 기존시스템 연계

- 첫걸음 문화카드와 신청사용 형태가 유사한 타 지원사업 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타 시스템에 연계할 경우 통합문화이용권과 아이행복카드 시스템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문화이용권과 아이행복카드는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아이행복카드에 연계 시 시스템 연계와 더불어 기존 아이행복카드에 첫걸음 문화카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통합문화이용권에 연계 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결제 시스템만 연계하고 첫걸음 문화카드는 별도의 카드로 발급하는 방식이 적정함
- 기존시스템에 연계 시 구축비용 및 구축기간이 신규시스템에 비해 줄어들며(약 6개월 소요 예상) 높은 시스템 접근성과 세밀한 정산관리체계의 유지가 가능함
 - 하지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타 지원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정책의 독자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시스템 연계에 따른 부처·기관 간 협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사항임



[그림 27]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구축 시 신청·결제 구조(안)

〈표 95〉 사용자별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활용

구분	내용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안내 카드신청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신청, 재발급 신청자 개인정보 사용금액 및 잔액 현황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실적관리
카드이용자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안내 첫걸음 문화카드 발급, 신청 카드 승인금액 및 잔액 확인 개인정보 수정 사업 관련 문의 게시판 이용

제7절 법제 개정방안 검토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시행근거 마련

- 첫걸음 문화카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 개정을 통한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사업의 수혜대상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인 보편적 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의 지원 타당성, 사업의 지속적 시행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첫걸음 문화카드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향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법제 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 첫걸음 문화카드와 유사한 신청사용 형태의 통합문화이용권 역시 문화예술진흥진흥법 내 조항이 신설되어 있음

2. 법제 개정(안)

가. 문화예술진흥법 기존 법령 내 대상을 추가할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기존 법령 내 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첫걸음 문화카드를 문화이용권의 범주로 인정하여 ‘문화이용권’ 관련 조항 내에 첫걸음 문화카드 수혜대상인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생’을 추가하여 시행함
- 기존 법령 내 대상을 추가할 경우 법 조항 개정 및 신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아동의 범위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향후 사업의 수혜대상 확장성을 고려한 것임
-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에서 문화이용권의 사용자로 문화소외계층과 ‘아동’을 추가하고 제15조에서 아동의 범위를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명시함

※ 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생(6세) 한정 필요

- 연령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취학통지서를 받고 입학하지 않는 경우, 조기입학자의 제외 경우 등이 발생
- 반면, 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자(7세 이상), 조기입학 희망 아동(5세)가 본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모두 초등학교 입학생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첫걸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성이 약해지고 아동수당(7세 미만)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설정

- 하지만 첫걸음 문화카드가 법적 용어가 아닌 행정적·사업적 명칭으로만 사용되며 첫걸음 문화카드 전담기관 선정 시 법조항 신설이 다시 필요해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 법령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과 아동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생략)	② (생략)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 및 아동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및 아동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현행	개정
〈신설〉	제23조의3(아동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제23조의4 (초등학교 입학생 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 령 제23조의3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1~4. (생략) 〈신설〉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한 재학증명서 등의 자료

- ※ 초등학생이 보호기관에서 있어 1명의 보호자(혹은 대리인)가 다수의 입학생을 보호·관리하는 경우의 방안 검토
- ※ 첫걸음문화카드를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아동수당의 경우, 대리인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 취학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쓰지 않는 이유
 - 취학통지서를 받고 입학을 하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사업의 대상을 연령이 아닌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정의한다면 초등학교에 재학이 확인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첫걸음문화카드의 사용기간은 입학년도 3월~다음해 2월이 되는 것이 타당함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규칙	
현행	개정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② (생략)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p>③ <u>령 제23조의3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X호 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p>1. 영 제23조의3 제2호, 제 5호에 따른 자료</p>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의무취학 연령의 아동 : 당해 학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인 아동
 조기입학 신청자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록된 아동
 전년도 취학유예자(입학연기자)로 취학아동명부에 등록된 아동
 만 3세~만 17세(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내 첫걸음 문화카드 조항을 신설할 경우

- 문화이용권과 첫걸음 문화카드를 별개로 설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기존 문화이용권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추가함
- 조항을 신설할 경우 첫걸음 문화카드가 법적 명칭으로 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다른 전담기구 지정에 유리함
- 하지만 신규조항 신설 시 기존의 문화이용권과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유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법령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u>“첫걸음 문화카드”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u>
〈신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의5(첫걸음 문화카드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첫걸음 문화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첫걸음 문화카드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첫걸음 문화카드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첫걸음 문화카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현행	개정
〈신설〉	제23조의6(첫걸음 문화카드 지급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첫걸음 문화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의7(첫걸음 문화카드 지급에 필요한 자료) 첫걸음 문화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의8(첫걸음 문화카드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전담기관은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첫걸음 문화카드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육성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4.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첫걸음 문화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첫걸음 문화카드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설〉	제23조의9(첫걸음 문화카드 발급 등) ① 첫걸음 문화카드 는 ○○○이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첫걸음 문화카드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규칙	
현행	개정
〈신설〉	제7조(첫걸음문화카드의 발급신청) 첫걸음문화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 서식의 첫걸음문화카드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령 제23조의8에 따른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첫걸음문화카드의 발급) ○○○는 제7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첫걸음문화카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첫걸음문화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2. 첫걸음문화카드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첫걸음문화카드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설〉	제9조(첫걸음문화카드의 재발급) ① 첫걸음문화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첫걸음문화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첫걸음문화카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7조제X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X항제X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첫걸음문화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X호서식의 첫걸음문화카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7조제X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X항제X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방안

1. 사업추진 방법

-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대응 및 수혜대상 반응 분석을 통한 보완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한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효율적임
- 시범사업 운영시 시·군 단위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1곳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1곳을 선정하여 지역별 다양한 사업 결과를 통해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시범사업 기간 중 사업운영 추진체 구성,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이 수행되어야 함

〈표 96〉 첫걸음 문화카드 시범사업 연간 사업추진 일정

시기	내용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점검 • 신청기관 대상 발급관리 교육 • 홍보물 제작배포(포스터, 리플렛, 영상) • 사업 홍보를 위한 캠페인 진행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걸음 문화카드 발급 시작 • 입학식 등 주요 학교행사를 활용한 사업 안내자료 배포
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발급률 점검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현장 모니터링(가맹점 관리)
다음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걸음 문화카드 발급 종료(01.31) • 첫걸음 문화카드 이용 종료(02.28)

2. 사업관리 방안

가. 사용 관리 및 성과평가

1) 카드사용 관리

- 첫걸음 문화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문의가 가능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카드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함
- 고객지원센터는 콜센터와 온라인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모든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도울 수 있음
- 고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첫걸음 문화카드 발급·이용 문의, 시스템 이용 문의, 사업운영 관련 사용자 의견 수렴, 부정사용 신고 등이며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2)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 첫걸음 문화카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해 정기적 성과평가 및 수시 모니터링의 시행이 필요함
- 성과평가는 정기적으로 사업 주관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이 함께 시행하며 사업 이용률, 사용자 만족도, 가맹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
- 현장 모니터링은 지역별 카드 발급 실적 모니터링, 정기·수시 가맹점 현장 점검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시행함

〈표 97〉 성과평가 방법

구분	내용
성과평가 방법	• 발급률, 이용률, 사용자 만족도, 가맹점 현황 조사
성과평가 대상	• 사업시행 지역
성과평가 횟수	• 연간 1회
성과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걸음 문화카드 시스템 통계 분석 • 수혜자 설문조사, FGI 시행 • 기관 관계자 및 가맹점주 인터뷰 • 현장평가 등

나. 가맹점 및 부정사용 관리

1) 가맹점 관리

- 첫걸음 문화카드 누리집을 통해 전국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가맹점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함
- 위치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 현재 위치의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
-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률 분석, 성과 평가, 수혜대상 희망 사용처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 가맹점의 확대 추진
-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시설의 발굴을 통해 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함
- 가맹점과 담합한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정기·수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효과적 사업 운영을 위한 가맹점주 대상 교육을 진행함

2) 부정사용 관리

- 첫걸음 문화카드의 부정사용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비수혜대상의 카드 사용 문제임
 - 수혜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 1인과 보호자 1인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 친인척, 지인 등의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한편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 사례로 나타났던 가맹점과 담합하여 카드 결제 후 현금화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표 98〉 부정사용 사례

부정사용 내용	예시
비수혜대상의 카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 A가 비수혜대상인 B에게 카드를 대여, 양도, 판매하는 경우
부정 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혜대상인 A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 B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아동 지원비용의 보호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대상 부모가 부모 대상 지원금액 10만원을 모두 소진 후 아동대상 지원금액 10만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문화예술활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과 담합하여 현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대상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실제 관람은 하지 않고 가맹점주와 담합하여 일부 비용을 수수료로 제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 부정사용 방지 방안

-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시 회당 결제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수혜대상 2인을 제외한 타인의 동시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 공연·전시·영화 관람 시 아동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카드사용을 허용한다면 아동의 비용을 성인이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카드 사용내역을 안내문자로 발송하여 부정사용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적발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부정사용에 대한 가맹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함
- 첫걸음 문화카드 발급 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사용의 문제점과 적발 시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함
-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카드사용 정지 및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해당 가정은 첫걸음 문화카드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음

3. 홍보 방안

가. 사업 타당성 및 인지도 제고 방안

1) 아동 문화예술활동 권리 캠페인 시행

- 초등학교 1학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정연령·보편적 지원형태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함
-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아동의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제시하며 ‘문화가 있는 학교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이 초등학교 생활과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 이벤트 개최, 공모전 진행 등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함



자료 : 보건복지부·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6), 우리에겐 놀 권리가 있어요

[그림 28] 유사사례 : 아동의 놀 권리 캠페인

2) 아동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 시행

- 초등학교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의 즐겁게 놀 권리, 즉 문화 예술활동 권리 보장에 대한 타당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만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분석은 부재함
- ‘아동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해 만15세 미만 국민(만15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종류, 횟수, 지출비용,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아동의 문화향수실태를 바탕으로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지속적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카드 신청·이용률 제고 방안

1) 아동 관련 기관을 통한 사업 홍보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1월), 입학식(3월) 등 학부모가 방문하는 주요 시기를 활용 홍보물 배포
- 입학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업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예비 수혜대상에 사전에 사업 신청 정보를 제공
- 맘카페, SNS 중심 바이럴 마케팅 등



자료 :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누리집

[그림 29] 홍보 리플렛 예시(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2) 사용자 참여를 통한 홍보 효과 확대

- 사용 시기 공모전을 통한 사업 성과 공유 및 사업 발전방안 모색
- 인스타그램에 카드 사용 인증 사진을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SNS 이벤트 진행



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http://www.mnuri.kr>)

[그림 30] 통합문화이용권 이벤트 사례

3) 분기별 사용유도 안내문 발송

- 카드 지원금 전액 소진을 위하여 분기별 사용 촉진 안내 문자 발송
-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가맹점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를 대비하여 카드 발급 시 가맹점 정보가 수록된 안내 책자 제작배포

4) 부처 협력 및 문체부 타 사업 연계 홍보

- 교육부, 보건복지부 아동 대상 지원사업과 연계 홍보
-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과 연계 홍보

〈표 99〉 시기별 홍보일정(안)

시기	내용
사업 시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문화예술활동권리 캠페인 시행 • 홍보물 제작(영상물, 포스터, 리플렛, 기념품 등) •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주민센터 등 기관별 홍보물 배포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식 시기 홍보 강화
사업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대상 SNS 이벤트 시행 • 방학 기간 활용 사업 홍보 강화 • 사용 후기 공모전 진행 • 잔여 사용금액+사용기간 안내문자 발송
사업 종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사용금액+사용기간 안내문자 발송
사업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평가, 수혜대상 설문조사

V. 첫걸음 문화카드의 효과 및 제언

제1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사업시행 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

제1절 사업의 기대효과

1. 문화예술향유 기반 조성

□ 가족 단위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사회 전반의 문화예술향유 확대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 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은 최소 1년 동안 비용의 부담 없이 또는 적은 비용으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함
- 문화예술활동비용의 지원은 평소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가정에는 기존 활동보다 더 많은 횟수, 더 다양한 분야로 문화예술활동의 확장을 유도하며 경제적 여건, 보호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문화예술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던 가정의 아동에게는 문화예술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아동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호자, 다른 가족 구성원과 동반하는 형태이므로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을 통한 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는 곧 가족 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로 발전 가능함
- 수혜대상의 활동 특성을 고려한다면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은 직접 수혜대상뿐 아니라 수혜대상의 가족구성원에게 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확장된 사회 전반의 문화예술향유를 가능하게 함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2020년 연간 사업 수혜대상은 43만 6천명 \times 2(아동+보호자) = 87만 2천명으로 예상되지만 수혜대상이 모든 가족 구성원과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2.5인 가구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가구원 수 2.5명/‘17년 KOSIS) 실제 활동 인구는 10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전 생애 문화예술향유의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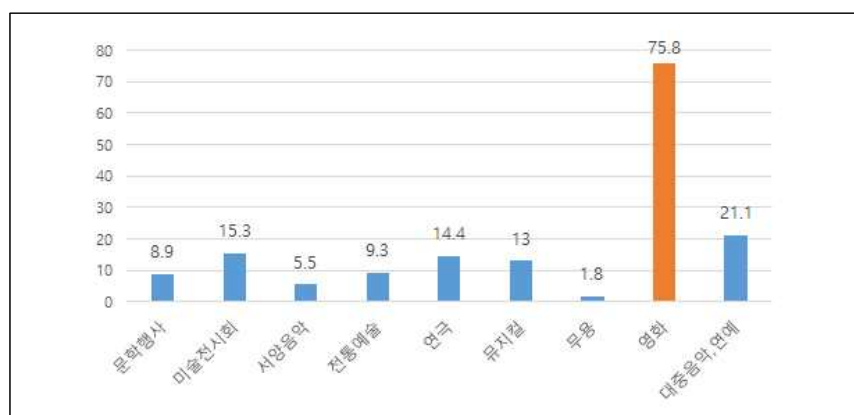
- 어린시절부터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을 쌓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활동습관을 가질 수 있음

- 유소년기, 중고등학교 시기 그리고 최근에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 참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증명하며 연간 500유로의 문화예술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럽의 청소년 문화패스 정책 역시 청소년기부터 문화활동의 습관을 길러 줌으로써 국민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사례임
- 보호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아동의 문화예술 취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어 아동이 성장한 이후 독자적 문화예술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면 문화예술의 향유가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인식을 아동기부터 정립 가능함
- 단순히 1년 동안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보여지나 이 사업은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문화예술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향유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국민 문화예술활동 편중 문제 개선

□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중심의 국민 문화예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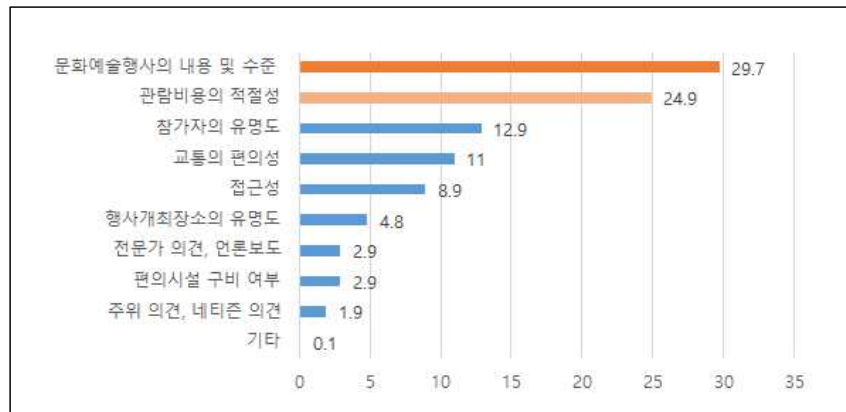
-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2018년 국민 연간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은 영화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역시 영화가 평균 4.0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하지만 연극, 뮤지컬, 무용의 관람률은 각각 14.4%, 13.0%, 1.8%로 영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연간 관람횟수 역시 0.3회, 0.2회, 0.03회로 평균 1회도 되지 않아 현재 국민 문화예술활동에서 공연 관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 2018년 연간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

- 관람비용의 규모는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종류의 대부분이 영화 관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관람비용과 높은 접근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FGI 조사에서도 평소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중 영화 관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람비용과 접근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2] 문화예술행사 선택 시 고려사항

□ 문화예술활동 편중 문제 개선 기대

-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연간 20만원의 활동금액이 지원된다면 기존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에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평소에 관람하기 어려웠던 고액의 공연 관람 등으로 문화예술활동 분야의 확장이 가능함
- 설문조사 결과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1위는 공연 관람이었고 FGI 조사에서도 첫걸음 문화카드를 지원받을 경우 평소 관람료가 비싸 자주 보기 어려운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는 의견이 1순위로 도출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⁷⁾의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상향 효과 분석 결과 지원비용이 높아질수록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의 도서와 영화 소림현상이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이용단가가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사용행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므로 첫걸음 문화카드로 문화예술활동 비용이 증가할 경우 영화 관람 중심에서 공연, 전시 관람 등으로 편중된 국민문화예술 관람 실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7) 통합 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 아동 문화예술활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 아동기 문화예술 향유가 중요하다는 것에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은 의식주의 보장과 같은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함
-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보육지원, 교육지원, 생활지원 등이 중심이며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대부분임

〈표 100〉 아동 지원정책별 특징

사업명	대상	내용	분야
만 0~5세 보육료 지원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보육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보육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보육
가정 양육수당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돌보는 만 6세 이하 영유아	월령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	보육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보육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교육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연간 10만원의 바우처	건강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보육
통합문화이용권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8만원의 문화예술활동비용 지원	문예체

- 만약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활동비용이 지원된다면 문화예술활동도 보육, 교육, 생활지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증명하는 것임
- 특히 첫걸음 문화카드는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권리임을 나타낼 수 있음

4. 아동의 정서발달 및 공동체 적응에 기여

- 첫걸음 문화카드는 같은 학급 내 모든 아동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거나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공유는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변화하는 초등학교 공동체 적응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의 절대적 영향 속에서 사회화를 학습하는 영유아기를 지나 친구, 교사 등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본격적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험은 아동의 사회화 정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므로 초등학교 시기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수성, 창의성 등에 대한 자극은 다른 시기의 자극보다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표 101〉 문화예술활동이 아동의 정서발달 및 공동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정서발달	인적관계	공동체 적응 및 사회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 정서적 안정감 • 발산적 사고 •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 • 자신감 획득 • 활발하고 밝아진 성격 • 자발성과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수용도 • 보호자와의 친밀감 • 타인 배려 • 협동협력 •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 함께하는 즐거움 알기 • 가족 유대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 사회적 신뢰 • 소속감·유대감 • 공동체 참여행동 • 사회자본 형성 • 공동체 규범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자료 활용

5.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의 공급 및 소비 활성화 기여

- 카드 사용에 따른 지역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기대됨
- 설문조사 결과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함
-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동 대상 문화예술콘텐츠의 제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동 공연 기획자 및 문화예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에서도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시행 시 아동 문화예술시장의 확대를 예상함
- 특히 첫걸음 문화카드의 적정 사용처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연 관람 분야가 1위로 도출되었고 FGI에서도 희망 사용처 1순위를 공연 관람 분야로 응답해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시행 시 아동 공연 분야의 소비 증대가 기대됨



자료 : 본 연구 설문조사

[그림 33]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아동 문화예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좌),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우)

□ 첫걸음문화카드 지출에 따른 효과 추정

- 2017년 재정패널조사의 가계지출 중 문화생활비 연간지출비를 기준으로 본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금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검토함
- 재정패널조사(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정책 수립의 실증자료 수집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실시한 조사임
 - 2017년 재정패널조사의 기준시점은 2016년 1월~12월간의 1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5,63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재정패널조사에는 문화·체육·반려동물 관련 지출비(연간)가 있으며 첫걸음 문화카드와 연관된 지출로는 박물관, 공연, 영화 관람료(h1-2)가 포함되어 있음
 - 이외에 관련있는 질문인 서적·음반·DVD 등 구입 및 대여료(h1-1), 체육·음악·문화 활동비 지출(수강료, 동호회비 등 포함)(h1-6), 음악·문화 활동비(수강료, 동호회비 등)(h1-7) 등은 본 연구의 사용처 설정에 따라 제외함
- 2017년 재정패널조사에서 문화생활비는 해당가구는 51.8%, 16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가구 평균금액으로는 83천원으로 조사됨

〈표 102〉 재정패널 문화생활비 항목별 평균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적/음반 구입비 (h1-1)	관람료 (h1-2)	경륜/ 경정경마 (h1-3)	복권구입 (h1-4)	신문 /잡지정기구독 (h1-5)	체육활동비 (h1-6)	음악 /문화활동비 (h1-7)	반려물 지출비 (h1-8)
해당가구 비율	37.9	51.8	.0	13.9	6.6	15.5	5.3	6.7
해당가구 평균금액	31.2	16.2	12.5	19.0	18.0	114.1	84.0	57.5
전체가구 평균금액	11.7	8.3	—	2.6	1.2	17.5	4.4	3.8

- 재정패널조사의 표본집단에서 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구성원 중 8세인 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분리하여 문화생활비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 140가구의 문화생활비는 201천원, 해당 가구 평균 지출액은 145천원임
- 본 사업으로 대상가구에 20만원의 문화생활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현 지출액인 145천원은 지원금에서 소진될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 최소 55천원(지원금액의 27.5%)이 추가 문화 지출액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함
- 따라서 지원금액 중에서 최소 55천원이 시장규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총 사업비(지원금) 84,152백만원의 지원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문화예술시장(박물관, 공연, 영화관람) 규모는 23,106백만원으로 추정됨

〈표 103〉 첫걸음문화카드 지원에 따른 문화예술 신규시장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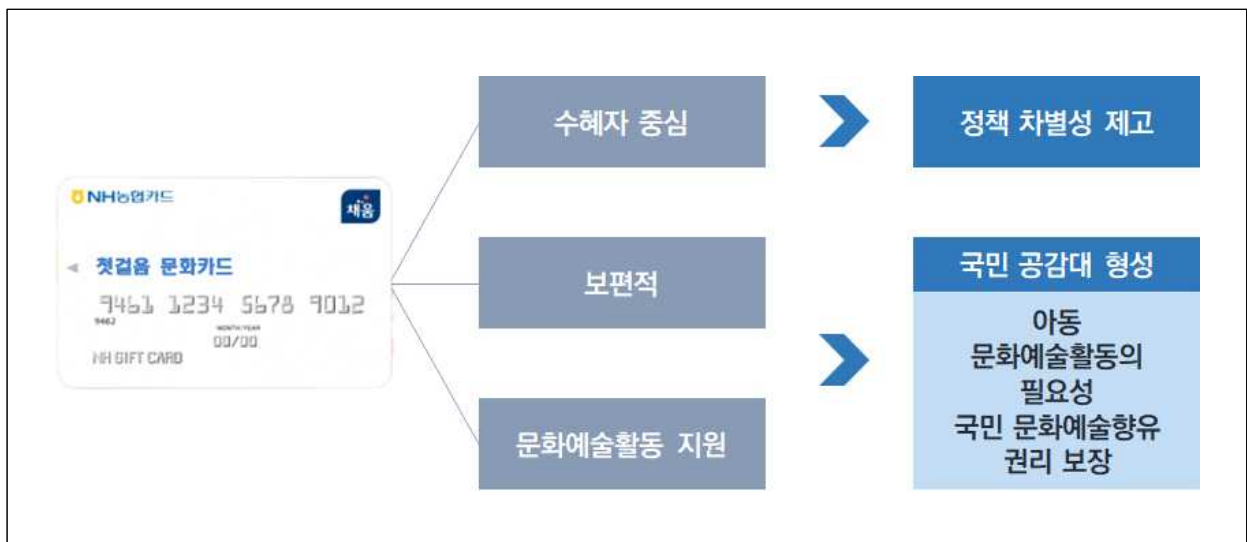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혜대상자수		420,759	423,822	392,076	347,074	391,537
지원금	20만원	84,152	84,764	78,415	69,415	78,307
추가지출액	55천원	23,106	23,274	21,530	19,059	21,501

- 본 추정에 따른 해석은 2가지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비의 하방경직성에 근거한 점. 다시말해 수혜대상 가구가 본 정책을 통해 지출한 소비금액(145천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나 소비가 일정부분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년도 지출은 그대로 유지할거라 가능성을 가정함
- *소비의 하방경직성 : 소비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등은 고정지출과 같아 갑자기 줄이기 어려움. 본 사업대상의 지원정책은 부모입장에서는 일종의 교육비 성격을 띠고 있기에 교육비로 볼 수 있음
- 둘째, 재정패널조사 문화생활 지출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박물관, 공연, 영화 등의 세부항목을 분리하여 할 수 없다는 점. 설문항목에 “귀 가구가 지출한 문화생활비는 총 얼마입니까”, “h1-2. 박물관/공연/영화 관람료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6. 정책 상징성 제고

- 기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은 프로그램 제공 중심의 공급자 위주 정책이며 통합문화이용권과 같이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직접비용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으로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문화예술활동의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차별성과 상징성을 갖게됨
- 따라서 사업시행 시 국민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의 필요성과 문화예술의 향유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임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음
- 따라서 첫걸음 문화카드는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문화가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적·사회적 기반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4] 첫걸음 문화카드의 정책적 효과

제2절 사업시행 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

1. 효과적 사업시행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아동기 문화예술의 영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책 캠페인 진행

- 첫걸음 문화카드가 문화예술활동비용 보편적 지원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 지원연령, 보편적 지원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첫걸음 문화카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지원연령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의 영향 및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아동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해야 함
- 아동 문화예술활동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다양한 홍보물 제작, 설문조사,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

□ 초등학교 1학년의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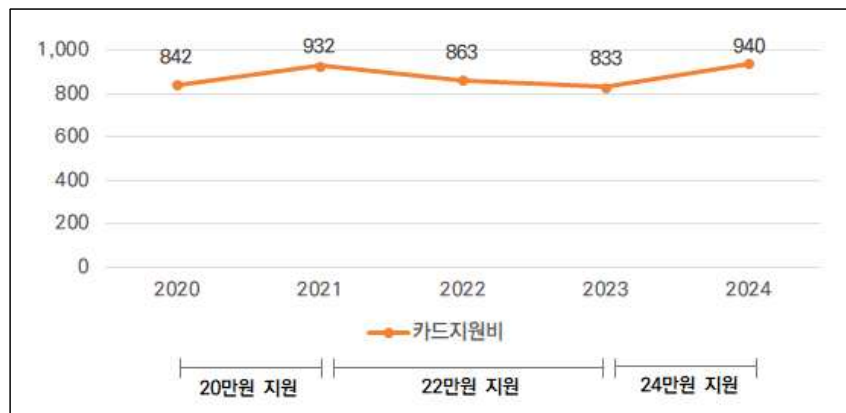
-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특정연령에 수혜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새로운 공동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부담감 해소 필요, 가정을 벗어난 첫 번째 사회화 시기의 중요성, 문화예술의 수용도가 가장 높고 문화적 순수성이 남아있는 시기적 특성, 초등학교 학년 중 아동과 부모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시기, 대형·순수예술 관람의 시작으로 아동 특화공연에서 확장된 범위의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시기 등 초등학교 1학년이 갖는 시기적 특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수혜대상 연령의 타당성을 마련함

2. 수혜대상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사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드지원비 역시 2020년 842억원에서 입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23년은 694억원까지 약 148억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수혜대상 인구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방안 1 : 지원금액 확대

- FGI 결과 월 최소 1만원의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지원비용을 확대하여 감소된 카드지원비를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금액은 2020년 20만원에서 2021년 22만원, 2023년 24만원까지 지원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2021년 932억원, 2024년에는 940억원의 카드지원비 지출이 예상됨



[그림 35] 1인당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카드지원비 총액 추계

□ 방안 2: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

- 첫걸음 문화카드 특화프로그램 기획·공모를 통해 우수 공연·전시 단체의 프로그램 제작·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 고려
- 이와 같은 지원은 문화예술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문화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아동 문화예술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걸음 문화카드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사업 홍보에 효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접근성 문제, 부대비용 부족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지역 및 가정에 차량대절 등 부대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

3. 카드 신청률 및 이용률 제고

□ 정보 부족에 따른 신청누락 방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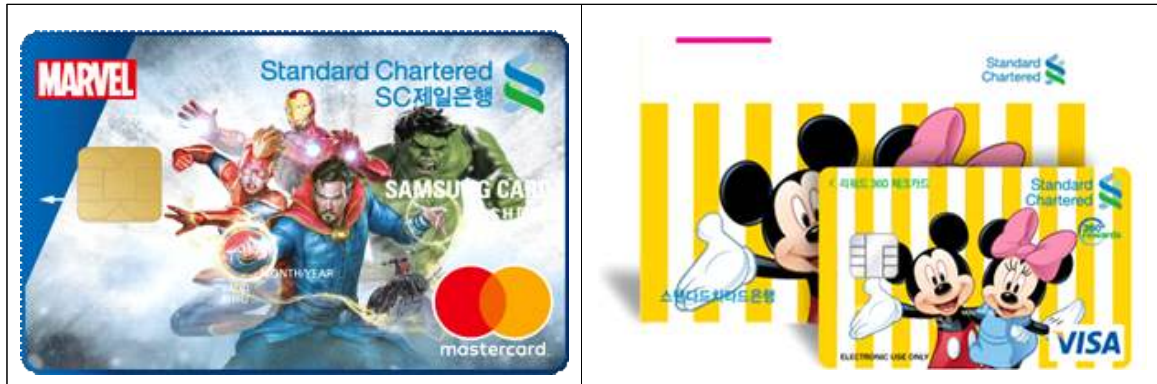
- 어린이집·유치원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물을 배포하여 예비수혜대상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누락률을 감소시킴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는 예비소집일, 입학식 등 주요 시기에 안내물을 배포하고 입학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 신청정보를 전달함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홍보 채널, 맘카페, SNS 등에 사업 정보 및 신청을 촉진하는 홍보물을 게시함

□ 할인혜택, 사용처 발굴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실력 있는 지역 소규모 문화예술시설·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혜대상 설문조사,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용 분야를 확대
- 첫걸음 문화카드가 선불식 포인트카드로 발급될 경우 포인트 소진 후 개인금액 충전 시 할인혜택을 받는 방안, 신용체크카드 겸용 포인트카드로 발급될 경우 연회비 면제뿐 아니라 가맹점에서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와 협의
- 전국 문화예술 프로그램(가맹점) 정보를 안내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혜대상의 편의 제고 및 이용 확대 유도
- 문화소외지역의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여 문화예술단체와의 지역 간 매칭을 통해 방문 공연 추진 가능

□ 아동 친화적 카드 디자인을 통한 발급률 제고

- 카카오페이 카드, SC제일은행 디즈니 체크카드 등과 같이 유명 애니메이션, 인기 캐릭터로 디자인된 카드발급을 통해 아동의 카드 선호도를 높임
-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일종의 기념품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추가 카드발급에 대한 부담감 감소



자료 : SC제일은행 홈페이지(<https://open.standardchartered.co.kr>)

[그림 36] SC제일은행 마블, 디즈니 카드

4. 문화소외지역 인프라 구축

□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의 문제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지역에 관계없이 첫걸음 문화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하지만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활동비용이 지원되더라도 지방에서는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FGI에서도 지방의 경우 문화예술시설은 존재하지만 아동 대상 프로그램 공급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됨

- 문화예술기관 담당자
 - 지방도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시설은 대부분 조성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매우 부족함
 -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무료, 저렴한 공연이 많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경상권 FGI 참가자
 - 지역에 문화예술시설은 있지만 아동 대상 공연·전시가 매우 부족하고 서울·경기권에 비해 공연의 질이 낮음
- 전라권 FGI 참가자
 - 서울에 비해 문화예술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서 관람하며 공연의 음향, 의상 등이 서울과 큰 차이가 남

□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확대

-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첫걸음 문화카드 수혜대상이 카드 지원금액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필요함
- 거동이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보호자와 아동이 장애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거나, 문화소외지역의 첫걸음 문화카드 소지자 대상 주요 문화예술시설을 이동하는 ‘첫걸음 문화카드 셔틀버스’ 운영 검토

〈표 104〉 문화예술시설 이동 셔틀버스 운영사례

구분	내용
 <p>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 내용 : 용산구의 주요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 대상 : 용산구 문화시설 및 보건소 이용자 • 비용 : 무료 • 노선 : 총 5개 노선(동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전쟁기념관, 어린이공원 등)
 <p>Bravo Bus 탄생! 양재우면, 방배, 서초, 잠원반포 4개 권역 운영 서초 내 문화시설 수강증이나 접수증 지참 시 무료로 이용 가능</p> <p>서초구문화버스 Brav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서초구 문화버스 • 내용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대상 주요 문화시설을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 대상 : 서초구 내 문화시설 수강생 • 비용 : 무료 • 증빙 : 문화시설 수강증, 접수증 • 노선 : 총 4개 노선 운영(양재우면, 방배, 서초, 잠원·반포)

자료 : 용산구청 인터넷 방송 블로그(<https://blog.naver.com/yongsanitv>),
서초구청 누리집(<http://www.seocho.go.kr/site/seocho>)

- 전문가, 수혜대상 의견조사 결과 문화예술시설은 있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도출, 문화소외지역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를 파견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급 및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활성화시켜야 함

- 또한 기존 지자체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첫걸음 문화카드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소비와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

5. 지속적 사업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평가 및 규모 확대

- 사업 성과평가, 수혜대상 설문조사 등 사업의 문제 진단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연차별 지원금액 증액, 사용처 추가 발굴 활성화 등으로 점진적 사업 규모의 확대 추진

〈표 105〉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성과평가(안)

구 분	내 용
평가기관	• 외부 평가전문기관
평가대상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운영 총괄
평가방법	• 서면/현장평가, 인터뷰, 수혜대상 설문조사, 종합 효과 평가 등
평가지표	•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전달체계 운용 효율성, 예산집행관리 합리성, 수혜자 만족도 등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걸음 문화카드 주요 실적 평가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인지도 조사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만족도 조사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파급효과 분석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

□ 지원 종료 후 문화예술활동 보완

- 수혜기간 종료 후 지원 단절에 따른 아동의 상실감 보완 필요
- 1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율적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하고 카드사, 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종료 후에도 첫걸음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참고문헌〉

□ 학술문헌 및 정책자료집

- 고제아·고경표(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규 외(2018),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맹영임(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보연(2013),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의 효과 연구」, arte[365].
- 박영정(2015), 「초중등학교 예술체육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보건복지부·사단법인 아동단체협의회(2016), 「우리에게 놀 권리가 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만논평 NO.17.
- 서명주 외(2010), 「해외 문화관광체육 할인/바우처 제도」.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염유식(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한국방정환재단.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자료집①.
- 임영식 외(2018), 「2018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지연(2009), 「한국 아동·청소년활동·문화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훈(2015), 「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일철 외(2007),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복지재단.
- 최보연(2016), 「유소년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연구(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기술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 Arts Council England and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2012), *A Night Less Ordinary-Evaluation 2012*.

- 교육부(2018), 「2018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성북구(2018), 「2018년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계획」.

□ 보도자료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2018. 5. 1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Il “bonus cultura” per i diciottenni è stato confermato dal governo’(2018.11.26.), 「ilPOST」.
- ‘Il governo rinnova il bonus cultura per i 18enni, ma ecco cosa cambia’(2018. 12. 17.), 「TPINEWS」.
- ‘Pass culture pour les jeunes : les achats seront plafonnés selon les catégories’(2018.9.5.), 「Le Monde」.
- ‘500 euros pour sortir ou découvrir: le Pass Culture entre en scène’(2019.2.9.), 「LA CROIX」.

□ 홈페이지

- 강서구 꿈-IN카드(<https://gs.purmee.kr>).
- 국민행복카드(www.voucher.go.kr).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https://comwel2009.blog.me>).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서초구청(<http://www.seocho.go.kr/site/seochcho>).
-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https://sb.purmee.kr>).
- 세종시 진로체험카드(<https://sj.youthcard.kr>).

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아동수당(ihappy.or.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https://ys.purmee.kr>).

용산구청 인터넷 방송 블로그(<https://blog.naver.com/yongsanitv>).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인터파크 티켓예매(<http://ticket.interpark.com>).

재정패널조사(<http://panel.kipf.re.kr>).

통합문화이용권(<http://www.mnuri.kr/munhwa>).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a night less ordinary(<http://anightlessordinary.org.uk>).

ESSEN시(<https://www.essen.de>).

SC제일은행(<https://open.standardchartered.co.kr>).

18app(<https://www.18app.italia.it>).

4차산업혁명위원회(www.4th-ir.go.kr).

부록

1. 설문조사지
2. FGI 녹취록

1. 설문조사지

설문지 No.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으나 시간을 내시어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첫걸음 문화카드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을 발표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 중 ‘첫걸음 문화카드’를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첫걸음 문화카드(안)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8세) 및 보호자에게 문화카드(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문화예술에 친근해지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카드는 전국의 공연·전시·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동에게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인재가 될 아동의 문화적 소양을 쌓고 지역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대	① 10~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거주 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자영업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	⑨ 기타 ()		
가계 월 소득수준	① 200만원 이하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500만원	⑤ 500~600만원	
	⑥ 600~700만원	⑦ 700~800만원	⑧ 800~900만원	⑨ 900만원 이상		

자녀 현황

자녀 번호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동거 여부	부모가 아닌경우
1	① 남 ② 여	① 2016년생 ④ 2013년생	② 2015년생 ⑤ 2012년생	③ 2014년생 ⑥ ()년생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조부모 ② 친인척 ③ 기타 법적보호자
2	① 남 ② 여	① 2016년생 ④ 2013년생	② 2015년생 ⑤ 2012년생	③ 2014년생 ⑥ ()년생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조부모 ② 친인척 ③ 기타 법적보호자
3	① 남 ② 여	① 2016년생 ④ 2013년생	② 2015년생 ⑤ 2012년생	③ 2014년생 ⑥ ()년생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조부모 ② 친인척 ③ 기타 법적보호자
4	① 남 ② 여	① 2016년생 ④ 2013년생	② 2015년생 ⑤ 2012년생	③ 2014년생 ⑥ ()년생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조부모 ② 친인척 ③ 기타 법적보호자

각 문항의 응답 가운데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소비현황

※ ‘문화예술활동’은 공연, 전시, 영화, 문화체험 등 1회성 관람 활동을 말합니다. (미술 음악학원 등 교육 수강과는 구별)

1. 귀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1년에 몇 회입니까? (아동 1인 기준)

- ① 0회 ② 1~5회 ③ 5~10회 ④ 10~15회 ⑤ 15회 이상

2. 귀하의 가정에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으로 지출하는 연간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동 1인 기준)

- ① 0~10만원 ② 10~15만원 ③ 15~20만원
④ 20~25만원 ⑤ 25만원 이상

3. 귀하의 가정에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총 부대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동 1인 기준, 부대비용 :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 ① 0~10만원 ② 10~15만원 ③ 15~20만원
④ 20~25만원 ⑤ 25만원 이상

4.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주로 동반하는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④ 교사
⑤ 전문인술자 또는 에듀케이터 ⑥ 기타()

5. 평소 아동이 즐기는 주요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 ④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참여(문화센터, 테마파크 등)
②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⑤ 기타()
③ 영화 관람

6. 이 중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 ④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참여(문화센터, 테마파크 등)
②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⑤ 기타()
③ 영화 관람

7. 귀하는 아동에게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한 적정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5~7세) ② 초등학교 입학생(8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④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⑤ 기타()

8. 귀하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9. 귀하는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창의적 사고 및 감수성 개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회관, 방과 후 활동, 학원·교습소, 문화센터 등의 교육 수강을 말합니다.

※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회관, 방과 후 활동, 학원·교습소, 문화센터 등의 교육 수업을 말합니다.

10. 귀하의 가정에서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② 학교 방과 후 활동 ③ 학원, 교습소
④ 문화센터(백화점·마트) ⑤ 기타()

11. 귀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은 한 달에 몇 회입니까? (아동 1인 기준)

- ① 0회 ② 1~5회 ③ 5~10회 ④ 10~15회 ⑤ 15회 이상

12. 귀하의 가정에서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비로 한 달에 지출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동 1인 기준)

- ① 0~10만원 ② 10~15만원 ③ 15~20만원
④ 20~25만원 ⑤ 25만원 이상

13.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에 주로 동반하는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 ① 없음 ② 부모 ③ 조부모 ④ 친인척 ⑤ 교사
⑥ 전문인솔자 또는 에듀케이터 ⑦ 기타()

14. 평소 아동이 참여하는 주요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음악(악기, 성악, 판소리 등) ④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
② 미술, 서예 등 ⑤ 공예, 건축, 요리 등
③ 무용(발레, 한국무용, 방송 댄스 등) ⑥ 기타()

15. 이 중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음악(악기, 성악, 국악 등) ④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
② 미술, 서예 등 ⑤ 공예, 건축, 요리 등
③ 무용(발레, 한국무용, 방송 댄스 등) ⑥ 기타()

16. 귀하는 아동에게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적정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5~7세) ② 초등학교 입학생(8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④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⑤ 기타()

17. 귀하는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8. 귀하는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이 창의적 사고 및 감수성 개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업구조

19. 귀하가 생각하시는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적정 지원 연령은 몇 세입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5~7세) ② 초등학교 입학생(8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④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⑤ 기타()

20.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과 학부모에게 첫걸음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②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 20-1번 문항으로

→ 20-2, 20-3번 문항으로

20-1.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보편적 권리

④ 대상자 선별 시 행정비용 발생

② 타 수당제도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

⑤ 선별지급에 따른 위화감 조성 방지

③ 기타()

20-2.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소득층은 지원 없이도 문화예술활동 가능

② 과도한 예산 사용에 따른 사회부담 증가

③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 우선

④ 기타()

20-3.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지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지급

② 모두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③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동일금액 지급

④ 기타()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2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첫걸음 문화카드의 연간 적정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아동 1인+학부모 통합금액)

① 10만원

② 15만원

③ 20만원

④ 25만원

⑤ 30만원 이상

2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 금액으로 연간 20만원(아동 1인+학부모 통합 금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간 20만원의 문화카드(문화예술활동비)가 지원된다면 아동과 함께 전액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능하다 → 22-1번 문항으로

② 가능하지 않다 → 22-2번 문항으로

22-1.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 | ⑥ 관람료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위주 소비 가능 |
| ②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 | ⑦ 아동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 ③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아동의 높은 관심 | ⑧ 아동기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 이해 |
| ④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⑨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의 부족 |
| ⑤ 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다수 분포 | ⑩ 기타() |

22-2.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평소 아동과 문화예술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 ⑥ 무료 또는 저렴한 시설이 많아 비용소진 어려움 |
| ② 아동기 문화예술활동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 | ⑦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
| ③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아동의 관심 부족 | ⑧ 문화예술활동보다 우선되는 활동이 많기 때문 |
| ④ 시간적 여유가 없음 | ⑨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만으로 충분하기 때문 |
| ⑤ 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 부족 | ⑩ 기타() |

23. 지원 방식은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크·신용카드(개인충전 가능) ② 온라인 쇼핑몰(포인트) ③ 기타()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

24.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는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①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 등 공연 관람 | ⑦ 문화상품 구입(공예품, 한자한복 등 전통공예품 등) |
| ②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관람 | ⑧ 사진관 |
| ③ 영화 관람 | ⑨ 문화예술 분야 학원·교습소(미술·음악학원 등) |
| ④ 문화예술 프로그램(문화센터 등) | ⑩ 공예·공방 |
| ⑤ 도서 구입 | ⑪ 기타() |
| ⑥ 음반·악기 구입 |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

25. 다음은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	해당 부분에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첫걸음 문화카드가 아동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② 첫걸음 문화카드가 지역 문화예술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③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권역별 FGI 녹취록

□ 서울·경기권 FGI

- 일시 : 2019.01.15.(화) 13:00~15:00
- 장소 : 서울역 KTX 3회의실
- 참석 : 5~7세 아동을 둔 부모 4명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표 106〉 서울·경기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자녀(연나이)
서울·경기권	A	여	30대	자영업	7살
	B			주부	5살
	C			사무직	5살, 8살
	D			전문직	4살, 7살

*주 : 주관기관((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A, B, C, D : 응답자

주 : 첫걸음 문화카드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1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연간 총 20만원에 대한 문화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전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임.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림

A :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함.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다니기에 1학년이 시간이 가장 여유로움

B :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고 봄. 유치원에서는 보통 특별활동을 하면 4~5시에 하원하는데,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을 신청하고 싶어도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방과후 수업도 수업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으로 뛰놀게 하고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것을 원함. 5~7세는 유치원에서 특별한 활동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말에 신경을 덜 써도 되지만 초등학교는 활동기회가 부족함. 또한 이른 하교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학원을 가거나 방과후 활동하는 것 밖에 없음. 초등학교 시기 부터는 아동의 활동을 부모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함

B : 초등학교 1학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주 : 현재 계획은 초등학교 1학년만임

B :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많이 따라다니지 않지만, 1~3학년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가 항상 따라다니며 함께 활동하는 시기임. 1년 동안의 지원 및 활동은 조금 짧다고 느껴짐. 지원 기간을 1~2학년, 또는 1~3학년까지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C : 1년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한 연령이라고 생각함. 다만 1년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범위를 앞뒤로 늘리기를 희망함. 1인 10만원의 지원금액은 많다면 많지만 하루에도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금액임. 예를 들어 3만원짜리 뮤지컬을 본다면 3번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1년에 10만원이 조금 적다고 느껴짐.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대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봄

D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과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은 확정이 된 것인지?

주 :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아동 10만원과 보호자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임

D : 큰아이가 10살인데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가 생활이 변화하면서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짐. 소득수준에 맞춰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나서 느낀 것이 아이들 간 가장 차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문화임. 문화예술을 많이 접해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차이가 남

초등학교 1학년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7살 때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해주는 문화행사가 많음. 오히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문화예술활동에서 동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음

주 :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활동이 많은지

B : 매우 많고 부모가 선택해서 보낼 수 있음. 숲 유치원도 있고 특별활동이 많은 유치원도 있음. 어린이집도 매우 다양함

주 : 그 활동비는 별도로 지불하는지 유치원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함

B : 별도임

C : 병설과 사립유치원이 다름

B : 저희 아이는 병설을 다녀서 잘 모르지만 주위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세 아이 기준 원비가 25~30만원 정도이고 나이가 들수록 원비가 올라서 6세는 35만원 정도임. 학기마다 교구비 등 50~100만원 정도 추가로 나가기도 하고 특별활동 비용은 보통 한 과목에 5만원임(한달에 주 1회)

D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유치원과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유치원 두 군데를 다 보내봤는데 아이들이

받는 문화예술혜택은 거의 비슷함. 7살까지는 유치원에서 받는 문화예술혜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B : 어린이집·유치원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근거리 위주, 정해진 곳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율성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시스템하에서 정해진대로 해야함. 그러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문화예술활동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할 때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할 수 있을 것

주 : 첫걸음 문화카드는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구조임. 이것을 위해 보호자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시간을 내실 수 있는지?

A :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가 일을 줄이거나 육아휴직을 내거나 해서 시간은 낼 수 있음

B : 평소에도 입장료가 비싼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만 동행하여 공연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끼리만 평일에 공연을 보러 가도 힘들지 않음

D : 다만 1학년 때 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2년~3년까지 사용 기간을 확대해주었으면 좋겠음.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을 하느라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주 : 연간 1인 10만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 연간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D : 아동 1명+보호자 1명이라면 꼭 그 등록된 부모(법적 보호자)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주 : 그렇게 정하려고 함. 아무나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함. 다만 10만원씩 각각 지급할 것인지 하나의 카드로 지급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함

B : 제일 가까운 문화생활이 영화임. 뮤지컬은 1년에 2번 정도 보지만 영화는 카드 할인혜택도 많고 인터넷 예매혜택도 많음. 그렇기 때문에 첫걸음 문화카드로 영화를 볼 생각보다는 아이들에게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뮤지컬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함

A : 1년에 10만원이면 월 1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적게 느껴지고 적어도 월 1만원은 되어야 함. 과학관이나 식물원은 저렴해서 많이 다니던 곳으로 지원 없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지원받으면 뮤지컬, 아쿠아리움 같은 곳을 가고 싶음. 하지만 그럴 경우 5번 정도 관람하면 지원금액을 소진할 것 같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함

C : 한 달에 1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음. 금액이 기존 지출비용에서 플러스 되어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또한 사용처 기준(안)에서 학원·교습소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한달 학원비 밖에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아이들이 문화를 누리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주 : 주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뮤지컬 등 공연이 많은지?

일동 : 너무 많음

주 : 서울·경기지역은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용할 곳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는 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사용할 만한 시설이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음

C : 마트만 가도 문화센터 안에서 공연을 함. 여기가 서울·경기권이라 훨씬 많기는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음

D : 광명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연천으로 이사했는데 확실히 시골 엄마들이 관심사가 덜함. 시설도 부족하고 차가 없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 : 첫걸음 문화카드가 지원된다면 주로 어디서 사용하고 싶으신지?

A : 뮤지컬이나 아쿠아리움이 비싸니까 이런 곳에서 쓰고 싶음.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영화관을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영화 관람이 저렴하다고 해도 사용처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음

B : 국공립 박물관은 어른만 입장료를 받고 아이는 무료이고 주차요금도 다동이 카드로 할인 을 수 있음. 영화관도 카드 할인을 받으면 아이들은 1인당 3천원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이나 직업체험관(잡월드, 키자니아)에 가고 싶음. 직업체험관은 아이가 가고 싶어하지만 비용이 비싸서 쉽게 갈 수 없었는데 문화카드를 지원받는다면 직업체험관 처럼 평상시에 가지 못하는 곳에 데려가고 싶음

C : 아이를 전시회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조용하고 정적이다 보니 아이를 관리하다 전시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아예 갈 엄두를 못 냄. 정적인 공간은 아이들이랑 함께 가기 어려움

B : 어린이 전시회는 갈 수 있는데 순수회화 등을 감상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림

주 : 아이들을 위한 전시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 문화예술비용을 지원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영화관이고 두 번째가 도서관임.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시 도서 구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D : 도서 구입은 찬성하지만 만약 한번에 10만원을 모두 결제해서 1년치 사용이 끝나버리는 것은 무의미함. 한달에 2만원 이상은 결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게 하여 한달 동안 한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을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음

A : 도서 구입은 괜찮은데 되팔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것이 걱정되고 학원·교습소는 반대함

B : 학원은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반대함. 도서가 포함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교재나 문제집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C : 학원·교습소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함. 학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지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한 달 학원비 지출로 모두 소진되기 때문

도서 구입도 문화예술활동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습지나 교재를 산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하는게 정책 취지라면 도서 구입은 맞지 않고 아이가 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용처가 지정되었으면 좋겠음

주 : 놀이공원이 여가활동은 맞지만 문화활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문화를 누린다는 면에서 놀이공원은 사용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C : 놀이공원이라고 표현했지만 키자니아나 잡월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듯. 놀이공원도 그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적합하지만 단순히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맞지 않음

A : 놀이공원도 괜찮다고 생각함. 그 안에서 공연도 많이 해주고 동물원도 있기 때문

D : 너무 광범위함. 큰 아이는 서점에서 해리포터 책을 사주면 좋아하지만 둘째는 나가서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함. 도서가 꼭 문화예술활동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기도 어려움

주 : 둘 다 맞는 말씀임. 업종으로 보면 대부분 하나이고 사용처를 하나하나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칭적으로 놀이공원이라고 표현한 것

미술관, 오페라, 발레 등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7~8세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울 수 있음. 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연령을 높여서 순수예술분야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7~8세로 해서 가족의 여가, 문화생활 측면으로 갈 것인지 2가지 방안을 고민 중임

D : 아이들이 3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는 조형물을 보거나 서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동생은 활동을 좋아하는데 막상 둘 다 가보면 모두 도움이 됨.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기 보다 1회 2~3만원 정도 회당 사용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10만원일 경우 2만원은 문화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형태가 좋을 것

주 : 그렇게되면 카드를 2개 소지하고 가서 지원비용과 개인비용을 나누어 결제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A : 발레나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은 혼자서도 관람이 가능함. 부모와 함께 문화예술생활을 향유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초등학교 1학년과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희망 사용처에 야구·축구 등 스포츠 관람을 추가했으면 좋겠음

주 : 문화누리카드는 여행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첫걸음 문화카드로 여행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B : 사용자는 어차피 지원받은 금액 내에서 쓰려고 하고 개인금액을 더 보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여행에는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임

C : 문화카드로 여행을 가서 1박을 하면 자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

주 : 지방에 여쭙보면 교통비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음. 지방민들에게 이동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

주 :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입금 보다는 고운맘카드, 아이행복카드와 같은 카드발급 형태가 좋다고 생각함

C :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어느 곳에서 사용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 정해진 곳에서 사용가능하게 해야 정책취지에 맞음

B : 다둥이카드처럼 카드 안에 1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걸 지정된 장소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선불식 카드가 좋음

C : 선불카드는 잃어버릴 경우 지원 금액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운맘카드처럼 분실되어도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형식이 적합함

주 : 고운맘카드는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확인하고 차감되는지

C : 선결제가 되는 신용카드임. 만약 산부인과에서 3만원을 결제하면 50만원 지원비용 중 3만원이 사용되었고 47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이 영수증에 표시됨

주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카드가 여러 개일 때 통합해서 같이 쓰는 것은 어떠신지?

A : 아이행복카드처럼 다른 카드에 연계해주는 것은 좋음

주 : 카드발급이 아닌 온라인 전용몰의 방식은 어떤지?

A : 좋다고 생각함

주 : 현장 가맹점에서 쓰시기엔 어려울 수 있음

C : 영화도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현장에서 직접 예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전용 물도 괜찮다고 생각함

B : 지원비용은 1년 안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주 : 기존에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환수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들으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볼 필요는 있음

C :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기는 한데 예산처리가 복잡해질 것 같음. 만약 1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정도로 사용 기간을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맞음. 그래야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쓰게 한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음

주 : 지금 아동수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는지?

일동 : 동사무소와 인터넷으로 동시에 가능함

주 : 아동수당처럼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할 때 다 신청을 하실지?

일동 : 모두 할 것임

D : 발 빠르고 젊은 엄마들은 할 수 있음. 하지만 부모의 나이가 많거나 조손가정인 경우 누가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음

주 : 그렇다면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만 학교를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 정보를 학교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학교도 부담이 되고 개인정보를 보내는 부모도 부담이 될 수는 있음

A : 이런 정책을 사람들이 알려면 소문이 중요한데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은 차상위계층끼리만 알고 있어서 정보의 공유가 한정적임. 반면 아동수당은 모두 받기 때문에 신청시기와 방법 등을 활발하게 공유함. 그러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주면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

만약 언제까지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신청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학년 중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한 방식이었으면 좋겠음. 하반기에 늦게 정보를 얻더라도 신청해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함

주 : 보통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많이 얻으시는지?

A : 주로 맘카페 검색, 네이버 검색을 하고 리틀홈 앱에서 지역별·테마별로 체험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됨

B : 우리 아이는 이비에스나 유튜브의 광고를 보고 가고 싶다고 말함

주 : 아동의 문화예술향유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있으신지. 아동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D : 큰 아이를 기를 때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매우 신경썼음. 좋은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공격성과 짜증내는 것이 줄어든다고 느꼈음. 또 1년 정도 여유가 생겨서 아이와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니 동생과 지내는 것, 숙제할 때 태도, 집중력, 안정감 등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짐. 문화예술향유는 이처럼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A : 어린이 미술관, 음악회 등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또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곳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엄마들은 가까운 곳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임

C : 아이들 수준에 맞는 전시, 음악회 등은 따로 있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고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전시관이나 공연장에 갈 수 있음. 지금은 성인 위주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한다는 에티켓이 있어서 결국 아이들에게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림.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미술관, 어린이 박물관 등 아동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

D : 첫걸음 문화카드 행사를 해도 좋을 것 같음. 수도권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지방 작은 마을에 파견할 수 있음

주 :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첫걸음 문화카드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일동 : 맞음

D :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인데 마을회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방영해주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림

B :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사립은 비싸니까 가급적 국립을 이용하는데 입장료, 주차비 할인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짐. 그러므로 국립 박물관 같은 시설 보다는 아이와 함께 하면서 평소에 금액이 비싸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준 것들을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관람하고 싶음. 문화카드가 지원된다면 아이와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음

□ 충청권 FGI

- 일시 : 2019.01.17.(목) 11:00~13:00
- 장소 : 충북 오송시 오송컨퍼런스센터
- 참석 : 5~7세 아동을 둔 부모 4명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표 107〉 충청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자녀(연나이)
충청권	A	여	30대	주부	7살
	B				5살, 7살, 10살
	C				4살, 6살, 8살
	D				4살, 6살, 9살

*주 : 주관기관((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A, B, C, D : 응답자

주 : 첫걸음 문화카드를 초등학교 1학년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B : 1학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1학년이라는 시기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여 변화를 주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적절하다고 생각함

A : 아이의 연령별로 시기에 맞는 문화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고학년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취지를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C : 초등학교 1학년은 방학이 있어서 시간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학업적으로 아직 부담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함

D : 1학년에 지급하는 것은 연령 범위가 너무 좋음. 한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예를 들면 5~8살 또는 5~10살 자녀가 있는 가정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가정, 또는 5~8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가정 당 20만원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C : 가정에 아이가 여럿일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른 자녀는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함

B : 창원에서 이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1학년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러나 취지는 문화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문제집 구매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임. 돈이 드는 문화활동도 있지만 국공립·시립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은 무료이거나 입장료가 매우 저렴함. 그럼에도 안가는 경우가 있음. 부모에게 돈을 준다고 문화활동에 쓰지 않을 수 있음. 오히려 학교를 통해서 지원한다면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가는 것처럼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도 있음

주 : 가정단위로 지급할 경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 학교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민이 됨.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임

일동 : 초등학교 1학년의 연령은 적정함

B : 연령 기준으로 주시는 것인지 학년 기준으로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음. 만약 빠른 나이로 입학한 아이의 경우 같은 학년 친구들은 지원받는데 자신은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음

주 : 일단은 학년 기준 생각하고 있음

B : 저도 학년 기준이 맞다고 생각함

주 : 아동 10만원 + 보호자 10만원씩 연간총 20만원의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적정하다고 생각함. 보통 아동 뮤지컬이 5~6만원 선이기 때문에 20만원이면 어른 입장료까지 결제가 가능함. 그런데 만약 4인 가족이 뮤지컬을 보러 갔을 경우 초등학교 1학년+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자녀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주 : 4인 가족이 모두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는 논의해보아야 함

B : 비용을 산정할 때 아동과 부모를 나눈 이유가 있는지?

주 : 초등학교 1학년 연령은 정해져 있는 것이었고 아동 혼자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를 포함하여 규정함

B : 4인 기준 가구에서 아동 1명만 수혜자일 경우 카드 결제는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주 :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용 구분이 안될 것 같으니 가정당 20만원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동의함

C : 이 지원금액으로 모든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금액 자체는 적정함

D : 금액은 적정함

주 :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용처는 매우 광범위함. 그렇다면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로 놀이공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사용처에 있으면 좋지만 놀이기구 타는 것까지 지원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B : 놀이공원 입장료가 비싼편임. 형편이 어려운 집은 이 카드를 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다고 봄

C : 대기업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보다는 지역 놀이공원이나 시설, 직업체험관, 과학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D : 놀이공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 개인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이용할 경우 더 싸기 때문

주 : 만약 20만원이 지원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활동에 사용하고 싶은지?

A : 경주 여행 등 여행비로 쓰고 싶음

B : 뮤지컬 관람

C : 캠핑 시설 예약비, 장비 대여비

D : 극장이나 연극

B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쓸 것 같음

A: 4인 가족이 영화를 보러 가면 4만원 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평소 VOD를 주로 관람함. 사용처는 아예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던지 아니면 가맹점을 정하던지 둘 중에 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듯

주 : 학원과 교습소도 사용처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B : 처음에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학원, 교습소도 괜찮다고 생각됨. 물론 20만원이면 한 달 학원비로 끝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처음 한 달의 경험을 통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임

C : 학원은 반대함. 금액이 어차피 한 달밖에 쓸 수 없음.

A : 학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함

주 : 도서구매에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학습지를 제외하고)

C : 어차피 도서관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굳이 학습지를 제외하는 규정을 넣어서 복잡하게 제한하지

말고 아예 도서 구입은 제한하는 것이 나을 듯

주 : 지원금액의 이용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현재는 1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경기 권에서는 지원받으면 2~3년 정도는 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음

일동 : 1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음. 한번에도 모두 소진할 수 있음. 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아동은 2학년이 되니까 다음해에도 쓰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주 : 거주지역 내 문화활동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청주는 별로 없고 관람료도 다른 곳보다 더 비쌌. 그나마 요즘 늘어났음

주 : 지역 내 문화예술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인지?

A : 꾸준히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음

B : 특별전, 기획전시 등은 전시 기간이 길어서 한번 보면 다른 전시를 볼 게 없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관람하기도 함

C : 세종시는 아직 시설이 부족함. 부모인 저도 예술회관을 한 번도 못 가봤음.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도임

B : 첫걸음 문화카드를 통해 단체로 문화예술활동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이가 여럿일 경우 연령별 성향이 다르기 때문.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끼리 가는 것이 효율적임

C, D : 하지만 지원금액 소진은 모두 가능함

B : 키자니아나 잡월드와 같은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했으면 좋겠음. 키자니아 같은 경우 할인 받아도 엄마+아이 4만원대 정도임

주 : 첫걸음 문화카드를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니면 분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둘다 문제의 소지는 있음. 하지만 사업 취지를 생각하면 가맹점 형태로 해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B : 개인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이 좋기는 함

주 : 아동수당은 계좌로 현금을 받는데 첫걸음 문화카드는 아동수당처럼 현금지급이 나올지 아니면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나올지?

A : 사업취지를 생각하면 카드가 맞다고 생각함

D : 현금은 반대하고 고운맘카드와 같은 카드가 적합함

주 : 온라인 포인트는 불편하신지, 가맹점을 모아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매하게 하는 방식임

D :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현장 예매가 나음

주 : 포인트가 들어있는 신용·체크카드는 어떤지?

일동 : 괜찮음

C, D : 스타벅스 카드처럼 기프트카드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음

B : 가맹점(미술관, 공연장)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은 어떨지?

주 : 가맹점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주 : 신청 방식은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신청하는 것과 아동수당처럼 개별 신청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좋으신지?

A : 개별신청

B : 상관없음

C : 개별신청

D : 상관없음

주 : 학교를 통해서 신청 할 경우 카드를 아동이 받아 부모에게 전달할 시 분실의 위험이 있음

B : 학교에서 신청만 받고 수령은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받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음. 신청할 때 학교가 편하긴 함

D : 신청은 학교로 하고 받는 것은 우편으로 받는 것이 어떨지

주 : 학교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부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A : 이미 모든 정보를 학교가 갖고 있음

주 : 신청 및 사용 기간은 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B : 입학통지서가 12월 초 기준으로 나오는데(지역마다 다름) 만약 12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입학통지

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므로 입학하고 3월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3월에서 12월 중에 신청,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음

주 : 타 수당 카드와 연계해서 발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동 : 다른 카드도 어차피 결제할 때만 쓰기 때문에 개별로 발급받고 싶음. 아이행복카드도 아예 기관에 맡겨서 그쪽에서 결제하게 하고 있음

A : 개별카드가 좋음

B : 개별이 좋은데 상관은 없음

C, D : 개별이 편함

일동 : 연계되면 오히려 헷갈림

C : 발행비용을 생각해서 연계하는 것이 낫다면 아이사랑카드가 제일 적합함

□ 경상권 FGI

- 일시 : 2019.02.01.(금) 13:00~15:00
- 장소 : 경남 창원시 모임공간 도란도란 가넷룸
- 참석 : 5~7세 자녀를 둔 부모 2명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표 108〉 경상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자녀(연나이)
경상권	A	여	30대	주부	4살, 6살, 7살
	B				8살

*주 : 주관기관((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A, B, C, D : 응답자

주 : 첫걸음 문화카드가 아동수당처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소득수준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A :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지원기준을 나누는 것이 어렵고 아동에 대한 지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

B : 동등하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화카드가 공연, 전시 관람 위주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그럴 여유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음. 소득 관계없이 다 주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는 분들은 이미 개인 비용을 투자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기회가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함.

주 : 이 금액으로는 지원해도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만 더 많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취약계층은 쓸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B : 맞음. 저소득층이 여가시간이 더 부족함. 20만원이 1년으로 따지면 크지 않은데다 지원 받아도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쓰지 않을 것 같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미 잘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활용할 것 같고 취약계층은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음

주 : 보편적 지원에는 동의하시는데 지원 시 모든 계층이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A : 지금 정확하게 문화카드가 어느 곳에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쓰기 어려울 것 같음. 지금 관람할 비용만 주신 건데 창원 같은 곳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함. 영화관 말고는 전시나 뮤지컬, 공연 등은 1년에 한 번 보기가 힘들 정도임

주 : 창원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지

B :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음. 부지런한 어머니들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음

A : 공연이 있어도 아이 입장료가 5만 5천원 정도일 정도로 비쌘

B : 10만원이면 공연은 2번 보고 끝남

주 : 할인되는 것이 없는지

A : 없음

B : 삼일 아트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공연이 별로 가격도 비쌘. 할 수 있는 것은 영화 관람 정도이고 방학 때 뮤지컬 같은 공연 보는 정도임

A : 제가 문화예술인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대중적인 오페라, 뮤지컬 등은 적용이 안됨. 도립·시립 등 이미 저렴한 곳에만 사용이 가능함. 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무료인데 이런 것만 적용 됨

B : A 어머니처럼 문화예술 전공하신 분들은 정보가 있는데 보통 부모들은 전시를 관람하러 가면 부모도 잘 모르는데 설명해줘야 하기 때문에 잘 안가게 됨

주 : 아동 특화 전시나 공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B : 맞음. 인프라가 아예 없음. 서울이나 경기권은 잘 되어 있지만 부산만 해도 뮤지컬 보러 가는데 가격도 비싸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감. 서울과 부산이 문화공연의 차이가 10년이 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더 심할 것

B : 보통 서울은 공연 캐스팅이 1군, 부산·대전이 2군, 창원은 3~4군이라고 이야기함.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질 좋은 공연을 만들어야 함

B : 카드사업을 하면서 특화된 공연을 지방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음

주 : 창원에서는 큰 공연 보실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보시는지?

일동 : 맞음 부산 등으로 감

주 : 비용이 꽤 들 것 같음

A : 2명이면 공연비가 1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부모는 못 들어가고 아이들만 들여보냄. 아이가 5만 5천 원, 부모도 5만 5천원이기 때문에 부모1인 아동1인씩만 입장하기도 함.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 없고 이비에스에서 하는 번개맨조차도 거의 5만원임. 저희는 다 같이 가려면 일단 입장료만 10만원임

A :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10만원으로 는 볼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기 때문임

주 : 지금 금액보다 더 높여서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이 주고 상위계층에게는 덜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B : 맞음. 카드로 발급한다면 소득이 좀 되는 사람은 비용지원보다는 할인해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 음. 다만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

A : 이 카드로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 면 이것은 차별되는 것이 아니니까 좋음

주 : 첫걸음 문화카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가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는 시기라는 특수성이 있고 어린시절에 문화예술활동을 즐기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기게 하기 때문에 첫걸음이 된다는 시 기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들어 이 시기가 문화예술활동을 집중해 서 관람할 수 있는 시기인지, 부모님이나 아동이 여가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인지 고려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함

A : 학교를 일찍 마치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많은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임. 2시에 공연보러 가면 좋 기는 함

B : 공연이 대부분 주말이라 굳이 평일에는 잘 안가고 학원을 많이 다님

주 : 1학년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B : 많이 다님. 초등학교 돌봄도 경쟁률이 심해서 못 보내면 학원을 보내야 함.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이 많기는 함

주 : 유치원 다닐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B : 유치원이 더 편하다고 생각함. 관람하기에는 유치원이 편함. 초등학생은 단체로도 많이 가니까

A : 초등학교 3학년 전후가 적합할 것 같음. 내가 이걸 관람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

B : 초등학교 1학년은 집중력의 한계가 있어서 1시간 이상 공연은 앉아있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2~3학년 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4~6학년은 고학년이라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지 않으실 듯

주 : 저학년은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1학년 보다는 2~3학년이 관람하기는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음

주 : 학교에서 단체로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하는지

B : 저희 큰아이를 보니까 부모가 일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에 보냄. 영화와 공연 관람을 거기서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봤음

주 : 비용은 지원이 되는지

B :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 나라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함

주 :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A :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서 단체로 공연을 보러가거나 놀이공원에 감

B : 현재 정부지원에 1학년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또 1학년이면 중복됨

주 : 초등학교 1학년 때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경험하면 아동이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B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영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지 굳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몰아서 하기보다는 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도움이 됨

B : 영유아기 때가 훨씬 더 흡수가 빠르니까

B : 저는 이미 자녀들이 1학년, 4학년이기 때문에 확실히 영유아기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영유아기에 좋은 어린이집을 만나서 아이들이 옷 입는 습관, 개인 위생 및 기본 생활 수칙을 매우 잘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 : 문화예술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거나 감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보다는 더 어린 나이가 좋다는 말씀으로 알겠음

주 :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초등학생부터인 곳이 많음

B : 보통 1학년부터임

A : 36개월 미만의 아이는 무료로 들어가는 공연이 있는데 36개월에서 7살까지가 애매한 나이임. 그 아이들은 5만원 이상 주고 들어가야 함.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아서 단체로 가는데 36개월 이상부터 7살까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음

A : 어린이집에서도 뮤지컬 보러 많이 감. 아이들이 아는 책에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빨간모자 같은 것은 잘 볼 수 있고 아이들 공연은 1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글자가 나오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함

주 : 부모님들의 실제 여가시간은 입학 전과 입학 후의 차이가 있는지?

B :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초등학교에 가면 글을 알고 자기 의사결정이 확실해 지나가 더 수월함

주 : 학년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연령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인데, 학년단위로 지원된 다면 같은 학급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고 연령단위로 지원하면 한 학급 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친구와 받지 못하는 친구가 나뉘기는 함

B : 수당이 아니니까 학년이 처리하기 편할 것 같음

A : 친구들끼리 같이 보러가기에 학년끼리가 편함

B :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가 있으면 친구 2명만 입장시키고 엄마들은 밖에서 기다리면 됨

주 : 아동 10만원+보호자 10만원 연간 총 20만원의 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B : 아무리 할인을 받아도 공연 1번이면 끝날 것 같아서 적다고 생각함

B : 예를 들어 가정에 아이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주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각각 10만원씩 나가고 보호자는 1명으로 계산될 경우가 높음. 아이 1인 기준 2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주 : 저희가 이 비용으로 모든 문화활동을 다 하시라고 주는 것은 아님. 우려되는 부분은 금액 20만원을 지원했을 때 형제가 있을 때 아이 하나만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그럴 경우 그 금액을 가족이 다 같이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B :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실 것인지, 부모 10만원을 아이 것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주 : 그걸 저희가 세세하게 걸러내기는 어려움

B : 만약 부모에게 20만원이 들어오면 부모가 아이에게 다 써도 상관이 없는지

주 : 그걸 시스템적으로 구분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막을 것인가 풀어놓을 것인가는 아직 논의 중임

B : 아이 10만원을 모두 소진하고 부모 비용으로 아이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지, 카드 결제했을 때 모를 것 같은데 부모 10만원+아이 10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

주 : 아이와 같이 갔을 때 부모도 함께 보는 의미로 드리는 비용인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결제 금액이나 사용처로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일일이 하기는 어려움

B : 차라리 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부모+아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음 형제자매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지

주 :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인 단위로 지원할 것인지, 가구 단위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정책은 초등학교 1학년이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있을 시 1학년 아동만 데리고 가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문제임. 만약 개인당 지원한다면 가족끼리 가서 결제 시 초등 1학년+보호자만 따로 결제하고 다른 아동은 개인카드로 별도 결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함

B :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아이 비용을 본인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음

주 :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B : 그걸 규제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음

B : 20만원을 모두 쓰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주 : 회수됨

A : 아동 10만원은 아동만 사용하게 하고 부모 10만원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어떨지, 동생도 같이 갈 수 있고 언니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10만원을 가족 단위로 사용하게 해도 좋을 것

B : 아니면 연간 10만원인데 매월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분기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켜야 많이 사용할 것 같음

주 : 반기별로?

B : 맞음. 6개월에 10만원씩 하면 찾아서 쓰려고 할 듯

주 : 첫걸음 문화카드가 지원되었을 때 모르고 신청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B : 매우 많을 것임

A : 볼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없으니까

B : 공연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쓸 것 같음. 개인돈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안써도 회수되니까

A : 안써도 그만 써도 그만의 이미지임

B : 금액은 적더라고 쓰게끔 하려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소멸시키던지 소멸되기 한 달전에 문자라도 공지를 주어야 함

A :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각인 시켜야 영화라도 볼 것임

주 : 1년에 20만원이 지원되었을 때 전액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일동 :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모자랄 것

주 : 전액소진은 아동 대상 뮤지컬 비용이 비싸서 가능한데 인프라나 시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B : 네, 영화말고는 없음

A : 해당 지역에서만 봐야하는건지

주 : 그렇지 않을 것. 지역을 제한하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주 : 보통 관람하실 때 거주 지역에서 보시는 지?

B : 갈 수가 없음. 일부러 보러 나가지는 않음

주 : 지역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A : 성산아트홀, 마산에는 315 등 시설은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족함

B : 도립미술관이 있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작품이 별로 없음

A : 저희는 영화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음. 뮤지컬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엄마와 아이 둘만 가도 10만원이 넘으니까 너무 비쌘

주 : 아이들이 그런 뮤지컬 공연을 제일 좋아하는지

A : 제일 좋아함. 화려하고 음악도 나오고 티비에서만 보던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

B : 어린 친구들은 공연보는 것을 좋아하고 저희 아들은 1학년인데 영화관을 좋아함. 헬로 카봇 같은 애니메이션영화. 나이대별로 좋아하는게 다름

주 : 1학년 쯤 되면 영화보는 것은 문제 없는지

일동 : 문제없음

A : 좋아하는 영화면 어린아이들도 잘 봄

주 :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미술관 보다는 뮤지컬, 영화 쪽에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 같음

B : 박물관은 가격이 비싸지 않음. 다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주 : 특화된 어린이 전시 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듯

주 : 20만원 지원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지?

일동 : 뮤지컬

주 : 공연들이 지방으로 많이 오는 편인지

B : 가끔 어린이날처럼 특별한 날, 여름방학, 겨울방학 정도임. 배우들이 주로 서울·경기에서만 공연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방까지 내려오는 것이 어려움

주 : 공연이 몇 가지가 있으면 번갈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한 공연을 보면 다른공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B : 동시에 볼 수 있는 공연은 거의 없고 다음 공연을 기다렸다가 봐야함

A : 유명한 것은 한 번밖에 없음. 작은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들은 많지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없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연은 다 알아봄

주 : 가장 사용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지 여쭙본 것은 저희가 사용처를 설정해야하기 때문임.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관람은 사용처로 지정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B : 지정하면 그 이외에 사용을 못하는지?

주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된 곳 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 사용처 범위가 매우 넓음

일동 : 공연 관람 부분은 동의함

주 : 전시 관람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동 : 적합함

주 : 영화 관람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동 : 적합함

B : 지방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 영화임. 영화는 집에서 10분거리에 있고 어린이 영화가 2~3달에 한 번, 방학에는 거의 매달 상영함

주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동 : 적합함

주 : 도서 구입은 통합문화이용권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중학교 1학년 대상 활동비를 지원하는 카드들은 거의 제한하거나 가능하지만 교재나 학습지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저희도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도서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허용할 경우에는 교재나 학습지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함

B : 저는 완전히 제한했으면 좋겠음.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놀이공원까지만 허용해야 할 것

주 : 도서 구매도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다만 교재나 학습지 구매로 편중될까봐 우려됨

B : 도서를 허용할 경우 20만원을 교재나 학습지로 모두 소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음

A : 1~2학년 아이들은 도서관을 많이 가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많이 사지 않아도 됨

B : 지혜의 바다와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놀면서 책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함

B : 경남에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매우 잘 되어 있음.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인데 아이들이 1층에서 블록, 보드놀이도 할 수 있고 만화방, 웹툰방도 있고 공연, 영화도 보여줌. 따로 비용도 들지 않음

B : 첫걸음 문화카드는 문화예술로만 소비했으면 좋겠음

A : 공연을 보거나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야 함

주 : 놀이공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아이들이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함

주 : 놀이공원은 입장료가 비싸서 1회에 지원비용을 모두 소진하게 되고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민이 됨

A : 동물이 있는 놀이공원이 많으니까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함

B : 뮤지컬은 2시간이면 끝나는데 놀이공원은 폐장할 때까지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매우 좋아함

A : 제한이 있더라도 놀이공원이 허용된다면 엄청나게 환영받을 것임

주 : 입장료뿐 아니라 교통비나 숙박비 포함하여 여행분야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B : 숙박비·교통비는 제외하고 관광지 입장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어떨지

A : 관광지 체험료(입장료)는 가능하고 교통비나 숙박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경우 지원 금액에 비해 사용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음

B : 저는 교통비·숙박비 사용은 반대함

A : 어차피 숙박·교통비로 쓰기에는 금액도 부족하고 공연 보러 갈 때 드는 교통비도 다들 기존에 지출 해왔으니까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될 듯

일동 : 사용처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여행과 도서는 아예 제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주 : 문화예술분야 학원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미술, 음악학원)

B : 한 달치 학원비도 안되기 때문에 반대함

A : 학원비는 한 달에 거의 20만원 가까이 됨

B : 미술학원도 한 달에 12만원

주 :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차피 한 달 수강료도 되지 않고 학원은 문화예술활동의 분야로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B : 맞음. 모든 초등학생이 음악학원, 미술학원에 이걸 쓰기 위해 다녀야 할 수도 있음

A : 사업 취지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 돈을 써가면서 강제로 문화예술을 배우게 하는 것은 반대함

B : 아이가 어떤 공연을 보고 싶다고 말할 때 부모가 이 정책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카드를 써야하니까 미술학원에 가자고 하는 방식이 되면 안됨

주 :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문화누리카드는 선불식 포인트카드, 아이행복카드는 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포인트카드임. 이처럼 지급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현금지급, 선불식 포인트카드, 신용체크 겸용 포인트카드, 온라인 전용몰 중에 정책취지와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주로 아이들 공연은 인터파크에서 가장 많이 예매하기 때문에 온라인몰도 괜찮음

B : 카드로 결제했을 때 사용이력이 남는 것이 관리할 때 효율적임

주 : 그럼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일동 : 반대함

B :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문화예술활동으로 쓰지 않아도 다시 돌려주지 않을 것임

주 : 현금지급 방식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고 사용처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지

일동 : 맞음

B : 20만원 받은 줄도 모를 것임

주 : 포인트카드로 지급할 시에는 선불카드 형태가 나올지 신용기능이 겸용된 것이 나올지

B : 저는 거의 사용이 끝났지만 아이행복카드도 있고 임신하면 카드가 또 나오고 카드가 너무 많아서 신용기능은 반대함. 신용카드 말고 선불형 포인트카드로 20만원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음

주 : 고운맘이나 아이행복카드는 신용카드인데 발급받으시고 포인트(혜택) 사용 다 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B : 폐기함

주 : 바우처 지원이 끝나도 신용카드 자체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B : 사용기간이 5년이고 5년동안만 쓸수 있음. 임신출산해서 혜택 받는게 보통 1년이면 끝나는데 사용기간이 4년 남아있어도 카드를 잘 안 씀

주 : 신용카드 할인 혜택 같은 메리트가 없는지

B : 없음. 신용체크카드 2가지 중 고를 수 있고 기존 신용카드가 있으면 보통 체크카드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할인이 없음. 자신이 받은 지원 포인트만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음

A : 저도 신용카드 발급은 부담되기 때문에 선불 충전식이 좋음

B : 카드 발급은 주로 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해서 가기 부담스러움

A : 그것 말고도 카드가 많은데 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부담스러움

주 : 온라인몰은 만약 현장에서 결제가 되지 않고 온라인몰에서만 결제가 된다고 하면 사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저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평소 공연은 인터파크로 예매하고 3월에 공연이면 한 달 전에 50% 반값 행사가 뜨기도 함

B : 다른 어머니는 정보가 빠르니까 괜찮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호자인 경우 어려울 수 있음

B : 포인트카드와 온라인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좋음. 어르신들은 카드로 하고, 저희처럼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면 온라인몰에서 일찍 예매하는 것이 좋음

주 : 만약 1년 내에 포인트 소진이 안 될 경우 이월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B : 이월이 되려면 금액이 많아야 할 것 같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통계를 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A : 이월되면 일부러 안 쓸 수도 있음

B : 계속 이월되면 모아서 쓰려고 할 수도 있음

주 : 선불카드는 사용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음. 금액을 썼는데 금액이 모자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한번 공연으로 사용하고 잔액이 6만원 정도 남았을 경우 그 금액으로 다른 공연을 보기에는 비용이 부족하니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음.

B : 제가 만약 포인트가 6만원 남았는데 공연비가 10만원이면 6만원 문화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4만원은 제 카드로 결제하면 됨

주 : 그런 방식이 번거롭지는 않으신지

B : 전혀 번거롭지 않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미 많음. 요즘은 모바일로 상품권을 주는데 상품권 금액만큼 쓰고 나머지 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음

주 : 그러면 포인트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B : 괜찮음

A : 하지만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됨

B :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 하나와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서 동시에 가능하게 해야함

B : 요즘에는 전화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제일 편한 것이 카드 방식임

주 : 고운맘카드는 어떻게 발급하시는 것인지?

B : 은행에 임신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번거롭지는 않음. 2가지를 연동할 때 예산이나 시간이 많이 든다면 그냥 카드 발급으로 하는 것이 나을 듯

A : 이미 쓰고 있는 카드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주 : 저희도 기존카드에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B : 없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아이행복카드 같은 것이 있으면 연계하는 것도 괜찮음

주 : 아이행복카드에 첫걸음 포인트 20만점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일장 : 더이상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음

B : 아이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여서 될지 모르겠음

주 :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음. 또한 정책적으로 독자적 특성이 있는데 타 카드와 연계되면 아무래도 정책 상징성이 좀 낮아지기는 함

주 : 신청방식 부분에서는 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등 개별신청의 방식이 있고, 대상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별신청 방식은 많이 경험해보셨으니 익숙하실 것이고, 단체신청은 학교를 통해 일괄로 처리하니 편리하지만 대신 신청서가 아이를 통해 가정으로 갔다 돌아와야 하니 누락되는 것이 우려됨

A : 학교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B : 그게 나을 것 같음

A :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떤 엄마들은 너무 늦게 봐서 못하는 경우가 있음. 아이가 학교에서 알림장을 가지고 오면 어차피 보면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것이 나을 듯

B : 아이행복카드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처리가 됨.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쳐서 되기는 되었는데 한 달은 그냥 못 쓰고 넘김. 단체신청 시 누락되는 것 보다 개별신청이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음

A : 개별적으로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음. 일하는 엄마들은 시간을 따로 내서 주민센터 가야하는 것이 힘들기도 함

주 : 만약 단체로 신청한다면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A :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바로 신청해야 오래 쓸 수 있음. 3월에 신청해서 다음해 2월까지 쓰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주 : 아이행복카드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임

B : 맞음. 저는 선생님 연락받고 알았음. 저희 아이만 신청이 안 되어 있다고

주 :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됨. 어르신들이 계신 조손가정의 경우 신청이 잘 안될 수 있음. 다만 반대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문제가 있음.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아이가 누락시킬 수 있음

주 : 학교에서 이런 안내 시스템이 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B : 앱은 개인정보 때문에 요즘 안되고 홈페이지나 알림장으로만 공지됨

주 :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는지

B : 매일 봄

주 : 모바일로 알리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A : 없어졌음. 알리미 어플에 오류가 생겼는데 수정이 안되서 못쓴다고 함. 저희 학교도 있었는데 폐기되고 홈페이지로 확인하고 있음. 학교마다 다르지만 저희 초등학교는 앱이 없음

주 : 학교 통해 카드 발급 받으실 경우 우편 수령이 제일 편하신지

B : 그렇긴 한데 보통 이런 카드 발급받을 때 아이 가방에 넣어서 오기도 함. 우편이 제일 적합하기는 함

A : 아이들이 가방 절대 안보여줌

주 : 아동과 관련된 정보는 보통 어디서 얻으시는지

B : 영화를 많이 보니까 자주 검색을 하고 밖에 뮤지컬 현수막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그걸로 정보를 얻기도 함

A : 전봇대에 걸려있는 것 봄

B : 그것 말고는 잘 모름

A : 쿠팡, 티몬에 어린이 뮤지컬 검색하면 몇 개 뜸

주 : 그림 예매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서 보셔야 하는 것인지, 이런 정보가 다 모여져 있는 곳은 없는지

일동 : 없음

B :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큼

A : 수도권은 사용처가 많고 공연 질도 수준이 높은 것이 많지만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없음

A : 비용이 적기는 한데 비용을 올리면 세금이 또 많이 나가니까 더 올리는 것도 문제임

□ 전라권 FGI

- 일시 : 2019. 02. 15.(금), 11:30 ~ 13:30
- 장소 : 전북 전주 커피마리안 카페 스튜디오
- 참석 : 5~7세 자녀를 둔 부모 4명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표 109〉 전라권 FGI 응답자 일반사항

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자녀(연나이)
전라권	A	여	30대	주부	4살, 5살
	B			자영업	6살, 8살
	C			자영업	4살, 6살
	D			주부	5살, 9살

*주 : 주관기관((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A, B, C, D : 응답자

주 :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아동수당 지급 때 상위 10%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하면서 아동수당의 격차를 두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저는 상위 10%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함. 물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문화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첫걸음이라고 하면 평등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공연을 가족이 보려고 하면 입장료만 최소 12만원이 들어가고 아동이 24개월이 지나면 부모가 무릎에 앉혀서 보더라도 무조건 좌석비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감

B : 돈이 많아서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음. 취지에 맞게 하려면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을 해야 모든 사람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C :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소득이라는 것은 부모 기준임. 이 사업은 지원기준이 아이 기준이어야 함.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지만 절대적으로 소득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기회가 많다고 볼 수만은 없음. 부모 성향이나 환경적 요인이 큰데 소득수준만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이를 낳고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소득수준이라는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음. 보통 부모의 소득수준, 즉 세금 내는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는데 정말 잘 사는데 자영업자라 소득이 많

은데도 세금을 잘 신고하지 않아서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봄. 버는 것은 많은데 지출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 소득이 많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음. 정직하게 세금신고 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D : 주변에 생활을 어려워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음. 맞벌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7~8천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산후도우미 지원에서 다 탈락함. 저희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문화예술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데 소득이 많이 잡힌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주 :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A : 감사한 일이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음. 어릴 때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공연을 보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과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부모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B :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아서 부모님이 대학로에서 영화, 공연을 자주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내 돈을 들이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아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줘야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음. 저도 어릴 때 공연을 자주 보지 않았다면 왜 돈을 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임

A : 사용처를 오픈하면 이 사업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음. 사용처에 학원, 도서 구매가 들어가면 문화예술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음

B : 아이들에게 한 번의 멋진 공연을 보여준다면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음.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 기억하기 때문

D : 딱 8세, 1년 동안만 지원하는 것인데 왜 8세만 지원하냐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을 것 같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아닐 것 같고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음

주 :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음

D : 받는 사람들은 100%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모님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B : 이 돈을 매년 모든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으니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와 다섯 살 아이가 있어서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아이와 이미 지난 아이 부모 모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음. 유치원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풍도 자주 가고 아이들이 활

동을 많이하는데, 초등학교는 소풍도 적게 가고 문화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음.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이 기억을 더 잘하는 때이고 공연장에 가서 앉아서 볼 수 있는 나이임. 핑크퐁이나 번개맨 같은 공연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잘 보지않고 초등학생이 볼만한 공연은 퀄리티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함. 이 시기 한 번 정도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주 : 왜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은 몇 학년에게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연동됨. 초등학교 1학년이 첫걸음 문화카드의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림

D : 저는 아직 꺾어보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들이 시간이 많아진다고 들었음. 또 일하는 엄마들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고 생각

C : 저는 올해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저의 어릴 때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미취학 아동/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으로 공연을 경험하는 잣대가 달라짐. 미취학 시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러 가는 것보다 아이들 활동 반경으로 찾아오는 공연이 시너지효과가 더 큼

초등학생 중에서는 저는 1학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8세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눈이 많이 뜨이기 때문이고 고학년은 문화예술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게 됨. 초등학교 1학년이 좋다는 것은 2가지 의미에서인데 유치원때까지는 찾아가는 공연과 같이 문화예술활동이 타의적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본다는 의미가 있음.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2~3학년과는 또 다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변별력이 다른 곳에서 생김. 흥미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고 문화적 순수성,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주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극을 초등학교 1학년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C : 순수하고 민감하다고 생각함. 특히 미취학 아동 시기에는 핑크퐁, 번개맨과 같은 공연을 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순수예술 등 볼 수 있는 공연의 등급이 달라짐. 이런 부분을 미취학아동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직 순수함

B : 초등학교 공연시간이 긴 공연을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때는 엄마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만 1학년 후반만 가도 호불호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적절함. 다만 1학년이 집중해서 볼 수 있을지는 고민임

C :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연 에티튜드나 공연 에티켓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음.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아마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공연 에티켓을 갖지 못할 수 있음.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이 쌓여서 공연 문화가 되는 것임. 지금 초등학교 1학년만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것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B :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이 똑같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중 몇 명이라도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2학년 때 다시 보고 싶다는 반응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함

A : 제 주위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음. 또 유치원때는 아이가 혼자 앉아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없는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8세로 지정된 것은 8세라는 나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8세가 기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함

초등학교 1학년은 엄마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이들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시기이며 학교생활의 여러 자극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함

주 :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은 나이로 따지면 7세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지원기준을 연령으로 설정하면 같은 학년 내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음. 그렇다면 연령 기준보다 학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동 : 학년 기준이 맞다고 생각함

주 : 연간 아이 10만원+부모(보호자) 10만원의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D : 사용처가 어느정도 정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음

A : 사용처가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함. 전라북도는 고액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음. 서울은 수없이 많지만 전주는 특정한 기간이 아니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주말이 되면 대전, 광주로 나가서 봄. 우리가 공연을 본다고 하면 번개맨, 핑크퐁을 보편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전주에서 하는 공연이 그것뿐이기 때문. 공연장 규모도 서울에 비하면 소극장이고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음향시설이 서울과 너무 다름

B : 저는 서울에서 아이들과 연극을 봤는데 대학로 같은 곳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여기는 아이들과 갈 만한 곳이 없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연을 서울로 보러가야 하는데 서울에 가서 1만 원짜리 공연을 보려고 4~5만원의 차비를 들여서 갈 수는 없음. 만약 문화카드가 지원될 경우 사용처를 공연으로 한정한다면 지방 사람들이 그 비용을 얼마나 소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됨. 차비가 많이 들 경우 그냥 도서 구입이나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C : 저는 적정 금액을 잘 모르겠음. 만약 A라는 공연의 정가가 4만원이고 첫걸음 문화카드로 결제할 경우 4만원에 결제해야하는데 티몬에서 티켓팅하면 2만원, 현장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할 경우 할인이 되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바우처는 할인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지원받은 사람은 티몬에서 사는 것이 낫지 내 10만원 중 4만원을 여기에 쓰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음. 공연비는 구매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2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도 소셜에서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여러 고민이 생길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음. 첫걸음 문화카드가 도입되면 이 카드를 소진시키기 위한 시장이 발생할 텐데 그들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액의 적정성을 말하기 어려움

주 : 10만원+10만원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더라도 공연을 볼 때 자부담을 포함하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B : 자부담이 있으면 안 볼 것 같음. 만약 이 돈을 주면서 꼭 뮤지컬과 연극만 봐야한다고 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거니까 아이들을 한번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을 것. 그러나 내 돈까지 써야 한다고 하면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음. 모든 공연이 다 비싼 것이 아니라서 10만원이면 공연을 5개 볼 수도 있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그 많은 공연을 내 돈까지 추가해서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D : 자부담을 하게 되면 비용지원이 아니라 할인해주는 개념같음. 정액 지원을 해줘야 나라에서 문화생활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음. 저는 지원금도 부모와 함께 주는 것은 부모와 함께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매우 좋다고 생각함. 금액의 적정성은 10만원이라는 돈이 고가의 공연은 1~2번 보면 소진되는 금액이고 영화는 9~10번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선택은 엄마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1인 10만원을 주는 것까지만 고려하면 될 것 같음

주 : 각 세대별로 20만원만 지원해도 초등학교 입학생을 40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천억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님

B : 사실 만 원, 이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적다고 볼 수는 없음

D : 이번 명절에 아이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들은 금액도 금액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음. 이런 것을 나라에서 해보라고 장려를 해준다면 아예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런 공연이 있다고 엄마들끼리 공유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접하게 해주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음. 금액은 둘째치고 부모와 함께 지원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C : 저는 어떤 것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마다 느끼는데 무작정 많이 준다고 좋지 않음. 이것은 우리 세대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1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을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임. 무작정 많이 주는 것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것들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막연히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주 : 금액의 적정성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짐. 영화를 보러 가면 9~10번 볼 수 있고 책을 사면 7~8권이 가능하지만 뮤지컬은 잘못하면 1회, 잘하면 2회 정도임. 취지에 대한 부분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처의 문제가 있음. 저희가 예시로 적은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처를 반영한 것임

그렇다면 만약 20만원이 지원될 경우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으신지 문의드립니다

A : 저는 전주나 전북에 볼 만한 공연이 있다면 공연을 보러 갈 것임. 영화는 사실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지원될 경우 일상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할 수 없던 뮤지컬을 보거나 앤서니 브라운 전시처럼 쉽게 보기 힘든 전시를 보러 갈 것임

B : 멋진 공연을 보고 싶음.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 : 아동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부모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음

B : 맞음. 엄마가 공연을 보기 싫어하면 지원금액을 모두 서점에서 사용할 수도 있음. 저는 문화카드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사용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일 편한 것은 영화나 도서 구매이기 때문에 사용처 기준에 정책취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영화와 도서 구입으로만 사용될 것

D : 예를들어 문화불모지, 섬에 사는 아이들은 카드가 있어도 사용처를 뮤지컬, 공연, 연극, 클래식으로 한정한다면 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음.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용처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B : 저는 무조건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와서 보아야 하니 어려울 것 같기는 함

D :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뮤지컬을 보여주고 싶음. 하지만 문화소외지역의 아이들은 공연으로만 제한하면 어려울 것. 공연 위주로 사용처를 정하려면 그 전에 공연의 수를 늘려야 함

B : 최상위 소득수준의 사람들은 이 돈을 별로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 : 호불호가 없을 수는 없고 어떤 정책이든 말은 다 나옴. 전북에 국한되어서 시행되는지?

주 :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예산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지역을 한정해서 작게 시도한 후 언론에 많이 나오고 국민 요구가 확대되면 점차 지역이 확대될 것. 다만 1학년 부모라고 하면 내 아이는 2학년인데, 내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하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함

B : 모든 것은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음

C : 저는 사용처는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되 사용처 기준을 정해서 아이에게 고르게 할 것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야 아이가 고를 수 있음. 다만 문화 인프라가 없을 경우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딱 공연비만 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로워지면 도서관 사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됨

B : 2명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 서울은 평일에도 금방 보러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주말에 가족 전체와 함께 봐야함. 처음에 이 정책을 들었을 때 내 돈으로 아이들 책 사주는 거 이것으로 사주어도 되겠다 싶기는 했음

주 : 도서는 교재나 학습지는 제한할 수 있음

C :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D : 교습소의 사용처 지정은 애매함. 아이들이 댄스나 뮤지컬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 이 카드를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한 학원 교습소는 문제가 있음

B : 한 달치 교육비인 것도 문제임. 한 달 배우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 배워야 한다고 하면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음

주 :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나온 내용임. 저희가 교습소를 사용처 예시에 넣은 처음 취지는 문화예술을 해보야 관심을 갖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 학원·교습소를 넣은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한 달치 교육비라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왔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음

B : 만약 제가 아이를 피아노학원에 원래 보내고 있는데 이번 한 달치는 이 카드로 결제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음. 하지만 새롭게 아이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취지는 좋은데 한 달 이후에 교육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상처가 될 것

A : 아태문화회관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 돈을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만든 다음에 이 카드를 지원한다면 비싸서 못했던 프로그램 체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음. 하지만 학원은 매달 배워야하기 때문에 어려움. 아태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탈춤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분기별로 기획해서 여기에 10만원을 쓸 수 있게 한다면 아이와 함께 체험하고 비용을 소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하지만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음. 교습소나 학원은 남용될 수 있음.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인프라가 있으면 뭐든지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영화나 키즈카페 정도임

주 : 놀이공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B : 어릴때는 걷는게 힘들고 키 제한 때문에 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초등학교가 되면 이제 좋아할 나이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 놀이공원을 가자고 할 가능성이 높음

주 : 이 사업의 취지가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 사업 취지에 맞는지를 생각해서 말씀해주신다면?

B : 놀이공원을 체험해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놀이공원도 여기서는 쉽게 갈 수 없음. 에버랜드, 롯데월드는 지방에서 쉽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공원을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한 번 정도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D : 저는 취지에는 덜 부합한다고 생각함. 첫걸음 문화카드이니까 놀이공원과 여행은 문화보다 여가생활에 가깝다고 생각함. 아이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움 문화활동을 접하게 한다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굳이 놀이공원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람과 체험 위주로 가야함

C : 부모의 니즈와 아이의 니즈가 분리됨. 부모가 생각하는 문화는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레저, 워터파크,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오락과 레저가 나쁜 것은 아닌데 공연과 같은 순수예술을 아이들에게 자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함. 바우처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음. 평소에 하지 못한 것, 평소 선택지에서 밀려나는 것을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준다면 놀이동산을 꼭 넣어야할까 싶음. 정책취지를 고려했을 때 워터파크나 놀이동산까지 넣어버리면 취지가 무색해지고 놀이동산과 워터파크는 금액이 높더라도 아이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평소 경험할 기회가 많음.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동안 선택지에서 밀려났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B : 이 20만원을 꼭 아이와 가지 않고 부모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음

주 : 그게 부작용임. 도서관의 경우에도 부모의 책을 사고 아이 책을 산 것처럼 할 수 있음

주 : 저희가 FGI를 다니면서 의견을 받았을 때 도서관에서 학습지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심. 다만 부모님 도서관을 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지의 부분은 어떤 책을 샀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움. 그 책을 다 부모님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도서관은 전면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D : 저는 도서관 활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 구입을 꼭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처를 정한다면 공연이나 체험과 같이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C : 궁금한 것이 공연 카테고리 내에서는 부모 위주의 공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주 : 시스템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음

C : 부모끼리만 가서 공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티켓 비용이 같을 경우 아이 것으로 예매했는데 아이가 못 가게 되면 성인 2명이 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실 것인지?

주 : 아동과 성인이 티켓 금액이 다르면 어느정도 구분은 할 수 있음

C : 티켓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아이와 동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필요함. '이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꼭 아이와 동반해야 함'과 같은 제한을 하지 않으면 도서관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부정 사용이 있을 수 있음.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기 어렵고 개인의 양심과 부모의 선택의 문제는 도서관 구입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

주 : 동의함. 지적해주신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임

B : 부모도 1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그 돈으로 육아서적을 살까 생각하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부모면 거의 사지 않을 것 같음.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모는 결국 부모가 읽을 책을 사는 것이고 아이들이 읽을만한 만화책 같은 것은 1권씩은 사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문화에 포함이 되는게 맞는지 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도서는 아예 제한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됨

A : 첫걸음 문화카드는 아이의 문화예술활동을 돕기 위해 부모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인데 부모의 문화예술활동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됨. 도서나 교습소를 허용하면 갭 벌어짐. 영화나 공연을 보러갔을 때 아이와 부모의 금액이 다를 경우 이런 갭은 어른 것은 모자란 부분은 채워서 같이 갈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도서나 여행이나 교습소는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 사업의 취지는 아이의 첫걸음을 부모가 손잡고 도와주기 위해 같이 가는 것인데 굳이 편중될 걱정을 하면서 도서, 여행, 교습소를 넣을 필요 없이 아예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첫걸음을 단계 해주자는 것은 접근성이 먼 것, 비교적 멀게 느껴지는 것들을 어린나로부터 같이 시도해서 익숙해지게 해주자는 것임. 저는 어린시절에 본 공연의 문화적 충격과 설렘이 아직 남아있음. 접근성이 먼 것을 위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D : 예시에 나온 상위 3개(공연, 전시, 영화) 이 정도만 사용처로 해도 왜 이것 밖에 안되냐는 불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음

주 : 서울은 상위 3개(공연, 전시, 영화)만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방 소도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함

B : 만약 제가 지방에 사는데 일단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 카드가 주어진다면 지방에도 공연이 많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공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D : 도서산간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런 공연이 있으니 많이 보러 나오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함

주 :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저소득층 대상 연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시에 나온 부분은 다 허용이 됨. 잘 쓰시는 분들은 크게 의견이 없는데 사용처가 없어서 못쓰시는 분들은 왜 무조건 쓰라고 돈을 주냐고 사업을 없애라고 항의하기도 함.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함

주 : 지금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고 금액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도 있을 수 있음

D : 첫걸음 문화카드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사이버머니식으로 제공,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파크를 접속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공연, 전시, 영화 분야는 온라인 사이트 방식 결제가 가능할 듯

주 : 그럴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주 :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함.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음

C : 카드 사용방식이 가장 익숙함. 1년 사용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보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 모두 갖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에 연계하는 것이 좋음. 어차피 사용은 7살 졸업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1년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함

B : 그 카드는 1장 발급받으면 큰 아이때 쓰다가 작은아이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에 들어가는 보다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보다는 연계하는 것이 좋음.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 중 이 카드가 없는 사람은 없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만 따로 발급받게 하면 될 것. 연회비도 없어서 좋음

D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문화상품권 온라인몰과 같은 것임

A : 양도가 가능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기저귀 바우처 같은 경우 기저귀를 사서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수수료 떼고 되팔기도 함. 이런 문화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문화를 싫어하는 부모도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문화생활에 쓰지 않을 수 있음.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행복카드를 연계해서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함.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교육비 지급 기간이 끝나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계속 사용은 가능함

C : 저는 신한은행 아이행복카드를 쓰고 있는데 연회비가 없으니까 굳이 없애지 않고 가끔 생각날 때 카드를 사용함

B : 혜택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 카드로 사용하지는 않음

주 : 그 카드는 부모 명의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일동 : 맞음

주 :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아이나 조손가정의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B : 어린이집, 유치원은 무조건 그 카드로 결제해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의로 발급이 되었을 것

A : 그 카드가 없는 친구들은 문화카드 신규발급을 아이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필요함. 유치원 취학을 안한 상태로 학교를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시설 자체에서 누리과정을 한다고 들었음. 그렇게 되면 아이행복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음. 그럴경우 청소년 카드처럼 아이 이름으로 문화카드가 발급되어도 좋을 것 같음

주 : 만7세나 8세 아이들 대상으로 카드발급이 되지 않음. 여신법이나 금융관련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발급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도 개정을 해야하는데 지원하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회에서 지적도 덜 받기 때문.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기는 함

A : 동사무소에 방문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등록하게 하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D :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로 학교에서 발급하는 방식도 써 있는데

주 : 학교는 부담이 될 수 있음.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를 아이를 통해 학교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스러움

B : 요즘 초등학교는 돈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미 계좌 정보를 알고 있음.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기존 정보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D : 따로 동사무소를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입학 절차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주 : 아이행복카드에 연동하는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님. 부처가 달라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주 :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카드는 2월 1일부터 발급신청을 시작하면 3월 안에 160만 명 지원 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70%까지 발급을 받음. 이 시기 주민센터가 폭발 직전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급방식이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함.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센터의 불만도 줄이고 학부모님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B : 학교를 통해 하는 것이 제일 좋음. 어차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부모가 동사무소에 갈 필요없이 학교에서 처리해주면 좋을 것

주 : 그럼 다들 신청은 학교를 통해 하시는 것이 편하다는 말씀이신지

일동 : 맞음. 엄마들도 편하고 누락될 염려도 없기 때문임

주 : 학교에서 신청서류가 오게 되면 아이가 빠트리거나 부모님이 체크 못하신 부분을 다시 완성시키기 위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함

B : 요즘은 학교에서 알림장이 파일에 넣어서 오고 알림장을 선생님이 따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정보를 안 볼 가능성은 별로 없음

주 : 만약 아이가 20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학교에서 받아서 집으로 전달할 경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타인이 강제로 가져갈 위험성이 있음

D : 저는 그래서 전용 온라인 사이트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함. 다만 조손가정이나 인터넷 사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음. 요즘 아이들은 빨라서 8살만 되어도 인터넷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관리를 조금만 해주신다면 가장 불편함도 없고 다른 부처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선불카드는 위험할 수 있음

B :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매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

주 : 2개가 다 있어야 하는 상황임.

주 : 학교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에 얹혀서 받으면 사용하시기는 편함. 다만 먼저 받았던 수당은 어디에 쓰시는지 파악을 안 하는데 저희는 어디에 쓰시는지 파악을 해야 함

A : 복지로 앱을 깔면 그 체계를 다 볼 수 있음(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도 첫걸음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앱에 바코드 같은 것을 넣어주고 금액이 소진되는 과정을 앱에서 관리하게 하면 좋을 것.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계속 양해를 받는 것보다 신설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아이 이름으로도 핸드폰이 발급되기 때문에 부모가 없거나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하고 앱은 폰으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컴퓨터로도 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음. 누군가가 일괄로 이 아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C : 요즘 모바일, 온라인 시스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 조금만 연세가 있거나 이주여성분들 같은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지 못함. 우리한테는 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분들에게는 실물카드 지급이 필요함. 이런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사용을 포기할 것 같음

주 : 만약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지, 서울처럼 인프라가 많은 지역이 좋을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접할 수 없는 지역이 좋을지?

B : 꼭 한 지역에서 해야 하는지, 서울이랑 지방은 너무 다르기 때문. 대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한다고 하면 서울의 한 지역과 지방의 한 지역을 같이 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A : 부정적 반응을 얻기 싫으면 서울이 낫고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듣고 싶으면 지방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음. 서울처럼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하면 잘 된 모습만 보일텐데 그게 정말로 확대되어서 시행되었을 때 반응이 다를 수 있음

□ 교사 FGI

- □ 일시 : 2019.02.13.(수) 14:00~15:30
- □ 장소 : 서울 OO초등학교
- □ 참석 : 서울 OO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교 : 1학년 담임교사

*주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주 :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문화예술교육이나 단체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교 : 학교마다 많이 다르고 학교 근처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름. 1학년을 데리고 문화체험을 외부로 가는 학교들도 있음. 문화예술회관이 근처에 있는 학교는 1년에 몇 번 가서 보기도 하지만 우리학교 처럼 외딴곳에 있는 학교는 차량을 대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음. 올해는 못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 연극을 하는 팀이 학교에 와서 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정도였음. 신청을 해야 오는 것이기는 한데 학교에 없는 체육시설 에어바운스 등을 가지고 와서 설치해주면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던지 정도임. 아니면 이전 학교에서는 스케이트장을 가기도 했음.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의 범주임

주 : 학교로 오는 공연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인지?

교 : 학교로 공문이 오는데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제출해서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음

주 : 거의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것인지?

교 : 문화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주 : 문체부 사업들 중에 학교로 보내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교 : 모든 학교에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음. 학교에서 업무 담당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좀 다름

주 : 선생님들이 정보를 많이 아시면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지?

교 : 부장 선생님 선에서 공문을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일반 교사에게 까지 공문이 다 내려오지는 않아서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기는 함

주 : 학교 교육 외 방과후 수업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이 있는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교 : 방과후 수업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지불함

주 : 방과후 활동에 문화예술활동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교 : 피아노,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 토탈공예(만들기)와 학년마다 항목이 다르긴 한데 1~2학년 문예제는 발야구와 같은 체육 쪽도 있음

주 : 보통 1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인지

교 : 나중에 저에게 해주실 질문과도 관계가 있음. 질문지 뒤에 1학년이 적절한 연령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께도 여쭙보니 다들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정책이라면 1학년이 좋은 학년이라고 생각함. 아이들이 좀 더 자유분방하게 있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의 엄격한 규율에 들어와서 한 순간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또한 1학년은 6학년과 달리 아직 자기 기호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것이 제공되더라도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고 어떤 자극도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음. 4~5학년 올라갈수록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 영화를 한편 보거나 공연을 본다는 것이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에 비해 더 큰 자극이 됨. 또한 고학년은 사용 분야가 한정적일 것, 영화 보는데 다 쓴다던지(본인 의사에 의해 관람하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은 똑같은 연극공연을 제공했을 때 6학년보다 더 재밌게 볼 것임

5~6학년 고학년에 올라가면 청소년에 더 가까운데 어린이 대상 공연도 부족하지만 청소년 대상 공연은 더 부족함. 그 아이들이 갈만한 공연, 전시 등의 공급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음. 6학년 아이들은 연극을 봤을 때 많이 재밌다는 반응도 나오지 않음. 또한 고학년이 보는 공연 비용과 저학년이 보는 공연 비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학년이 같은 금액 내에서 더 많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주 : 6학년쯤 되면 성인 대상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고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재미를 못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1학년이라는 나이를 잡은 게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첫걸음이라고 사업명이 붙었다고 생각함

말씀하신대로 1학년에 문화예술활동을 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좋다고 하셨는데?

교 : 좀 더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임

주 : 아이들이 아동 뮤지컬 같은 것을 볼 때 집중을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어리지는 않을까?

교 : 제 생각에는 1학년도 재미가 있으면 보고 집중이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고학년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함. 1학년들이 더 어렸을 때 4~5살때부터 어린이 공연 보러 다니는 경우도 많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1편은 충분히 봐왔음. 공연이 3시간짜리가 아니라면 충분히 집중해서 볼 수 있음. 길면 2시간까지 볼 수 있음

주 : 저학년보다 4~5학년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유가 저학년은 집중을 못한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어차피 어느 학년이 되었던 집중하는 비율은 비슷할 것 같음

교 : 어느 학년이든 안 보는 애들은 안 보고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함. 물론 1~2학년이 상대적으로 집중을 못 할 수는 있음.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의 질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함. 1학년이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최근에 아이들에게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여주었음. 아이들이 60분 이상 앉아서 보고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말을 울면서 보았음. 이처럼 문화콘텐츠의 질이 높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초등학교 1학년이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해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충분히 문화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함

주 : 제가 지난주에 창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이 아동 뮤지컬 퀄리티를 다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좋은 의견 같음

주 : 아이들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수가 적고 그 질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부모님이 관심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보시지만 여기처럼 주변에 뭐가 없고 일상에 쫓기다 보면 보기가 쉽지 않음

주 : 요즘 1학년들 학교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지?

교 : 점심 먹고 집에 가면 1시, 2시, 3시 정도

주 : 대부분 문화예술활동을 주말에 하기는 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평일에 부모님과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학년에 여유로운 편인지?

교 : 초등학교 1학년이 여유로움. 6학년은 거의 6교시 수업이어서 거의 3시에 끝나고 4~5학년도 비슷함. 평일에 문화예술활동을 한다면 1학년 아니면 2학년이 적합함. 점심 먹고 나가서 1~2시간짜리 공연을 본다면 2~3시 안에는 시작을 해야 끝나고 저녁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학년이 1, 2학년임. 3~4학년도 6교시가 많고 4교시는 하루밖에 없음

주 : 초등학교 1학년이 방과 후에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교 :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여기 아이들은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음. 여기 바로 건너편 학교가 제 첫 발령지였는데 거기는 1학년도 다 학원에 가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음. 저희 반에 20명 중 15명은 태권도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이 영어학원 1~2명, 수학·국어 보습학원도 몇 명 있었음. 그런데 여기는 공부보다 보육의 의미로 가는 아이들이 많음.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집에 없기 때문에 학원에 가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오는 시간에 집에 올 수 있게 학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임

주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돌봄교실이 있지 않은지?

교 : 돌봄교실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고 신청자가 넘치면 추첨을 함. 이전학교에서는 자리가 비었는데 여기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음. 거기를 못가면 그 시간까지 학원을 돌게 됨

주 : 요즘 아이들 방학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교 : 중간방학처럼 자율휴업일이 있어서 저희 어렸을 때 보다는 짧음. 예전에는 쉬는 날짜를 방학에만 몰았다면 지금은 쪼개서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35일 정도임

주 : 1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 신청을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예를들어 입학 직후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1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교 : 4번 질문인 개인/단체 신청방식과 연결되는 건데 첫걸음 문화카드의 발급방식을 보고 약간 염려스러웠던 것이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방식의 적정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

주 :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부를 통한 지원정책은 대부분 개별신청의 방식인데 학교를 통한 단체신청 방식도 고려의 대상으로 나온 것임

교 : 수익자는 아이들과 보호자이고 그걸로 이득을 보는 것은 문화예술 공연장인데 그 사이에 학교가 끼여야 하는지가 의문임. 3월은 교사들에게 굉장히 바쁜 달이고 이게 아니어도 수많은 서류를 걷고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1학년에게 신청서를 받는 것은 힘들 것임.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이 공문을 받아서 가정통신문으로 만들어서 다 배부했다가 걷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보내야하고 또 제출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임

주 : 그래서 뒷장 질문에서 학교를 통해 신청할 시 학교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인지 여쭙보려고 함

교 : 사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하면 해야 하겠지만 달갑지 않은 정책이고 부담이 됨

주 : 보통 정부에서 이런 바우처 정책 시행할 때 개별로 신청할 경우 동주민센터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는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수혜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보니 개별로 신청할 경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조손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신청이 누락 될 수 있기 때문임

교 : 그 부분은 동의함. 그러나 학교에서 하면 교사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보내고 문의전화가 오면 답변을 해주어야 함. 정책 시행을 하는데 고객센터가 학교가 되는 것임. 모든 질문을 다 학교 선생님에게 하게 되고 그럼 교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다시 정부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또 학부모에게 답변을 해야 함. 일이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일을 학교를 통해서 하면 중간단계가 또 생김. 학교에서 도움을 준다면 가정통신문 발송을 하는 것임. 이런 정책사업이 시행되니까 꼭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것까지는 학교에서 할 수 있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머니들이

질문하시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있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음. 하지만 어머니들이 신청서를 저희에게 내시면 미가입 신청서 확인해야하고(이런 경우가 진짜 많음) 또다시 돌려보내고 전화해야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함.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으면 방문해서 한 번에 내면 끝나는 것임. 학교는 어머니들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잘못 기입되면 바로 처리가 안되고 다시 돌려 보내야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림. 주민센터에 가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학교에서는 1주일도 걸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임.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언제부터 지 원센터에서 접수하니 꼭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는 정도가 훨씬 더 효율적임

주 : 저희도 단체신청을 고려할 때 고민을 했던 것이 중간 전달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신청서가 누락될 가능성 때문임

교 : 맞음. 누락되어서 어머니들께 연락 드리면 어머니들이 한 번에 잘 써서 주시지 않음. 제대로 안 읽으시기 때문에 계속 돌려보내고 다시 받고를 반복함. 1학년 학부모님들은 부모님들도 처음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1학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됨. 이런 시스템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3월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가정통신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시스템이 아직 낯선 시기임

주 :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된다면 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에 부담이 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교 : 어떤 식으로 받아가실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신청서를 나눠주고 종이를 취합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받아서 이것을 전부 문서화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

주 : 수거만 하셔서 주관기관까지 보내는 업무로 진행된다면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교 : 누가 와서 해줄 정도의 일은 아니고 교사의 업무만 추가되는 것임. 문서화해서 누가 신청을 했는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조사해야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려움

주 : 학교로 학부모님 개인정보 보낼 일이 많은지

교 : 저희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고 학부모님들 개인정보를 받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임. 개인정보 담긴 것이 컴퓨터에 저장되면 바로 경고가 뜸. 돈과 관련된 부분, 보호자를 누가 할 것인지 등의 부분을 다루는 것은 예민한 부분임

주 : 학교를 통해서 보내면 학부모님들의 신상, 계좌가 다 학교로 가야 하기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음

교 : 왜냐면 그런 정보들이 저희가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문서화 작업까지 해야 한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중간에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움

교 : 이 사업이 카드로 발급이 되는 것인지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함

주 : 크게 3가지 정도 생각 중임. 일단 선불식 포인트카드, 신용기능이 들어간 카드, 온라인 전용몰(선결제만 가능)임.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반대하심. 문화예술 활동으로 쓰는지 알 수 없고 정책취지에 맞게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카드로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많음

교 :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안 할거라면 사용처의 제한을 둔 카드의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맞을 것

주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음

교 :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쓰는 카드가 있지 않은지

주 : 교육비 내는 아이행복카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 : 그걸 7살까지 쓰는데 8살까지 연장해서 쓰면 안되는 것인지?

주 : 그 이야기가 나왔었음.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하면 부담이 되니까 기존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은 어떠냐에 대한 논의가 있음.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하는 아이행복카드에 얹어서 주었으면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분도 계심

교 : 아이행복카드는 매우 오래 쓰는 것인데 문화카드는 딱 1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를 또 만들라고 하면 부담스러움. 저는 카드를 여러 개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됨. 그럴거면 선불카드가 나올 것 같음. 다만 선불카드는 남은 금액에 개인 돈을 추가해서 쓸 수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함

주 : 본인충전금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이 되어야 함. 본인충전금이 안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카드로 별도 결제해야 할 것임

주 : 선생님께서는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 : 솔직히 여기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음. 보편적으로 지원했을 경우 강남의 부유한 아이들에게 이 20만원은 라이언킹 한번 볼 돈도 안되는 의미이지만 여기 아이들에게 20만원은 영화도 보고 체험도 하고 소소하게 쓸 수 있는 돈임. 똑같은 10만원이지만 그것의 효용가치는 분명 여기 아이들과 부유한 아이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면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에게 줄 돈을 여기 아이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는 함. 다만 보편적 지원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교육복지 대상자가 되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어딜 갈 때도 돈을 내지 않고 간다던지 학교 안에 지역사회전문가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따로 계셔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체험 활동을 연계해서 하게 해줌. 그런데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일하셔서 교육복지 대상자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복지혜택은 볼수 없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할 여유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 10

만원이 매우 가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서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게 만약 소득수준을 반영해서 지급한다면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대상에서 또 탈락할 수 있음. 취지가 문화예술활동을 해보게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당장 먹고살 것을 걱정해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화예술을 경험할 여유는 없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임. 보편적 지원방식을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지원방식이 주는 장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문제임

주 : 다 주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점이 있다면 행정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는 할 것

교 : 개인적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찬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수준을 구분하는 것도 애매하고 교육 복지 대상자 중에서 실제 생활은 넉넉한 경우가 있음. 자영업자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라는 기준이 한계는 있음.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객관적이면서 간편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주 :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지원형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기회를 주려면 보편적 지원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어려운 모든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영화 한 편이라도 연극 한 편이라도 보게 해주는게 이 사업의 취지라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생각함

주 : 아동 10만원+어른 10만원이라는 비용이 비싼 뮤지컬을 보면 사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임. 연간 20만원이 초등학교 인근의 인프라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교 :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임. 부유해서 문화생활을 자주 누리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공연을 생각하면 한번 보는데도 모자랄 수 있고 여기처럼 소소하게 보는 곳은 몇 번 볼 수 있는 금액임. 그렇다고 회당 금액 제한을 하면 괜찮은 공연을 보지 않고 퀄리티가 낮은 공연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임

교 : 문화카드가 지원되어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길 것.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처럼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많음. 경제적 여유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음. 여기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는 아이들도 많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가정의 보호자들이 이걸 과연 쓸 수 있을지 걱정임

주 :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럴 경우 법적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데리고 간다거나,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기관장이 대신 데리고 가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교 : 이건 저의 개인적 생각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담임교사가 데리고 다니는 것은 이미 있음. 사제동행 멘토링이라고 해서 학급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담임 교사가 신청해서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돈을 줌.

식사를 해도 되고 만드는 체험 활동, 동물원, 박물관, 영화관, 도서 구입, 딸기 따는 체험 등등 어디든 쓸 수 있음. 그리고 이런 사제 멘토링 정도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여기는 문화카드를 이용해서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식비, 교통비 조차도 부담인 집들이 있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가치있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쓰기 편한 곳이 쓰일 가능성이 있음. 금액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어느정도는 1만원 정도 금액 제한을 두어서 부담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비용 지원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왜냐하면 비슷한 지원사업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하지만 고민할 필요는 있음. 저희가 연천 쪽 부모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돈이 지원되어도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교통비가 들고 밥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이 비용을 쓰러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

교 : 그런데 다른 교사분이 저에게 아이가 여럿인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심

주 : 저희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임. 개인당 지원으로 갈 것인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있는 가구당 지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옴. 왜냐하면 아이가 한명이 있는 집이면 상관없지만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 한 명만 데리고 가지는 않는데 그럼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인지, 원칙대로 한다면 아동과 어머니 한 명 금액은 문화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다른 자녀와 아버지는 다른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번거로운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그래서 그것도 여쭙보려고 했었음. 장단점이 있는데 가구당으로 가면 결제가 편리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사라짐. 개인당으로 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됨. 선생님께서는 개인당 지원과 가구당 지원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 : 정책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대상을 1학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1학년 아이와 보호자 한 명이 가장 적합하기는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여럿인 집에서는 아이 한 명만 데리고 나가면 나머지 아이는 누가 봐줄것이나 문제가 발생함. 나머지 아이는 집에 있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임. 이 정책으로 인해 또 문화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하더라도 아동은 좀 더 넓은 범위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주 : 저희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임. 동생도 같이 가서 결제하면 안되는지, 만약 다른 자녀의 비용을 결제할 경우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등임. 시스템적으로 적발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움

교 : 회당 5~7만원 정도 지출되는 금액인데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잡아낼 바에는 아예 오픈을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 보호자는 1명만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가족이면 셋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주 :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은 정책 취지는 개인당이 맞으나 현실적인 측면이나 사용자 측면에 서는 보호자만 1인으로 제한하고 아동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음

교 : 꼭 부모가 10만원을 다 써야 하는지, 부모 비용을 아동에게 줄 수는 없는지 궁금함

주 :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임. 예를들어 통으로 20만원을 아이가 쓰게 하면 안되냐는 의견도 있었음. 다만 부모님이 같이 가서 보는 것이 가족 활동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고민임

교 :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제 멘토링의 경우 책을 살 수도 있음. 적어도 부모가 7만원의 공연 보고 3만원이 남았을 때 이것으로 아이에게 책을 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이렇게 금액을 10만원+1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공연을 같이 보기 위한 것임은 알고 있음. 하지만 같이 공연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꼭 부모가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도 있음. 블록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옆에서 같이 할 필요는 없음. 공연은 같이 옆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체험활동을 하거나 박물관 도슨트 프로그램은 비용을 두 배나 내고 부모까지 따라다닐 필요가 없음. 아이보다 부모가 덜 사용한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10만원+10만원으로 나누기보다는 20만원을 통으로 지급하고 공연을 볼 때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한다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지

주 : 아동과 부모님 명의로 카드가 2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한 번에 20만원이 나갈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효율적이기는 함

주 : 도서 구입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용처를 고민하고 있음. 유사사례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있는데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만 6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카드임. 통합문화이용권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공연, 영화 관람은 당연하고 숙박비, 교통비, 도서 구입도 가능함. 저희는 그것보다는 범위가 좁아질 것 같음. 그렇다면 첫걸음 문화카드의 사용처로 공연 관람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 : 적절하다고 생각함

주 : 미술관, 전시관 관람과 영화관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 : 많은 지역에 있는 것이 영화관이기 때문에 영화는 괜찮다고 생각함. 영화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울 아이들은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지방 아이들은 공연으로만 한정하면 이 카드를 못 쓸 수 있음. 영화관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주 :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도서 구매임. 통합문화이용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도서 구입, 그다음이 영화 관람이고 사실 공연은 10퍼센트도 안 된다고 함. 도서를 보는 것 자체를 문화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도서 구매를 허용하면 연초에 책만 많이 사고 저희가 원하는 가족끼리 공연을 보러가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도서도 모든 도서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음. 지자체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는 도서 구입을 허용하지만 교재와 학습지는 안된다고 제한을 걸어 둬. 도서 구입은 허용을 해야 할지 허용을 하게 된다면 교재나 학습지도 허용하는게 맞는지 여쭙보고 싶음

교 :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이라고 사업취지를 소개하셨으니 이것을 보면 도서는 취지에 맞지 않음.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함. 이 취지를 봤을때는 도서는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걸리는 문제는 서울이야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대부분 지역은 영화밖에 볼 수 없음. 우리나라에 어린이 공연의 인프라가 미비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돈만 주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함. 근처에서 공연을 해도 발 빠르고 자식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있는 부모들은 보러 가겠지만 여기처럼 하루 벌여 하루 살아야 하는 지역은 엄마들이 이걸 찾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음. 그런 정보가 너무 없음.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어떤 공연장이 있는지 지금 무슨 공연을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상황에서 돈만 주면 엄마들은 영화나 봐야겠다고 생각할 것 같음

주 : 너무 사용처가 한정되면 소진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할 것임

교 : 영화 몇 번 보면 되니까 소진은 할 수 있음. 다만 취지가 영화 관람 보다는 아이들이 평소에 하기 힘든 것들을 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린이 공연이나 어린이 체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가 볼 수 있게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함.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제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 : 맞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는 것임

교 : 홈페이지를 만들고 주소 넣으면 이 주변의 공연이 무엇이 있는지 다 뜨는 인프라가 있어야 함. 이런 정보가 있어야 이 돈이 사용되지 않아서 찾아보라고 하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찾아서 보실지 의문스러움. 이런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쓰임새 없는 영화관람에만 사용될 것임

주 : 정책취지에 맞게 진행하려면 인프라 구축 및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음

교 : 그게 가장 중요함. 당장 내년부터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 이 취지는 정말 좋고 시행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쓰일 것임.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돈만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것임. 결국에는 그 돈이 그다지 필요 없는 부모님의 관심이 이미 많은 집에서만 그 가치대로 쓰이겠지만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소외지역의 아이들은 결국 그 돈을 가치없게 사용할 수도 있음

주 : 이 비용이 주어진더라도 지방에서는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면 지방에 퀄리티가 있는 첫걸음 문화카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교 : 저도 동의함. 사실 지방은 학교랑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는 함. 학교에서 단체관람을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힘들 것임

주 : 엄마, 아빠가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가면 안되냐는 의견도 있었음

교 : 맞음. 사실 한부모 가정의 아이, 돌봐주시는 조부모님 안 계신데 엄마가 바쁘면 이 아이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생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8세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학년을 집어넣으니까 자꾸 학교와 연계하게 됨

교 : 모두 반드시 부모와 가족이 써야한다면 8세든 1학년이든 관계가 없는데 만약 일정 비용을 학교로 돌려서 다같이 이 돈으로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간다거나 차량을 대절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1학년으로 해도 괜찮기는 함. 다만 그럼 또 어머니들 카드에 들어있는 돈을 학교로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복잡하기는 함

주 : 맞음. 예를들어 20만원 중에 5만원을 학교에서 쓰겠습니다 하면 동의를 다 받아야하기 때문에

교 :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보편적 지원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학교에서 일괄로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기는 함

주 : 선생님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리게 하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기는 하다 이것인지

교 : 맞음. 특히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돈이 있어도 공연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교 : 그것과 관련 질문이 있는데 단체로 차량을 빌려 공연을 보러갈 경우 차량비용을 지원 금액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버스를 대절하면 1명당 1만원이 넘게 내야 하는데 이것을 문화예술 금액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함. 퀄리티 있는 공연 제공이 한정되어 있는 지역은 공연을 가장 가까운 회관에서 할 때 단체로 볼 수 있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여기 취지대로 가치있는 문화예술활동에 쓰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됨. 부모가 바쁘고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지역에서는 더 필요함

주 : 저희도 부모님 인터뷰를 하면서 고민을 한 것이 저희가 한 번에 부모님 네 분 정도를 모셔놓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 오실 정도면 이미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것임. 항상 다 소진할 수 있다, 비용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여가시간도 충분하다고 말씀해주심.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심

교 : 저도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 했을것임. 여기와서 보니 과연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김.

주 : 이곳은 서울인데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정말 산골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함

교 : 제가 책이 되냐고 여쭙본 이유가 영화관도 없는 지역은 책까지 안 되면 쓸데가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린 것임. 그럴때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러 가야 하는데 그럼 부모가 동의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부모가 동의를 안하면 그 아이는 빼고 가느냐 등등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기는 함

주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관람하는 부분은 지방처럼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고려해볼 사항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지?

교 : 맞음

주 : 도서 구입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인지

교 : 동의함.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음. 사실 1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을 더 좋아함.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지는 궁금함

주 : 이 자료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저희 설문조사 목록에 있었고 다들 체험 프로그램을 선호하심.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키자니아, 잡월드 등이 있음. 체험 프로그램은 공예, 만들기 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심

교 :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좋을 것

주 : 놀이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놀이동산은 부모님들은 많이 찬성하시는데 고민되는 것이 입장료가 비싸다 보니 한 번에 비용을 소진한다는 점과 위락시설의 성격이 있기 때문임

교 : 문화예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애매함. 예를들어 에버랜드는 사파리도 보는 것도 문화생활이긴 함. 롯데월드 같은 곳은 진짜 위락시설 같은 것 같음

주 : 어머니들 말씀은 놀이공원 가면 공연도 해주고 동물원도 있고 하니까 문화활동과 다르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민이 됨

교 : 놀이동산은 솔직히 애매한 것 같음. 놀이동산을 허용하면 좋은 점은 자기 돈 내고 가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놀이동산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저희가 작년에 1학년이 롯데월드로 소풍을 갔는데 처음 와본 친구들도 있었음.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음.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픈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음. 가서 공연을 볼 수 있고 퍼레이드도 있고, 예쁘고 조경도 있고 꿈과 환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꿈도 꺾보고 환상도 가져볼 수 있음. 부유한 아이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아이들은 롯데월드 다녀온 이야기를 매우 오래 했음.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롯데월드라고 이야기 한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그 경험이 강한 것임. 문화카드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장점이 같은 반 친구들끼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임. 놀이공원은 취지를 봤을 때는 좀 애매했는데 저희 반 아이들과 했던 경험을 비추어보면 괜찮다고 생각함. 평소 해보지 않았던 체험, 자극이 제일 중요한데 놀이공원은 자극은 충분히 됨

주 : 여행을 허용하느냐의 부분도 논의가 있었음.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관광지 입장료보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는 것임. 통합문화이용권은 교통비와 숙박비가 형용이 됨. 물론 금액이 적어서 다 낼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저희가 여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허용할 시 교통비와 숙박비도 허용해야 할지 여쭙보고 싶음

교 :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중요함.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행을 가서 체험하고 멀리 제주도에 가서 공룡박물관에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교통비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주 : 사실 교통비는 부대비용임. 다른 지원 정책도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

교 : 솔직히 제주도든 어디든 멀리갈 수 있는 집은 원래 여유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굳이 지원해야 하나 싶기는 함. 만약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정말 금액 제한을 둔다던지 해야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는 밥 한 끼 사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나가는 집이 많음. 그렇다면 그런 가정을 위해 한 끼의 밥 정도 식비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음. 물론 비용제한을 걸어야 함. 만약 숙박비나 교통비를 지원할거라면 근거리 공연장을 다녀오더라도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음

교 : 멀리 여행을 가는 집은 이미 돈이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오히려 숙박비, 기차비를 다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정작 멀리 갈 돈이 없어서 가까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집은 부대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것 같음

주 : 정책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교통비, 숙박비는 제한하는 것이 맞을지?

교 : 어디든 체험에 대해서는 열어놓지만 제한을 걸 것이라면 교통비, 숙박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주 : 아예 부대비용은 제한하거나 아니면 허용하거나로 생각하시는지?

교 : 저는 사실 먹는 것도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함. 여기 아이들이 동남아 음식을 먹어본다던가 평소엔 가족 외식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먹는 것도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함. 문화가 보는 것과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체험에는 요리체험도 들어가는데 왜 꼭 먹는 것은 안되는지. 저희가 여행 갈 때 식도락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도 문화체험의 하나라고 생각함. 물론 이 돈을 다 먹는데 쓰는 것은 안되지만 여기 지역 어머니들이 부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가는 분들은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요리를 먹는 것도 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음. 한 사람 앞에 만오천원이라도 오픈해준다면 좋을 것. 사실 아이들이 스테이크 먹는 것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 문화인데 여기 아이들은 스테이크라고 하면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함. 이 아이들에게는 문화가 될 수 있음

주 :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 제한을 하더라도 식비는 허용되었으면 하시는 것인지?

교 : 식비만 허용했으면 좋겠음. 물론 다 먹는 곳에 쓰면 안되니까 금액 제한을 걸어야 함

주 : 문화예술분야의 학원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여쭙보면 학부모님들은 한 달치 교육비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함

교 :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학생 10만원 학부모 10만원으로 나왔을 때 학부모 10만원 부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임. 물론 가정당으로 지원하면 쓸 수는 있겠으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함

교 :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어차피 한 달치 교육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라는 것이었음. 선생님께서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크신 것인지?

교 : 맞음

주 : 혹시 학교에서 가정으로 공지사항이 있을 때 안내가 어떻게 나가는지, 지류로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는지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가 되는지 궁금함

교 :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방식이 가정통신문이고 급하면 문자 메시지임. 홈페이지는 부모님들이 거의 안 들어오심. 이걸 학교마다 다른데 어느학교는 홈페이지 관리를 엄청 하는 곳이 있음. 여기는 1학년이 어차피 아이들이 컴퓨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안 함. 클래스팅(앱) 쓰는 학교는 거기에 공지를 띄우는 경우도 있음

주 :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학교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기가 언제가 적절할지?

교 : 만약 학교에서 안내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3월 첫 주는 어머니들이 놓치실 가능성이 많음. 가장 안정적으로 하려면 3월 중순부터 4월이 나올 듯.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임. 어머니들도 너무 많은 것들이 집으로 오니까 오히려 놓치실 수 있음. 학교에 내야하고 신청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시기에 줘야 보실 것 같음

주 : 학교가 이걸 신청하는 중간 매체가 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이 사업을 안내하는 정도의 일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교 : 그것은 부담이 되지 않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라는 정도면 인쇄해서 배부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흔쾌히 할 수 있음. 하지만 학교에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걷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실적처럼 보고하게 되고 매우 힘들어짐. 어머니들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주 : 3월 입학 전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실 일이 있는지?

교 : 딱 한 번 있는데 신입생 예비소집일이 1월 중에 보통 있음. 왜 와야 하나면 취학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발부하는데 어머니들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임. 이 학교에 다닐 아이들은 누구나 와야 하고 그날 이후에는 입학식임. 이날은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직접 만들어 주기는 어렵고 홍보 전단지들을 주시면 배부하는 것은 가능함. 예비소집일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와버리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 생각이면 리플렛을 컬러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좋음. 학부모님들도 컬러로 된 것은 보시는데 갱지로 된 것은 잘 안 보심. 입학 전에는 리플렛으로 배포하고 입학 후에는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면 될 것. 어머니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하는데 이걸 정부의 주요 사업이니까 비치해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예비소집일 때 배포하는 교육자료에 추가로 리플렛 한 장 더 끼워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음. 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입학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다고 하면서 보낼 수 있음. 완성될 형태의 리플렛을 학교에 배포하는 것이 좋을 것임